

용달샘 수상록(隨想錄)

지난날들의 그리움과 아름다운 것들에 대하여



민준기 지음

전자출판 : 용달샘



저자 : 옹달샘

본명 : 민준기(閔俊基) / Daniel J. Min

1944년 5월에 경상북도 문경(聞慶)에서 태어나, 1946년에 충청북도 보은(報恩)으로 이사했다. 청주대학교 법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연구과정에서 공부했다. 1966년에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임관되어(R.O.T.C 4기), 육군 보병 제 26사단 법무참모부 행정장교로 근무했고, 1968년에 중위로 전역했다. 그해 10월, 국정교과서주식회사에 입사해 7년을 근무하다가, 1975년 11월 1일에 미국으로 이주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M.Div, Th.M, D.Min), 1989년 9월에 K.P.C.A. 서남노회에서 목사로 임직되어, 1990년 9월에 California Presbyterian Church를 개척 담임했다. 2013년에 미주한인기독문인협회에서 주관한 제 4회 기독교문학 신인상 시(詩)부문에 당선되고, 2014년 4월에 California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직에서 은퇴했다. 저서(著書)로는 자전적 수필집 '콩밭개구리', 소설체로 쓴 성경 '벗으면 부끄럽다', 전자출판 형식(PDF파일)으로 만든 '채근산책', '옹달샘문집' 등이 있다.

pastorjkmin@gmail.com

<http://blog.koreadaily.com/ongdalsem>

Tel : 714-588-1109(C)

옹달샘 수상록(隨想錄)

지난날들의 그리움과 아름다운 것들에 대하여



민준기 지음

전자출판 : 옹달샘

프롤로그

1998년 6월 어느 날, 내게 한 개의 소포가 배달되었다. 고국(故國)에 있는 조카딸이 보낸 것이었다. 이 조카는 형님의 첫째 딸이다. 초등학교 시절에 방바닥에 엎드려서 제 동생에게 숙제를 잘 가르쳐주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 그러더니 공주 사범대학 영문과를 나와서, 충청남도 대전(大田)시내에 있는 중학교 영어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반가운 마음과 함께 무엇이 들었는가 궁금한 마음으로 포장을 뜯었다. 아! 그런데 그 속에서 책이 한 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조카에게서 보내온 책은, 그 당시 영남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인 유홍준이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첫 번째 책이었다. 나는 이 책을 아주 흥미 있게 읽었다.

우리 조상들의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나도 나름대로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내 조카가 나도 잊고 있었던 내 마음을 읽어낸 것인지도 모른다. 이 책 한 권이 나로 하여금 그 동안 거의 잊고 살아왔던 지난날들의 기억을 더듬게 했다. 봄이면 진달래꽃 피고, 가을이면 알밤 익어가는, 어린 시절 내가 살던 작은 마을의 기억들이 하나 둘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동안 모두 잊어버리고 살아온 것 같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 알아주지 않으니 저만치 숨어 있다가, 때가 되니 송알송알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이

다. 내게는 너무도 소중한 기억들이다. 적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지난 날 내게 무슨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금 무슨 자랑할 것이 있어서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남보다 특별히 글 쓰는 재주가 있어서 글재주를 보이하고자 함도 아니다.

오래 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에 교사(敎師) 연수(研修)를 왔던 조카딸이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내게 말했다.

“작은 아버지, 저는요,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셨는지 궁금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다. 세대가 달라도 한참 다르니 생각도 많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많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지난날의 이야기들을 통해 지난 세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돌아보려 함이다. 잘 한 것은 잘 한 것대로,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운 대로. 얼마나 기억해 낼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하는 데까지 해 보고 싶었다. 내가 나의 지난날을 기억하지 못하면 누가 기억해 주겠는가? 고국을 떠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지난날들의 그리움과 아름다운 것들을 대부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이민 생활의 현실임을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난날들의 추억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막상 시작은 했는데 도무지 잘 진행이 되지 않았다. 생각이 잘

이어지지 않기도 했지만, 계속 이 일에만 매어달려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미주 중앙일보 J블로그에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는 방을 만들고 2008년 9월 13일에 첫 글을 올렸다. 글을 쓰면서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했고, 때로는 혼자 웃기도 했다. 지난날들을 더듬어보니 어느 것 하나 소중한 것이 없었다.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지 5년이 지나, 그동안 써둔 글들을 편집해서 「콩밭개구리」라는 제목을 붙여 2014년 2월말에 쿤란출판사를 통해 1000부를 출판했는데, 은퇴기념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주다 보니 남은 것이 없다.

생각 끝에 원고를 조금 수정하고 제목도 ‘**지난날들의 그 리움과 아름다운 것들에 대하여**’로 바꾸어서 전자출판 형식(PDF파일)으로 편집했다. 보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다.

2020년 7월 31일. California Yorba Linda에서. 지은이.

목차(目次)

프롤로그

1부 콩밭 개구리 / 10

믿거나 말거나/ 11	어디 가는데 그렇게 뛰느냐?/ 13
난로뚜껑 위의 군고구마/ 17	
새벽의 천둥소리/ 20	
대낮의 불꽃놀이/ 24	부서진 썰매/ 26
돼지만도 못한 놈/ 28	물속에 잠든 마을/ 31
삼계탕과 나박김치/ 33	메뚜기볶음/ 38
콩밭 개구리/ 41	

2부 검사 판사는 하지마라 / 44

그 집에 가지마라/ 45	옆집 아주머니/ 47
머리 자르고 오너라/ 49	그건 반칙(反則)이다/ 53
지키지 못할 약속/ 57	무능교사 물러가라/ 59
많이 실망 했습니다/ 67	곰이 되는 싫다/ 72
그건 알아서 뒤통에 쓰겠는가?/ 76	
아까운 손목시계/ 79	검사 판사는 하지 마라/ 82
내 딸 책임질 텐가?/ 85	

3부 허무한 작전 / 90

선기유종(歎其有終)/ 91	인천이 뭐야?/ 95
Made in USA/ 98	너는 좋겠다/ 102
한탄강 뱃놀이/ 106	선을 뵈던 날/ 109
소대장님 고맙슴데이/ 114	하면 된다/ 118
삼천포 아가씨/ 125	돼지나 먹이고/ 131
그해 겨울은 그렇게 지나가고/ 133	
폐병(肺病)에 페스탈/ 140	피아노가 뭐이가?/ 143
허무한 작전/ 148	인생무상(人生無常)/ 152

4부 짬뽕을 좋아하는 이유 / 156

암호(暗號) 풀이/ 157	무식하면 겁이 없다/ 162
예비군(豫備軍)/ 166	공범(共犯)/ 170
볼태기에 반창고 붙이고/ 173	
무주구천동 감자국 맛/ 177	어디 아프세요?/ 184
산 입에 거미줄 치랴/ 188	여기가 어디지요?/ 193
마음대로 하십시오!/ 195	캄캄한 산타모니카 비치/ 197
토기장이 이야기/ 201	거짓말 하지 말아요!/ 205
새로운 시작/ 209	
찍고 들어가고 찍고 나오고/ 213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나/ 218	
너나 다 해먹어라/ 222	짬뽕을 좋아하는 이유/ 226

5부 친구를 잃기보다는 / 230

그게 안 비싼 겁니까?/ 231 많이 울었다/ 235
주책바가지 초(初) 신자/ 240
아버지의 요리솜씨/ 244 부끄러운 이야기/ 246
전북도 따먹고/ 251 멕시코 탈출(脫出) 작전/ 254
다 걸어치우고/ 260 국물도 없다/ 264
남몰래 흐르는 눈물/ 267 가치(價値) 있는 재산/ 270
믿을 사람이 없다고?/ 273 보험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276
세컨드(Second) 오피니언(Opinion)/ 279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날까/ 284
친구를 잃기보다는/ 288

6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 290

불혹(不惑)의 나이에/ 291 그날 밤 그 고갯길에서/ 295
이상(異常)한 버릇/ 298 고생문(苦生門)이 흰합니다/ 302
참 무모(無謀)한 짓을 했다/ 305
60번 프리웨이에서 있었던 일/ 309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314 가슴을 연 친구/ 319
왜 그렇게 모르는 것이 많으세요?/ 321
이상한 인연/ 325 잊을 수 없는 날/ 333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338

에필로그

1부 콩밭 개구리

믿거나 말거나

내가 자라던 시절에는 방향을 말할 때, 시계 방향을 많이 사용했다. 한시 방향, 여섯 시 방향, 아홉 시 방향 등, 그렇게 말하면 대번에 어느 방향을 말하는지 알았다. 그러나 컴퓨터 시대, 디지털(Digital)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세대들 중에서, 아날로그(Analog)시대에 쓰던 이 말을 알아듣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시계방향? 디지털 세대들에게는 낯선 말일 수밖에 없는 단어다. 내가 엮어 가는 이야기들이 그들에게는 아주 먼 달나라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있었던 사실이요,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이다. 믿거나 말거나 사실은 사실이다.

나는 5월 17일에 태어났다. 정확하게는 그해 음력 4월 스무 닷새 날이었다. 해마다 생일 때만 되면 음력과 양력을 맞추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만세력(萬歲曆)을 뒤적뒤적해서 찾아내고 보니 그 날이 5월 17일이었다. 그 후로 양력 생일을 쓰기로 했다. 생일이 세 개가 되었다. 하나는 음력이고 또 하나는 양력이며, 나머지 하나는 호적상(면사무소에 등록된) 생일인데 그것은 9월 7일이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만해도 태어난 아기들이 얼마 못되어 죽는 일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다고 바로 호적에 올리지를 않고, 얼마

쫘 지난 다음에 호적에 올리기가 일쑤였고, 면사무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바로 갈 수가 없는 것이 또 다른 이유였다. 시골구석에 교통수단이라고는 소달구지를 타든지, 아니면 걷든지 하는 수밖에는 없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나의 세대는 대부분 이렇게 두 개의 생일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진짜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고, 다른 하나는 문서상의 생일이다.

내가 갓난아이 시절에는, 어머니의 젖이 모자라서 동네 아주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단다. 고향에 있는 삼촌 댁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때 그 분을 본 일이 있다. 아주 인자하게 생긴 얼굴이었다. 어렴풋이 그 인상이 머릿속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생각나지는 않는다.

어디 가는데 그렇게 뛰느냐?

내가 태어난 고향은 경상북도에 있는 조그만 시골 마을이다. 사람들은 모두 이 조그만 마을을 ‘귀밑’ 이라고 불렀다. 정확히 말해서, 경상북도 문경군 농암면 화산리 45번지의 2호다. 젓먹이 시절에 떠난 고향이고 보니 정든 친구가 그 곳에 있을 리 없고, 어린 시절 동무들과 발가벗고 맥 감으며 물장구치던 그런 추억을 만들지도 못한 것이다. 나중에 1년간 중학교를 그곳으로 가서 다니기는 했지만 기분은 늘 이방인이었다. 지금은 그 학교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 수 없다. 삼촌 집에서 약 이십리(8km) 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 학교를 세우신 분의 별호(別號)가 ‘청암(靑巖)’이어서 학교 이름이 ‘청암 중학교’였다. 그 분의 이름은 ‘임 근호’ 씨였는데, 언제나 한복을 입고 계셨다. 그것도 두루마기까지 갖춘 정장이었다. 그 분은 교장이면서 국어를 가르치셨다. 그 분이 교실에 들어오면 모두 그를 ‘할배요’ 하고 불렀다. ‘할배’는 경상도 사투리로 할아버지라는 말이다.

아버지는 사형제중 맏이셨다. 내가 중학교 일학년 때 살던 곳은 고향의 큰 삼촌댁이었다. 비록 넓은 집이었지만, 안채 사랑채 따로 있고, 바깥대문, 안대문이 따로 있는, 그런 대로 품위를 갖춘 기와집이었다. 옛날에야 기와집이 어

디 그리 흔했던가? 모두가 조선왕조 말기에 함경도 관찰사 벼슬을 지내셨다는 증조할아버지 덕으로 그만큼 살게 되었던 것이다.

그 고향 집을 지키고 사시던 삼촌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평소에 무척이나 술을 좋아하셨다. 흰 눈이 펄펄 쏟아지는 추운 겨울날에 함께 길을 떠나 가다가 주막(酒幕)을 찾으셨다. 안으로 들어가 흰 두루마기 위에 송이송이 내려앉은 눈을 털어 내고 앉으셔서,

“여기 두부 한 모하고 막걸리 한 되 주시오”

하고 걸걸한 목소리로 주문하셨다.

막걸리 한 주전자와 뜨겁게 데운 두부 한 모가 나오면, 삼촌은 큰 사발에 그득히 술을 따라서 단숨에 쭉 들이키시고는 손으로 입을 쓰윽 닦으셨다. 그리고는 그 사발에다 반쯤 차게 술을 부어 가지고 내게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추운 날에는 이거 마셔야 길 간다.”

그 삼촌 덕에 나는 어릴 적부터 술을 마실 줄 알게 되었다. 그 분은 붓글씨도 잘 쓰셨고, 아무튼 매우 호탕하게 세상을 사신 분으로 기억한다. 나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팔십 리 길을 걸어서 고향엘 자주 다녔다. 자동차라고는 구경도 하지 못하고 살았으니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없고, 오직 한길, 걸어가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른 아침 일

찍이 일어나서 어머니가 지어주신 아침밥을 먹고, 밀가루 반죽에 굵직한 양대 콩을 듬성듬성 넣어, 밥 위에 얹어서 찌낸 밀개떡을 보자기에 싸서 등에 걸머지고, 할아버지와 함께 길을 나서는 순간은 참 기분이 좋았다. 한나절 묵묵히 할아버지 뒤를 따라 걷다보면 점심때가 되어 배가 고프다. 다리에 힘도 빠진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점심 먹고 가자!”

그러면 발길을 돌려 오솔길과 함께 방향을 같이 잡고 흐르는 시냇가로 가서, 평퍼짐한 바위에 짐을 풀어놓고, 어머니가 싸주신 밀개떡을 맛있게 먹었다. 목이 마르면 옆드려서 개울물을 꿀꺽 꿀꺽 마시면 되었다. 그렇게 먹는 점심이 참 맛있었다.



고향 가는 길에 점심 먹고 쉬던 곳

그렇게 점심을 먹은 후, 좀 쉬고 나면 다시 기운이 났다. 할아버지를 앞질러 뛰기도 하고, 그러다가 너무 앞질러

갔으면, 할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길 옆 바위 위에 걸터앉아서 쉬기도 하며, 해가 지도록 하루 종일 걸었다. 할아버지와 함께 길을 걷는 중에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내가 철없이 뛰면서 저만치 앞서 가서는 바위 위에 앉아서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오시더니,

“너 어디 가는데 그렇게 뛰느냐?” 하셨다.

갈 곳은 정해져 있는데 뭐가 급해서 뛰느냐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깨닫게 된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철이 조금 든 후였다. 그 후로 지금까지 여간 바쁜 일이 아니고는 잘 뛰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뛰어야 할 만큼 바쁜 일도 별로 없었다. 아무튼 그렇게 하루 종일 걷고 나면 그 이튿날은 종아리에 알이 배어서 걸음을 옮기기도 힘들만큼 다리가 아팠다.

난로 뚜껑 위의 군고구마

나는 아주 어렸을 적 기억이 별로 없다. 가장 오래된 기억으로는 내가 여섯 살 때의 일이다. 그 때 내가 살던 곳은 아주 조그만 마을이었다. 아랫마을 윗마을 모두 합쳐봐야 한 2백 가구쯤 되는 마을이었다. 옆집에 살던 처녀가 머리에 족두리를 쓰고 연지 곤지 찌고, 가마를 타고 아랫마을로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어찌나 슬피 울던지 아직도 그 울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있다. 그녀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오빠네 집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시집을 가게 되니 어머니 생각이 났던가 보다. 나는 시집갈 때 그렇게 슬프게 우는 사람을 그 후로 다시 본 일이 없다. 마을에 그만 공회당(公會堂)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공회당 일부를 개조해서 초등학교 교실로 쓰고 있었다. 나는 어느 날 형님이 학교 가는데 따라갔다. 그 때 형님이 얼마나 귀찮았을까 하고 생각하니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따라오지 못하게 하느라고 돌을 던져도, 멈칫 했다가는 또 따라갔다. 형님이 교실 안으로 들어가고 나면 나는 유리창에 붙어서 교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꼴을 보다 못한 선생님이, 나를 교실 안으로 불러들였다. 신바람이 난 나는 교실에 들어가서 형님 곁에 앉았다. 그리고는 선생님이 무슨 질문을 하시기만 하면, 주책없이 손을 번쩍

번쩍 들곤 했다. 그 바람에 나는 초등학교를 한해 일찍 들어가게 되었다. 형님 옆에 앉아서 형님을 괴롭게 하는 것을 보다 못한 선생님이, 나를 빨리 학교에 보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내게 남아있는 기억 중에서,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의 기억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그렇게 해서 여섯 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나중에 학교건물을 따로 지었는데 학교래야 교무실 하나, 교실 셋, 그리고 그리 넓지 않은 운동장이 전부였다. 교실 한 가운데 설치되어 있는 난로를 기준으로, 왼 쪽에는 1학년, 그리고 오른 쪽에는 2학년, 그런 형편이었다. 책상이나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마룻바닥에 앉아서 공부를 했다. 겨울이면 난로(煖爐)가에 웅기종기 모여 앉아, 선생님이 난로 뚜껑 위에 얹어 구어주시는 고구마를 나누어 먹으면서 공부를 했다. 그 고구마는 늘 내가 가지고 간 것이었다.

그 때 담임선생님은 교장을 겸하고 계셨다. 그 선생님은 김 선구(金先九)씨였다. 공부가 시작되면 선생님은 나더러 주머니에 있는 고구마를 꺼내라고 하셨다. 그러면 나는 두말 없이 내가 먹으려고 가지고 간 고구마를 주머니에서 꺼내 가지고 선생님께 드렸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런 거 혼자 먹으면 못쓴다.” 하시면서,

주머니칼을 꺼내 고구마 껍질을 벗기고 아이들 숫자만큼
썰어서 난로 뚜껑 위에 얹어 놓으시고는, 다시 가르치기를
계속하셨다.

아이들이래야 모두 여남은 명밖에 되지도 않았다. 한참
공부를 하노라면 고구마 익는 냄새가 솔솔 코끝을 자극한
다. 그 때는 연필 한 자루 공책(空冊) 한 권 얻기가 힘든
때였다. 어른들은 공책을 잡기장(雜記帳)이라고 불렀다. 한
글은 글도 아닌 것처럼 여기던 때였다. 그러니 공책이 아
무 것이나 쓰는 잡기장이 된 것이다. 공책이라는 말도 이
미 사라진지 오래다. 요즘 어린아이들 중에 누가 이 말을
알까?

새벽의 천둥소리

1950년 6월 25일 새벽, 6.25 사변(事變)이 일어났다. 어린 나이에 그게 뭔지 알 턱이 없었다. 갑자기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에 새벽잠을 깨곤 했는데, 그게 대포(大砲)를 쏘는 소리였다. 어느 날인가 잠을 깨니 내가 땅속에 있는 것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방공호(防空壕) 안이었다. 폭격이 심하니 밤중에 잠든 나를 어머니가 그곳으로 옮기셨던 모양이다. 언제 방공호를 파 두었는지 모르지만 대여섯 사람은 족히 들어갈 만한 크기였다. 어른들이 주고 받는 이야기 가운데서 전쟁(戰爭)이 났다는 것을 알았다. 조용하던 시골이 갑자기 시끌벅적하게 되었다. 어느 날인가 밖에 나가 놀다가 해가 저물 무렵에 집으로 돌아갔다. 다 아는 길목이라,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지르고 고개를 숙인 채, 휘파람을 불며, 건들건들 집으로 가서 막 사립문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꼼짝 말고 손들어!”는 소리가 벽력같이 들렸다.

깜짝 놀라서 두 손과 함께 고개를 번쩍 들었더니, 국방색(國防色:초록색 군복 색깔을 그렇게 불렀다) 작업복에 철모를 쓴 군인이 총 끝에 칼을 꽂은 채로 내 앞을 가로막아서있는 것이다. 얼마나 놀랐는지 가슴이 콩당콩당 뛰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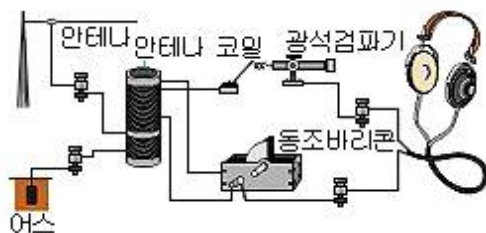
우리 집은 그 시골에서도 안채와 사랑채가 따로 있었다. 바깥쪽에 있는 사랑채에 어느새 국군이 주둔하게 된 것을

내가 알 턱이 없었던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군인은 보초(步哨)를 서고 있었는데, 그 옆에는 커다란 방공포(防空砲)가 하나 덩그러니 북쪽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게 뭐 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하루는 잠을 자다가 방공호 속에서 들었던 그 천둥치는 소리를 듣고 잠을 깼다. 벌떡 일어나서 사립문 쪽으로 나가 봤더니, 군인 하나가 긴 장대에다 내 머리통만 한 커다란 솜방망이를 매달아 가지고, 대포 입안으로 쏘서 넣었다가는 도로 잡아당기니까, 그 솜방망이가 빠져 나오면서 ‘펑’하고 천둥치는 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그 군인은 대포(大砲) 청소(淸掃)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 신기했다.

그 후로는 언제든지 내가 놀러 나갈 때나, 놀다가 집으로 들어올 때면,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인이 나에게 꼭 ‘받들어 총’ 자세를 취하면서, ‘충성(忠誠)’하고 외치며 경례(敬禮)를 했다. 그때 참 기분이 좋았다. 그 때는 전기 불이니 전화니 하는 것은 말만 들었지 아직 한 번도 써 보지 못하던 때였다. 윈 동리를 통틀어도 라디오 한 대가 없는 그런 시절이었다. 전쟁(戰爭)이 나기는 한 모양인데, 도무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어느 날인가 밖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이상한 것을 귀에 꼽고 계셨다. 내가 들어가니까 아버지는 그 이상한 것을 귀에서 꺼내 가지고 내 귀에다 꽂아 주시는 것

이었다. 참 신기했다. 거기서 무슨 말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안 것이지만 그것은 광석(鑛石) 라디오였다. 집에서 뒷동산 꼭대기까지, 족히 300미터는 되는 거리에, ‘삐삐’선(군인들이 사용하는 야전용 전화선을 그 때는 그렇게 불렀다)으로 안테나를 매고, 그 중간에 다듬지도 않은 광석(Iron ore) 한 개를 끼워놓은 다음, 리시버(Receiver), 즉 이어폰(Earphone)을 귀에 꽂으면 라디오 방송이 들리는데, 어떤 때는 한국말이 들리고 어떤 때는 알 수 없는 말이 들리곤 했다. 도무지 주파수(周波數) 조절 기능이 신통치 않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버지는 그것을 들으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대충 짐작하시는 것 같았다.



어린 시절 내가 살던 마을은 워낙 두메산골인지라 어디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거나 한 일은 없었다. 유엔(UN)군이 상륙해서 남침해 온 북한 인민군들은 후퇴를 하게 되었고,

그런 중에 그 마을에도 가끔씩 공비(共匪:도망가는 북한 인민군을 그렇게 불렀다)가 나타나곤 했다. 어느 날인가 나는 아버지와 함께 뒷방에서 자고 있었다. 한 밤중에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버지를 깨웠다. 그 소리에 나도 잠이 깨었다. 북한 인민군 두 명이 장총(長銃)을 어깨에 둘러멘 채 시커먼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무서웠다. 그들은 등에 메고 있던 룡색(Back Pack)을 내려놓더니 거기다가 쌀을 가득 채우라는 것이었다. 그 때 우리는 논이 없었다. 그래서 벼농사는 짓지 못하고 보리, 콩 등 잡곡을 수확해 두었었고, 쌀은 사다가 먹는 형편이라 겨우 반 가마니쯤 쌀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다른 것에는 손을 안대고 쌀만 퍼 담았다. 그러더니 북한 돈 한 다발을 꺼내 주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필요 없으니 그냥 가지고 가시라!”고 하셨다.

그 군인들이 말했다. “이거 잘 보관해 두시라요. 반드시 쓸 날이 올 것입네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버지는 이튿날 그 돈을 모두 불태워 버리셨다.

대낮의 불꽃놀이

그 때는 입을 옷도 귀했다. 양복이라고는 구경도 못했다. 여름에는 삼베 중의적삼을 입었고, 겨울에는 검정 물감을 들인 광목에 솜을 넣어 만든 두툼한 솜바지, 솜저고리를 입고 다녔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구호물자(救護物資)를 보내왔다. 여러 가지의 옷이나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이었다. 구호물자가 배달되면 동리 이장(里長)이 마을에 있는 모든 가정에 골고루 한 개씩 배급해 주었다. 주는 대로 받는 것이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느 해 겨울에 우리 집에는 커다란 검은 색깔의 남자 구두 한 켤레가 배달되었다. 집안 식구 중 어느 누구도 그 구두에 발이 맞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어느 날 그 구두를 가지고 얼음지치기를 하러 냇가로 나갔다. 썰매 대신 구두 한 짝을 타고 얼음을 지치며 놀았다. 그러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팔 다리에 멍이 시퍼렇게 드는 것은 예사로이 있는 일이었다.

셋째 숙모님 댁에는 옷감을 짜는 베틀이 있었다. 그래서 삼(麻)으로 실을 만들어 옷감을 짜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고, 시장에 가지고 가 팔아서 쓰기도 하셨다. 삼 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삼을 찌야 하는데, 삼 찌는 날은 정말 재미있었다. 삼 찌기, 그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불꽃놀이 하는 것만큼이나 신나는 일이었다. 동네 어른들이 모두 나

와서 개울가로 나가서 개울가에 커다란 웅덩이를 판다. 그리고는 그 안에 바짝 마른 소나무 장작을 잔뜩 쌓아놓고, 그 위에는 아이들 머리통 크기만 한 돌을 주어다가 봉우리가 지게 쌓아놓는다. 그리고 장작에 불을 댕기면, 장작은 금방 불이 붙어서 활활 탄다. 불꽃이 하늘로 치솟으며 타고 오르고, 얹어놓은 돌들은 뜨거워지기 시작한다. 쌓아놓은 장작이 알불이 되어서 더 이상 연기가 나지 않으면 삼을 찔 때가 된 것이다.

잔가지를 쳐낸 삼대를 사람 몸통만큼씩 묶어 가지고, 뜨겁게 달아오른 돌무더기 위에 죽 세워놓은 다음, 줄을 서서 물통으로 개울물을 떠다가 돌무더기 위에 쏟아 붓는다. 그러면 요란한 소리가 나면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하늘 높이 솟아오른다. 그 열기와 수증기 때문에 삼이 찢지는 것이다. 물을 쏟아 부을 때마다 터지는 폭음과 솟아오르는 수증기, 그것을 구경하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었다. 별로 구경 할 만 한 것이 없던 시절이었으니.

부서진 썰매

겨울이 되면 꽤나 추웠다. 지금처럼 난방시설이 없었던 탓에 어디를 가도 추웠다. 겨울이 깊어지고 그리 넓지 않은 시냇물마저 꽁꽁 얼어붙은 날에는, 팽이치기를 하거나 썰매를 타는 것이 유일한 놀이였다. 썰매의 뜻은 눈 위를 말이나 매처럼 빠르게 달린다고 하여 본래 '설마(雪馬)'라고 했는데 뒤에 한자의 발음이 변형되어 오늘날 썰매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아버지께서 어느 날, 공을 들여서 썰매를 만들어 주셨다. 너무 좋아서 썰매를 지치고 노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모르다가 그만 탈이 났다. 글공부하는 일을 새까맣게 까먹은 것이다. 신작로(新作路) 옆 개울가 언덕에서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 썰매를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두 말이 필요 없다. 당장 썰매를 건어 들고 아버지 앞으로 가서 썰매를 가만히 아버지 발 앞에 내려놓았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길옆에 있는 수박 통 만큼이나 큰 돌을 집어 드시더니, 썰매 위에다 내어 던지셨다. 썰매는 그만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아버지는,

“갇다 버리고 집에 가서 글 읽어!” 하시고 집으로 들어가셨다.

아버지 손수 공들여 만들어주신 썰매가 부서진 것이 아깝기도 하고, 조금도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아버지가 야속하기도 해서, 나는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며 부서진 썰매를 주어다가 쓰레기 더미에 버렸다.

돼지만도 못한 농

할아버지는 우리 집안의 훈장(訓長)선생님이셨다. 천자문(千字文)부터 시작해서 소학(小學), 대학(大學), 논어(論語), 맹자(孟子)에 이르기까지, 모두 할아버지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할아버지는 나의 멘토(Mentor)셨던 것이다. 해야 할 글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철없이 형제간에 싸워서, 아버지의 속을 썩여드리는 일이 더러 있었다. 그럴 때면 할아버지는 늘 회초리를 치셨다. 잘못을 저지르고 꾸중을 들어야 할 처지가 되면, 할아버지는 먼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물어보셨다.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잘못을 인정하게 하셨다. 그리고는 말씀하셨다.

“나가서 회초리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두 말 없이 밖으로 나가 땀감으로 해다 놓은 나뭇짐 속에서 회초리 감을 찾아야 했다. 새끼손가락 굵기보다 좀 가늘고 두어 자(약 60cm)쯤 기다란 싸리나무를 찾아 가지고 할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렸다. 그리고는 바지를 걷어 올리고 종아리를 할아버지께로 향하게 돌아선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그 회초리로 내 종아리를 치셨다. 아파서 눈물이 나지만 참아야 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책망을 하실 때 결코 맨 손으로 직접 때리시는 일이 없으셨다. 종아리 외에는 때릴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아이들끼리 다투다가 머리에 꿀밤이라도 먹이는 것이 할아버지 눈에 띄

게 되면 야단을 맞았다.

아버지는 좀 다른 방법을 쓰셨다. ‘회초리를 맞아도 말을 안 들으니 이제 다 틀렸다’ 하시고는 사랑방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석고대죄 할 일만 남은 것이다. 아버지는 사랑방으로 들어가시는 순간 방문을 안으로 걸어 잠가 버리신다. 그리고는 우리가 문밖 나무마루 바닥에 발목이 저리도록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빌어야 했다. 그러기 전에는 누가 뭐래도 문을 열지 않으셨다. 우리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까지는 식사도 하지 않으셨다. 자식 놈들 하나도 말 안 듣는데 살아서 뭐하겠느냐고 하시면서 혼자 누워 계셨다. 그럴 때면 으레 어머니는 벌 받는 아들을 멀찍이 서서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훔치시곤 하셨다.

어릴 때는 자라가면서 형제들 간에 더러 싸우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형제간의 싸움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첫째는 형제가 싸우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이요, 둘째는 동생이 형에게 대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형은 동생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유였다. 그래서 형제 간에 싸우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일이라고 가르치셨다. 어느 날인가 나는 무슨 일로 형님에게 대어들었다가 할아버지에게 들켰다. 할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돼지우리로 들어

가시더니, 새끼줄로 내 허리를 묶어 가지고 돼지우리 기둥에다가 붙들어 매셨다. 그리고는 말씀하셨다.

“너는 돼지만도 못한 놈이다.” 나는 그날 너무 창피했다.
그 이후로 나는 형님과 싸운 기억이 없다.

물속에 잠든 마을

어느 날부터인가 나에게는 큰 구경꺼리가 생겼다. 엄청나게 큰 괴상하게 생긴 자동차가 하루 종일 웅웅거리며 땅을 파고, 커다란 덤프차(덤프트럭) 여러 대가 하루 종일 흙을 실어 날랐다. 또래 친구들과 공사장이 잘 내려다보이는 산허리에 있는 조그만 바위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것을 구경하는 것이 참 재미있었다. 어른들이 그 땅 파는 차를 부루도저(Bulldogger)라고 불렀다. 정부(政府)에서 앞산과 뒷산 사이를 막아 저수지를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 일 년쯤 그렇게 공사를 하더니, 그 부루도저가 결국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작은 마을을 통째로 물속에 묻어버린 것이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렇게 되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구경을 하고 좋아했으니.

30 년 전쯤 할머니 산소에 성묘(省墓)를 가느라고 산 중턱에 새로 난 길을 가면서, 산 아래 왼쪽으로 큰 호수가 있는 것을 보았다. 지금은 그 물 속에 잠겨버린 그 옛날 어린 시절 철없이 뛰놀던 작은 마을, 웅기종기 모여 있던 초가집, 자동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 한 신작로(新作路)길, 메기 잡고 가재 잡던 개울 등, 그 정답던 모습이 아스라이 떠올라 사라질 줄을 몰랐다.



사진에 보이는 하얀 모래톱이 옆으로 길게 뻗어 있는 곳
그 중간쯤에 우리 집이 있었다. 여름이면 발가벗은 알몸으
로 물장구를 치며 놀던 생각, 겨울이면 신나게 팽이를 치
고 썰매를 타던 일들. 참 정다웠던 어린 시절의 그리운 날
들이 물속에 갈아 앉아 잠들어 있다.

삼계탕과 나박김치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경상도에 있는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중학교를 가게 되었다. 국민학교는 지금의 초등학교다. 어릴 적 살던 삼거리(정확히는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삼거리)에는 중학교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 곳은 조그만 동산기슭에 웅기종기 100여 채의 초가집들이 모여 있고, 마을 앞에 신작로 길 하나, 그 길 건너서는 조그만 개울이 흐르고, 개울 건너에는 그리 넓지 않은 밭이 조금 있을 뿐,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도 없었다. 그 밭을 지나가면 바로 앞산이 앞을 가로막고 우뚝하니 솟아 있는 정말 작은 마을이었다.

일 년 동안을 큰삼촌 댁에서 먹고 자면서 공부를 했다. 나의 나그네 생활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한 것은 초등학교 시절 6년 동안이 가장 긴 것이었다. 어쨌든 삼촌댁에서 중학교 생활을 시작했다. 이십 리(8km/5mile)쯤 되는 거리를 매일 걸어서 다녀야 했다. 가장 힘든 때는 여름 장마철이었다. 우산이래야 창호지(窓戶紙)에 기름을 먹여서 만든 지우산(紙雨傘) 아니면, 조그만 바람에도 견디지 못하고 뒤집어지는 비닐우산이 고작이었던 시절이다. 검정 물감을 들인 광목 한 조각에 책과 공책을 둘둘 말아 가지고 허리에 질끈 동여매고는, 그

위에 흰색 반소매 상의를 입고 들고 뛰어야 했다.

한번 우기(雨期)에 접어들면 며칠씩 날이 개이지를 얹아 햇빛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니 젖은 옷이 잘 마를 리가 없다. 교복(校服)이래야 겨우 한 벌뿐이고, 갈아입을 옷이 없었다. 밤새 마루에 줄을 매고 널어놓았지만 막상 아침에 입고 가려면 축축한 채 그대로 있었다. 별 수 없이 축축한 옷을 걷어 입고 갈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몇 번을 그렇게 하고 나면 옷에 곰팡이가 나서 거뭇거뭇한 자국이 남았다. 그러다가 방학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어머니는 늘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주셨다. 병아리를 한 마리 푹 고아서, 노랑게 달여진 인삼(人蔘)즙과 함께 나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나는 삼계탕(蔘鷄湯)을 아주 좋아한다. 다른 건 잘 못해도 삼계탕은 내 손으로 끓일 수 있다. 옛날에야 병아리 한 마리 먹기가 어디 쉬운 일이었던가? 요즘은 마켓에 가면 약 병아리 쫄면 얼마든지 사올 수 있으니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공사 중이던 저수지가 완공이 되고 물을 채워야 할 때가 오자, 이제 모두 그 마을을 떠나야 했다. 내가 고향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안에 우리 집은 관터(官其里)로 이사를 했다. 거기에는 중학교가 있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2학년에 편입학을 했다. 옛날 살던 곳하고는 달랐다. 면사

무소(面事務所)가 있는 곳인데다 닷새마다 장이 서고, 양조장(釀造場)이 있고, 공의(公醫)가 있는 비교적 큰 마을이었다. 공의란 면 단위로 한 사람 정도 있는 의사(醫師)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중학교 건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담배 창고(담배를 수확해서 찌고 말리고 보관하는 곳) 건물을 빌려서 학교 교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어느 해 봄, 아버지는 품꾼들을 데리고 새로 집을 짓기 시작하셨다. 집 지을 나무는 고향에 있는 선산(先山)에서 베어 가지고, 200리가 넘는 길을 트럭을 빌려서 실어왔다. 나무를 다듬고, 집터를 다지고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하던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사람들은 일하느라 바쁘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드느라 바쁘셨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5분 거리도 채 안 되는 집으로 뛰어가서 점심을 먹곤 했다. 내가 부엌으로 들어가면 어머니는 큰 가마솥 뚜껑을 여시고, 아직 뜬이 좀 덜 든 밥을 한 주걱 크게 떠서 사기대접에 담고는, 거기다가 고춧가루가 곱게 울어난 나박김치 한 공기를 부어주셨다.

그 새콤하고 시원한 맛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새로 짓는 집의 설계(設計)는 아버지가 손수 하셨다. 커나란 모눈종이(方眼紙)를 펴놓으시고는, 몇 번인가 그렸다가는

지우시고 하시던 모습이 생각난다. 어떻게 하면 더 쓸모 있고 멋있게 지을 수 있을까, 무척이나 생각이 많으셨을 것이다.

집은 두 채였다. 안채에는 안방, 윗방, 사랑방, 다락방, 그리고 조그만 약방(藥房)이 있었다. 그 시절에는 요즘처럼 약이 흔하지 못했다. 한의사(韓醫師)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서 가정상비약으로 약재(藥材)를 텃밭에 심어 키우기도 하고 사오기도 해서, 잘 보관해 두었다가 집안에 우환(憂患)이 생기면 그것으로 약을 지어 달여서 먹곤 했다. 지금은 이 미국(美國)에도 한의원(漢醫院)이 얼마나 많은가.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사랑채에는 할아버지가 기거하시는 큰방과, 일꾼이 기거하는 좀 작은방이 있었다. 그리고 안채와 사랑채는 양쪽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전체적으로 사각형의 구조였다. 바깥마당에는 대문이 없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지만, 사랑채를 통해서 안채로 들어가려면 대문을 지나야 한다. 그 대문은 안에서 빗장으로 걸어 잠글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다. 아직은 집이 완공되지 않았던 어느 초가을, 밝은 아주 맑은 날씨에 곡식이 영글기 아주 좋은, 약간은 따가운 햇살이 내려 쬐이는 한 낮이었다. 나는 새로 지은 안채에 있는 사랑방에 들어가서 누어 있다가

잠이 들었다. 꿈결에 벼락 치는 소리가 들렸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분명히 방안에서 자고 있던 내가, 어느 새 밖으로 나와서 마당에 멍하니 서있는 것이었다.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던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따가운 햇살에 나무가 마르면서 자리를 잡는 중에 생기는 소리였던 것을 안 것은, 한참 뒤였다.

메뚜기볶음

그 시절은 참으로 가난하던 때였다. 흰 쌀밥을 먹기는 고사하고 보리밥이라도 거르지 않고 먹기가 힘든 시절이었다. 산에 가면 잔대, 도라지, 칩뿌리 등을 캐어 먹었고, 들에 가서는 찔레 순을 꺾어 먹든가 아니면 발독이나 산기슭에서 마를 캐어먹곤 했다. 하루 세끼 중에서 아침에만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점심에는 고구마나 감자를 삶아 먹었고, 저녁에는 국수 아니면 죽(粥)이었다. 집안 형편이 좀 나아졌을 때, 아버지는 밀가루 음식을 싫어하셨다. 너무 자주 잡수셔서 질리신 것이다. 그런데 웬지 나는 지금도 국수가 좋다. 요즘이야 좋은 밀가루들이 얼마나 많은가.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시절이 아닌가?

요즘은 건강에 좋지 않은 삼백(三白)중의 하나 취급을 받는 흰 밀가루도 흔하게 먹을 수 없었다. 밀 중에도 호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빵아서 가루를 만들어 국수를 만든 것이 호밀국수였다. 풀기가 없어, 엄지손가락 넓이만큼 널찍널찍하게 썰어서 우거지김치를 함께 넣고 삶아서 먹었다. 빛깔이 다갈색으로 메밀국수 비슷한 색깔이었다. 건강에 좋다고 찾는 것들을 나는 이미 어린 시절에 싫도록 먹고 자랐다. 요즘에 가끔 친구들과 외식(外食)을 하러 가면 모두 건강식을 찾기에 바쁘다. 나는 농담 삼아 말하곤 한

다. “어릴 때 못 먹은 사람 지금이라도 많이 먹어라, 나는 이미 많이 먹어서 필요 없다.”

가을이 되면 밭에는 대추가 빨갭게 익어가고, 뒷마당에 있는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이 보기만 해도 좋았다. 어찌다 들에 나가면 대추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빨갭게 익은 대추를 한웅큼씩 따먹기도 했다. 그러다가 대추나무 가시에 굽혀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 벼가 익어 고개를 숙이고 들녘이 온통 가을빛으로 물 들면 벼논에는 메뚜기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 조금은 기다랗게 생긴 잘 영근 박을 골라, 꼭지가 있는 좁은 곳에는 엄지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을 내고, 반대편 넓은 부분에는 아이들 주먹만 한 구멍을 내서 속을 파내고 다시 막아둔다. 이렇게 만든 것을 ‘두빙이’라고 불렀다.

이 ‘두빙이’를 들고 논으로 가 메뚜기를 잡아 ‘두빙이’의 조그만 구멍에 넣으면 메뚜기는 그 때부터 꼼짝없이 포로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다. 집으로 가지고 오면 어머니는 메뚜기를 솥에 넣고 소금을 치고 참기름을 쳐서 볶아 놓으셨다. 이걸 훌륭한 반찬이었다. 한번은 집에서 한 오리(2km)쯤 떨어진 곳에 사는 학교 친구의 집에서 놀다가 날이 저물었다. 집으로 돌아오려니까 친구 어머니가 “모처럼 왔으니 저녁이나 먹고 가라”고 하셨다. 그리고 조금 있다

가 저녁상을 차려서 들어오셨다.

상위에는 커다란 소쿠리 하나와 열무김치 한 사발이 놓여 있었다. 소쿠리 안에는 금방 찌낸 고구마에서 김이 무럭무럭 나고 있었다. 그 친구는 공부를 잘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범(師範)학교로 진학을 했고, 사범학교를 졸업하고는 어딘가 학교 선생님이로 부임해 갔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아직 만나 본 일이 없다. 나 역시 중학교를 졸업하고부터 타향살이가 시작되었다. 그때 집을 떠나서 살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왔다. 내 평생에 지금까지 어머니와 함께 한 집에서 지낸 것이라고는 초등학교 시절 6년과 중학교 시절 2년, 그리고 어린아이 때 6년, 합해서 14 년뿐이다.

콩밭 개구리

어린이 노래 운동가 백창우 씨의 작품 중에“콩밭 개구리”라는 곡이 있다. 95초짜리의 아주 짧은 곡이다.

콩밭 개구리 / 백창우 시, 곡

아이들이
콩밭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산에 가서 구워 먹었다
소고기보다 더 맛이 좋다 한다
불쌍한 콩밭개구리

나는 이 노래 가사 중, ‘소고기보다 더 맛이 좋다 한다’를, ‘소고기보다 더 맛이 좋다’로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먹어 본 사람이니까! 그 시절에는 정말 먹을거리가 그리 많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대부분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다. 생선이라고는 개울에 가서 잡는 가재나 피래미가 고작이었다. 고기(肉類)를 먹어본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였다. 초여름이 되면 아버지를 따라 밭으로 나가서 콩밭을 매야 했다. 흙을 돋우어 주고 풀을 뽑아주고 해야 콩이 제대로 잘 자라기 때문이다. 농사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씨만 뿌려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

히 가꾸어야 한다. 한참 정신없이 콩밭을 매다보면 뜻밖의 일이 벌어진다. 콩 숲에서 어른 주먹만 한 개구리가 뛰쳐 나오는 것이다. 그 날은 재수가 좋은 날이다.



개구리는 몸이 둔해서 빨리 도망을 못 간다. 얼른 개구리를 잡아 가지고, 밭둑에 있는 뽕나무 가지를 한 개 꺾어, 껍질을 벗겨서 개구리 다리를 묶어 나무에 매어놓으면, 개구리는 콩밭을 다 매고 집으로 갈 때까지 포로로 잡혀있게 된다. 일을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 매어두었던 개구리를 가지고가서, 큼지막한 호박잎으로 여러 번 찐 다음

짚으로 묶고, 저녁밥을 짓느라 불을 지펴놓은 부엌 아궁이에 넣어 굽는다. 호박잎이 시커멓게 탔을 무렵에 꺼내면, 알맞게 잘 구어진 개구리 다리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 시절 아이들에게는 훌륭한 영양식(營養食)이었다.

2부 검사 판사는 하지마라

그 집에 가지 마라

고향 마을에는 산수유(山茱萸)나무가 많이 있었다. 층층 나뭇과의 낙엽 활엽 교목으로, 높이는 3미터 정도이며, 봄에 노란 꽃이 잎보다 먼저 산형(山形)으로 차례로 피고 열매는 길이 1.5cm의 긴 타원형의 핵과(核果)로 가을에 익는다. 중국이 원산지라 한국 중부이남,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산수유나무의 열매는 강장(强壯)의 효과가 있어 유정(遺精), 야뇨증, 대하 따위에 약으로 쓴다.



산수유 꽃

중학교 시절을 큰 삼촌 댁에서 보낼 때의 일이다. 그 때에는 용돈이 없었다. 애시 당초부터 용돈이라고는 받아본 일이 없었다. 궁하게 된 나는 어느 날 학교에 가기 전에

산수유 말린 것을 한 공기쯤 종이봉투에 담아서 옷자락 속에 감추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는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약방(韓藥房)을 찾았다. 한약방 주인은 조금은 의심스러운 눈치였지만 아무 말 없이 얼마간의 돈을 계산해 주었다. 산수유 말린 것은 조금은 비싼 약재(藥材)였기 때문에 그런대로 한 동안 용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몇 번인가 그런 일이 반복(反復)되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어느 날 학교에 다녀오니 작은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는 조용히 물으셨다.

“너 장터에 있는 한약방에 갔던 일이 있느냐?”

나는 일이 이미 발각난 줄 알고 이실직고(以實直告)했다.

“잘못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다.

평소 작은아버지와 친분이 있으신 한약방 주인이 이거 그냥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싶었던지 작은 아버지께 사실을 알려드렸던 것이다.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는 나에게 작은아버지께서는,

“다시는 그 집에 가지 마라!” 하시고 용서해 주셨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다.

옆집 아주머니

우리 집과 옆집 사이에는 흙과 돌을 섞어 쌓아놓은 담이 있었고, 그 중 한 곳에 서로 드나들 수 있도록 쪽 대문을 달아 놓았다. 우리 집에는 우물이 없었고, 옆집에는 우물이 있었기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 문은 가끔 옆집 아주머니가 우리 집으로 급하게 피난 올 때 통로로 사용되었다. 옆집 아저씨는 체구가 크고 힘도 장사였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도 다른 사람보다 두 배는 더 많이 해서 짊어지고 왔다. 게다가 평소 술을 마시기 좋아해서 술 많이 마시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술 한 말 지고는 못 가도 마시는 간다는 사람이었다. 그 집에는 아이가 없어 집안이 늘 조용했다. 누구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두 식구가 그렇게 오손도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싸움이 잦았다.

갑자기 쪽 대문이 열리면서 옆집 아주머니가 얼굴을 감싸고 우리 집으로 뛰어 들어왔다. 주먹으로 두들겨 맞았는지 눈두덩이 시퍼래 가지고 도망을 온 것이다. 그러면 어머니는 그 아주머니를 얼른 안방으로 들어가 숨게 하셨다. 무엇이 화가 났는지 소리를 버럭 버럭 질러대며 마누라를 따라오다가도, 마누라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더 이상 따라오지 않고 돌아갔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 아저씨는

밖에서 술이 취해 가지고 들어오는 날이면 으레 자기 마누라를 그렇게 두들겨 패곤 했던 것이다. 왜 그럴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그런데 더 이상하게 생각되었던 것은 그 아주머니의 행동이었다. 한바탕 그렇게 소동이 벌어진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이 아주머니가 광에서 쌀을 퍼서 함지박에 담아가지고, 머리에 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어제 남편이 외상으로 마시고 들어온 술값을 갚으러 다니는 것이다. 눈두덩은 아직 시퍼렇게 멎든 채로. 어린 나이에도 나는 그 아주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왜 저러고 살아야 하나?’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그러구려 나도 객지 생활하느라 그 집 사정을 더 이상 듣지 못했다.

그 후 십여 년이 지나 내가 들은 소식은, 그 집이 요즘 아주 조용히 깨가 쏟아지게 잘 산다는 것이었다. 비록 늦게나마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고 사람이 많이 변했다는 것이다. 허구한 날 남편에게 얻어맞고 살던 그 아주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떠올랐다. 그런데 그 후 얼마 안 되어서 그 아저씨가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이 겨우 50 이 좀 넘어서, 그렇게 바라던 행복을 좀 더 길게 누리지도 못하고.

머리 자르고 오너라

형님이 스무 살 되시던 해에 결혼을 하셨다. 송씨(宋氏) 집안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 집안에는 여인(女人)이 귀했다. 아버지도 사(四)형제(兄弟) 뿐이셨고, 나도 사형제 중의 둘째로 태어났다.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교 다니다가 병(病)으로 일찍 죽었다. 무슨 병이었던지는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정말 예쁘게 생겼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가 40세 되시던 해에 돌아가셨단다. 그러니 우리 집에는 늘 남자들만 득시글거렸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세 아이들, 이렇게 살았다. 막내 동생은 형님이 장가 드시고 난 후에 태어났다. (장가 든다는 말은 결혼한다는 말이다.)

그러니 나에게는 고모도 없고, 누이도 없고, 여동생도 없다. 그런 마당에 형님이 결혼을 하셔서 형수(兄嫂)님이 들어오시게 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그렇기는 했지만 나는 형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했다. 평소에 여인네들과 대화하는 훈련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같다. 형님이 결혼하실 무렵만 해도 맛선을 본다거나, 연애(戀愛)를 한다거나 하는 일이 그리 흔치 않았던 시절이었다. 형님은 결혼하시기 전에 형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어느 날 셋째 숙모(叔母)님이 오셨

다. 아버지는 셋째 숙모님과 함께 장터(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점포(店鋪)가 있는 곳을 그렇게 불렀다)에 나가서 비단 옷감을 한 보따리 가져오셨다.

그러더니 숙모님은 그것들을 보따리에 싸서 머리에 이시고는 어디론가 떠나셨다. 무슨 일인지 알 턱이 없었다. 숙모님은 비단 보따리를 머리에 이시고, 족히 30리(12km)는 떨어진 어느 마을로 가셨다. 그리고는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리시며, 비단 장사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집엘 들렀더니 마침 점심때가 되어서, 점심 대접을 받았는데, 그 집에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이 있는 것을 보고 오셨단다. 나중에야 안 일이지만 이건 미리 계획된 일이었다. 할아버님이 교분(交分)을 가지고 지나시는 분들 가운데서, 형님의 종매가 들어왔다. 그러나 처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길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머리를 맞대고 상의한 결과, 숙모님을 비단장사로 변장시켜서 처녀가 있는 집으로 자연스럽게 들여보내신 것이다. 할아버지께서는 숙모님의 사람 보는 눈 있음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 후에 정식으로 혼담이 오고 가더니 어느 날 형수님이 우리 집으로 시집을 오셨다. 나중에 형수님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한 토막 있다. 그 당시 시골 처녀들은 대부분 머리를 뒤로 길게 땋아 내린 땡기머리를 하고 살았다. 단발(短

髮)머리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때였다. 그렇지만 유행(流行)의 물결은 막기가 힘들었다. 동네의 처녀들이 하나씩 둘씩 치렁치렁 길게 땀아 내렸던 머리를 짧게 잘라서, ‘퍼머’를 하고 산뜻한 모습으로 다니는 것이 유행이었다. 그런데 형수님은 남들처럼 짧은 머리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사정(事情)은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다. 엄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집안이었다. 여자가 단발을 하고 ‘퍼머’를 한다니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였다.

우리 집은 철저히 유교(儒敎)를 신봉(信奉)하는 집안이다. 다섯 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서 천자문(千字文)을 배웠다. 천자문은 모든 공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한자(漢字)로 기록한 책이다. 어릴 적에 소매 없는 런닝셔츠를 입어보지 못했다. 할아버지께서, ‘그것도 옷이라고 입고 다니느냐’고 호통을 치셨기 때문이다. 철없이 혹 부엌엘 들어갔다가는 남자가 어딜 들어가느냐고 호되게 꾸지람을 들어야 했다. 요즘에 어떤 간 큰 남자가 부엌엘 안 들어가고 살겠는가?

사돈댁에서는 나중에 합의가 되었는지, 시집보내는 딸, 남들처럼 퍼머 머리로 시집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는, 우리 집에도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물어 오셨단다. 요즘 세상 같으면 상상(想像)도 못할 일이지만 그 땐 그랬다.

이제는 할아버지의 결단(決斷)만이 남았다. 할아버지는 사돈댁에 말씀하시기를, ‘시집보낼 때는 그냥 보내시오,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셨다. 그래서 형수님은 쪽 찌고 비녀 뽑고 그렇게 시집을 오셨는데, 한 달이 지나자 할아버지께서 형수님에게,

“새 아가 너 오늘 미장원에 가서 머리 자르고 오너라!” 하셨단다.

나는 어머니와 형수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다. 그렇지만 그 숙명(宿命)같은 고부(姑婦)갈등은 두 분 사이에도 있었나보다.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 나가 된 종일 부엌에서 살다시피 하는 형수를 아버지는 안쓰럽게 여기셨다. 흰 광목 버선에 고무신을 신고, 살을 에는 듯 추운 날에 바깥에서 일을 하면 발이 얼어 남의 발 같이 되는 것은 우리 시절에는 누구나 경험한 일이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다. 아버지는 시장에 가서서 털신 한 켤레를 사다가 형수님에게 주시면서,

“아가, 이제 이걸 신고 다녀라!” 하셨다.

신발이 형수님 발에 조금 컸었나보다. 큰 신발을 신고 종종 걸음을 치나보니, 신발 끌리는 소리가 자주 났다. 그 소리를 방안에 앉아 듣고 계시던 어머니가 시샘이 나셨는지, 바깥에서 들릴 정도로,

“저 소리 좀 안 들을 수 없나!” 하셨단다.

그건 반칙(反則)이다.

물에 잠겨버린 마을을 떠나 충청도 보은(報恩) 땅으로 이사를 했다. 경상도에 있는 고향 삼촌 집에서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새로 이사 온 곳에 있는 중학교로 전학(轉學)을 했다. 새로 이사를 와서 살게 되니까 여러 가지가 낯 설었다. 초등학교 시절에 살던 동리와는 다른 것이 많았다. 면(面) 소재지가 되어서 그런지, 학교도 매우 커보였고, 학생들도 꽤 많았다. 술도가(양조장을 그때는 그렇게 불렀다)도 있고, 이발소도 있고, 양복점도 있고, 경찰서 지서(파출소)가 있어서 순경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생활용품, 가정용품 등, 물건을 파는 상점들도 여러 군데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공의(公醫)도 있었다. ‘공의’는 의사(醫師)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널찍한 장터가 있어서 매 5일마다 장(Outdoor swap meet)이 서는데, 그때는 이웃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로 거리가 북적대곤 했다.

그런 곳이고 보니 동네 아이들의 텃세도 만만치 않았다. 그 때 나는 자주 할아버지의 술심부름을 하곤 했는데, 주전자(酒煎子)를 들고 막걸리를 받으러 장터 술도가로 가노라면, 어김없이 동네 아이들 몇 명이 내 앞길을 막고 괜한 시비를 걸어왔다. 천성이 싸움은 못하는 체질이라, 누가 쥐

어박으면 한 대 맞고 슬쩍 피해서 다녔다. 반항을 하지 않으면 별 재미가 없었던지 더 이상 크게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일 년을 지나는 동안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 그 이듬 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어서 청주(淸州)로 떠나게 되었다. 이제부터 집을 떠나 객지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그 때 학생들 사이에는 클럽을 조직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나도 별 수 없이 어느 클럽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된 것이 운동이었다. 무슨 조깅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싱, 태권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때, 청주 시내(市內)에는 대표적인 도장(道場) 두 곳이 있었는데, 하나는 태권도(跆拳道)를 가르치는 무덕관(武德館)이었고, 다른 하나는 공수도(空手道)를 가르치는 창무관(暢武館)관이었다. 태권도는 손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데 반해서, 공수도는 발을 쓰는 비율이 높았다. 그래서 공수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싸움을 할 때 손을 쓰는 것을 하수(下手)로 여겼다. 중학교 때 텃세에 시달리던 일도 있고 해서, 나는 공수도를 배우기로 마음을 먹고, 창무관에 등록을 해서 한 3년 열심히 운동을 했다. 운동 덕분인지 소심하던 성격에 자신감도 좀 생기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공연히 누구에게 시비를 걸거나 싸움을 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

그해 여름 방학이 되어 집으로 내려왔다. 소문은 또 어떻게 들었는지 평소 건들거리고 다니는 아이들 몇 명이 나를 좀 보자고 했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너 운동 했다면? 우리 시합 한번 하자” 하는 것이다.

“무슨 시합인데?” 하고 물었더니, 복싱 시합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복싱 글로브(Glove) 한 쥔레를 나에게 주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것들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작당을 했구나!’ 그렇다고 그냥 물려서기에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복싱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지만 ‘어디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복싱 글러브를 양손에 끼고 어설픈 시합자세를 취했다. 애시 당초 되는 싸움이 아니었다. 실패 맛있다.

한참 그렇게 코피가 나도록 두들겨 맞다가 보니 뺨이 나기 시작했다. ‘이놈이 아직 내 발 맛을 못 봤지, 너 어디 한번 당해봐라, 너는 주먹이지만 나는 발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른 발을 들어서 옆차기로 췌게 한방 날리려는데, 번개처럼 내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복싱에 발을 쓰면 그것은 반칙이다!”

그 생각이 나는 순간 옆으로 뺨으려던 발을 멈췄다.

그리고 복싱 글로브를 벗으면서 말했다.

“내가 졌으니 그만 하자!”

시합은 그렇게 싱겁게 끝이 났다. 그 후로 그 마을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키지 못할 약속

중학교 시절은 별로 기억나는 일들이 없다. 고등학교 시절의 일들이 조금은 생각나지만 그것도 몇 가지 안 된다. 아마도 고등학교 2학년 때인 듯.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급사(給使)가 와서 교무 주임이 나를 찾는다는 것이었다. ‘급사(給使)’는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즉시 교무실로 갔다.

교무 주임이 말씀하셨다.

“너 사친회(師親會)비 왜 아직 안 내냐? 언제까지 가져올래?”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었다. 시골에서 학비(學費)가 와야 하는데 우리 집 경제 사정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던 때라, 제 날짜에 사친회비(등록금 비슷한 그런 것이 있었다)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입을 봉한 채 고개를 떨구고 서 있는 나를 향해 그분이 말씀을 했다.

“이달 말일(末日)까지 가지고 와라!”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요!” 했다.

내 대답을 들은 그 분이 물끄러미 나를 한번 쳐다보시더니,

“야, 너 웬 군말이 많으냐, 잔소리 말고, 말일까지 가지

고 와! 약속해라!”

나는 또 말했다.

“약속할 수 없는데요!”

교무주임 선생님은 내 대답을 들으시고 기가 막히신 듯,
“야, 너 인마…혹 늦게 되더라도 일단 약속을 하고 가면
되지, 너 자꾸 그럴래?”

좀 화가 나신 듯 했다.

나는 다시 조용하게 말씀을 드렸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거짓말 하
는 거잖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내도록 하
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정확하게 약속을 드릴 수 없지만,
약속했다가 못 지키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요 선생
님!”

교무주임 선생님은 멍한 표정으로 나를 한 번 보시고는,
“내 참 별 놈 다 보겠네, 알았으니 가 봐!”

하고는 하시던 일을 계속하셨다.

무능(無能)교사(教師) 물러가라!

1960년 4월 19일, 소위 4.19 혁명(革命)이라는 사건(事件)이 일어났다. 전국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주동이 되어 일어난 민주화(民主化) 시민(市民)운동으로, 당시 대한민국 정부 권력의 주체였던 자유당(自由黨) 정권을 무너뜨린 혁명적 사건이었다. 이 일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대표적인 변화는 남학생들의 머리 모양이었다. 당시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은 일률적으로 머리를 짧게 깎아야 했다. 그런데 4.19 이후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더니, 하나씩 둘씩 머리를 길게 기르기 시작했다. 교복을 벗고 사복(私服)을 입으면 학생인지 사회인(社會人)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다. 학생들은 당연한 자주적(自主的)인 권리를 회복했다고 생각했고, 사회인들은 학생들의 자유(自由)분방(奔放)이 지나쳐서, 방종(放縱)으로 흐름을 염려하곤 했다.

학교 내에서 나타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을 학교에서 몰아내는 운동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소위 말해서 무능(無能)교사(教師) 축출 운동이었다.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4.19 혁명이 일어난 그 이듬해 5월 어느 날이었다. 당시에 나는 3학년 1반 학급 부실장(副室長)을 맡

고 있었다. 하루는 학교엘 갔더니 오전 8시 30분에 각 학급 실장 회의가 있다고 연락이 왔다. 마침 실장 녀석이 결석을 하는 바람에 부 실장인 내가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고3 시절. 청주 무심천에서

모임 장소로 갔더니 참석자 명단을 적은 종이에다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회의가 시작되어 이런 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급기야 화제(話題)가 조(趙)OO 선생님에 대한 것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그 선생님은 평소 허풍이 좀 심하셨던지, 별명이 조 대포였다. 대다수 참가자들이 조 대포를 학교에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이튿날에 대 규모로 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학교 당국이 들어주지 않으면 동맹휴학(同盟

休學)을하기로 결정했다. 동맹휴학은 그 당시 학생들이 학교당국을 압박하는데 자주 사용하던 방법이었다. 학생들은 학교 당국에 요구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사용했다. 학생회 임원들을 통한 학생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그 이튿날 학생들은 무능교사 축출을 외치며 동맹휴학을 위한 데모에 들어갔다. 아침 일찍이 전교(全校) 학생이 떼를 지어서 학교 정문을 나가 시내로 행진을 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도, ‘무능교사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쳐댔을 것이다.

얼마쯤 가다가 보니 주위의 분위기가 이상했다. 여기 저기 군인들이 무장(武裝)을 하고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점점 행진의 속도가 줄어들더니 결국 멈추어서고 말았다. 웬일인가 하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인근 건물의 벽에 붙은 벽보(壁報)가 보였다. 그것은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 명의로 된 혁명(革命)공약(公約)이었다.그 날이 바로 1961년 5월 16일이었고, 그날 새벽에 군사혁명(軍事革命:당시는 그렇게 불렀다)이 일어났던 것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데모를 한 것이고, 그 데모는 군인들에 의해 강제 해산(解散)되고 말았다. 일이 거기서 끝났으면 내가 뭐 할 이야기가 더 있겠는가? 그러나 이 일은 나에게 중대한 삶의 전환점(轉換點)이 된 사건이었다. 학급 부실장회의 때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

은 그 문서(文書)가, 어느 틈에 데모를 모의(謀議)한 주동(主動)자 명단, 즉 동맹휴학 주동자 연판장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에 도(道)교육감실에서 조사단(調查團)이 나왔다. 조사단은 교감(校監)선생님에게 데모 주동자를 색출해서 처벌(處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그 조사단 중에 이(李)OO 선생님이 계셨다. 그분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으로 학생들의 신망이 두터우신 분이었는데, 이 일이 터지기 얼마 전에 도교육감실로 부임해 가셨다. 나도 그 분을 존경했고, 그분도 나를 좋게 봐주시던 분이였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마주치게 된 것이다.그 선생님이 나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네가 왜 이런 일에 주동을 했어? 너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는 한마디 더 하셨다.

“네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해라 그러면 구제할 길이 있을 게다.”

믿어 주시는 건 좋은데, 난 정말 부끄러웠다. 애당초부터 나는 무능교사 축출 운동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할 아버지로부터 늘상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고 배워왔고, 나 또한 아무리 모자라는 선생님이라도 나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던 터였다. 그런 내가 무능교사 축출 데모의 주동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이 마당에, 다른 학생들은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하는 마당에, 나 혼자 빠져나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싫었다. 그건 나 혼자 살겠다고 배신자(背信者)의 길을 가자는 것 아닌가? 어차피 연판장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다.

결과(結果)는 40일 정학처분(停學處分)을 받게 되었다. 학생회장은 퇴학(退學)을 당했고, 네 명은 무기정학(無期停學), 그리고 나머지 열 명이 40일 정학 처분을 받은 것이다. 그 때 나는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담임선생님 댁에서 하숙(下宿)을 하고 있었다. 막상 정학을 당하고 나니 기분이 이상했다. 아침밥을 먹고 나서 갈 곳이 없었다. 그렇다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시골집으로 내려갈 수는 더 더욱 없었다.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책이나 읽자고 결론을 냈다. 그래서 이튿날부터 방안에 들어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다. 다 읽으면 학교 도서관에 가서 또 다른 책을 빌려다 읽었다.

40일을 그렇게 두문불출(杜門不出)하고 책을 읽었다. 그 때 혼자 지내는 훈련이 되어서 그런지, 지금도 혼자 하루 종일 집안에 있으면서 문밖에 나가지 않아도, 별로 답답함

을 느끼지 못한다. 습관이란 참 무서운 것이다. 학교 구내(區內)에 있으니 자연 화장실에서, 혹은 복도에서, 학생들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영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아무튼 그렇게 40일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올라오셨다. 그리고는 나를 데리고 교감실(校監室)로 가셨다. 할아버지가 교감선생님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놈을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고 배운 놈이 어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분명 이놈이 그런 게 아닐 테니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하셨다.

나는 정학처분 받은 사실을 집에 알리지 않았었다. 그게 뭐 자랑할 일이겠는가? 알려봐야 부모님 걱정만 끼쳐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학교 교무처에서 내가 정학처분을 받았다고 통지를 한 것이다. 교감선생님은 잘 알았다고, 잘 처리 될 것이니 안심하고 내려가시라고 말씀하셨고, 할아버지는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가셨다. 어찌 됐던 나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이게 무슨 꼴인가? 어찌다 내가 이지경이 되었는가? 평소에 나를 좋게 봐 주시던 선생님들도, 그 사건이 있는 후부터는 나

를 대하는 눈초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다. ‘세상(世上)인심(人心)이 이렇게 쉽게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 때 깨달았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 삶에 큰 변화가 생겼다. 당시에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는, 그 해에 몇 명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거리였다. 지금은 서울에 있는 대학이 죄다 서울대학이라지만, 그때는 서울대학이 서울에 하나밖에 없었고, 그 대학에 몇 명이 입학했는가가 그 학교의 평가 기준이었다.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는 몇 년째 그 대학에 입학생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졸업할 무렵에는 적어도 4명 정도는 입학생을 내게 될 것이라는 말이, 선생님들 사이에 돌고 있었고, 나도 그 중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었다. 고등학교를 진학 할 당시에는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해서, 졸업하면 바로 직업전선으로 뛰어들 생각으로 입학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잔뜩 기대를 걸고 있으니, 조금은 부담이 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긍지(肯志)가 생기고 힘이 나기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대학에 진학할 꿈을 꾸게 된 것이다. 2학년 때, 정부(政府)에서는 대학 입학 국가고시(國家考試)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각 대학들이 지원자를

모집해서 시험을 통해 신입생을 뽑던 방법이 바뀌게 된 것이다. 각 고등학교에서 3학년 1학기 성적이 전교생의 상위 10%에 속하는 학생은, 추천을 받아 지원하는 대학에 무시험으로 우선 입학を 시키고, 전국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동시에 국가고시를 쳐서, 그 성적만으로 신입생을 뽑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정학처분을 받은 후 40일이 지나서 학교엘 갔더니 기막힌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재학 중 징계처분(懲戒處分)을 받은 학생은 성적과 상관없이 추천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시골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쳐서 그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니 잔뜩 부풀어있던 진학(進學)의 소망이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다.

그렇게 내 인생은 그 때부터 내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때 그 일이 꼭 잘못된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의 나를 나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만일 그 때 나에게 그런 불미(不美)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의 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러나 모두 부질없는 생각이다. 역사(歷史)에는 가정(假定)이 있을 수 없다고 누군가 말하지 않았는가?

많이 실망 했습니다

세상인심이라는 것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다는 것을 위에 말한 그 사건을 통해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고 조변석개(朝變夕改)라는 말의 의미(意味)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영어(英語)를 가르치시던 선생님 중에 이(李)OO 라는 분이 계셨다. 시험을 치루고 나면 교무실로 나를 부르시고는 그날 학생들이 제출한 시험 답안지를 한보따리 내게 주시면서,

“너 이거 가지고 가서 채점(採點) 해와!” 하시곤 했다.

나는 시험지를 받아들고 말했다.

“선생님 저 요번에 시험 잘 못 봤는데요. 고치면 어찌시려구요?”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야, 네가 잘 못 보았으면 다른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너를 못 믿으면 누구 믿겠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지고 가서 채점이나 해 와!”

정말 듣기 좋은 말이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 준다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이다. 더구나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그런데 앞서 말한 동맹휴학 사건이 터지고 나자, 그 믿음이 물거

품이 된 것이다. 그 선생님이 나를 보시는 눈초리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전과 같이 나를 믿으려 하시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 그래서 곰곰 생각하다가 그 선생님 앞으로 편지를 썼다.

“저는 평소 선생님을 존경해 왔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언제부터인가 저를 대하시는 것이 달라지셨습니다. 제가 좋지 않은 일에 앞장서지 않으리라는 것을 선생님이 이미 잘 알고 계실 터인데,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요? 많이 실망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다. 아무튼 그 글을 쓰는데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그런 일을 겪고 나서 마음이 조금씩 비뚤어지기 시작했다. 나도 선생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갔다. 더 이상 착하고 순진한 학생으로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信賴)가 사라진 것이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고 뭐고 하는 그런 말은 점점 내 머리에서 지워져 갔다.

학교 건물은 그리 크지 않은 길게 지은 단층 건물이었다. 가운데 앞쪽으로 현관이 나있었고, 그 오른쪽 옆에 교무실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교실은 현관 왼쪽 첫 번째 방

이었다. 평소에 학생들은 그 현관을 사용해서 교실로 가지 않고, 건물 양쪽 끝에 있는 출입구를 통해 교실로 드나들도록 되어 있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나는 같은 반에 있는 안(安)OO라는 친구와 현관 앞 정원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다가 수업시간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를 들었다. 엉겁결에 우리 둘이는 현관으로 뛰어 들어갔다. 우리 교실이 바로 그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침 조회를 하러 들어가는 국어 담당 선생님 한분과 마주쳤다. 우리 둘이는 머리를 꾸벅 하고 교실로 가려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 불문곡직(不問曲直)하고 우리들의 귀뺨을 한 대씩 올려붙이셨다. 그리고는,

“너희 둘 거기 두 손 들고 꿇어앉아.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러고 있어!”

순식간(瞬息間)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리로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거기 그러고 있으라는 말씀인가? 정말 창피하기 이를 데 없는 말씀이다. 그 선생님이 가시고 난 다음 나는 그 친구에게 말했다.

“야 일어나!”

우리 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교실로 들어가서 각자 제 자리에 앉아있었다. 마침 첫 시간이 국어시간이었다. 조금 전에 우리를 꿇어앉히셨던 그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출석도 부르시지 않고 우리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다. 앞으로 나가서 교탁 앞에 나란히 섰다. 선생님은 우리를 거들떠보시지도 않고 청소용품이 들어있는 곳으로 가시더니 싸리 빗자루에서 굵직한 싸릿대 몇 개를 뽑으시는 것이었다. 그 광경을 본 나는 곧바로 우향(右向) 우(右) 해가지고 교실을 나와서 하숙집으로 가버렸다.

나중에 들으니 그 미련한 친구는 거기 그대로 서 있다가 죽도록 두들겨 맞았다는 것이다.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선생님들이 왜 학생들에게 분풀이를 하셨던 것일까? 그 이튿날 그 친구와 함께 시장에서 ‘도라지 위스키’ 한 병을 사가지고 그 선생님 댁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찾아온 학생을 내치시기야 하랴 싶었다. 조금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으셨다. 우리는 방으로 들어가 함께 눕죽이 절을 하고 앉은 다음 말씀을 드렸다.

“선생님 어제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리로 다니지 마라 주의해라’ 한마디만 하셔도 저희들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귀싸대기를 갈기시니 저희들도 정말 화가 났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가만히 눈을 감고 듣고 계시던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됐다. 내가 조금 심했다. 이해해라!”

그 날 그 선생님의 사모님이 내어 주신 차 한 잔은 정말
따뜻하고 맛있었다.

꿈이 되기는 싫다.

참 공부해야 할 고2 고3 시절에, 데모(Demo)니 정학(停學)이니 하는 사건들이 뒤엉켜서, 해야 할 공부는 제대로 하지 못했고, 어찌어찌해서 가까스로 국가고시(國家考試)에 붙기는 했는데, 그 성적(成績) 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는 틀렸고,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이 재수(再修)였다. 제대로 공부해서 다음 해에 가기로 했다. 겨울 방학이 되어 시골집으로 내려가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외사촌 형이 우리 집에 왔다. 나보다 나이가 세살인가 위었는데, 그 당시 지방에서는 수재소리 듣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전(大田)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있었다. 그 형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그 형이 말했다.

“야, 되도록 재수 같은 건 하지 마라, 할 수 있으면 한 해라도 빨리 졸업을 하는 것이 낫다. 어차피 인생은 하나의 과정이다.”

좀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으나 그 말이 그럴듯했다. 그래서 재수 할 생각을 버리고 지방대학이라도 가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 형과 나는 이야기가 좀 통하는 사이였고, 그래서 더 쉽게 그 충고를 받아드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었다. 도무지 무슨 전공(專攻)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남들은 어려서부터 원대(遠大)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데, 나는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게 안 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부모님들의 바람이 뭐 별 다른 게 있는 것도 아니었다. 요즘은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은 변호사나 의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집안에서 그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형에게 물었다.

“형, 나는 다른 건 자신 없고 국어 하나는 자신이 있는데, 그럼 국문학과(國文學科)를 지원해야 하나?”

어려서부터 할아버지께서 한문 공부를 시켜 주셨기에, 그것이 도움이 되었는지 국어에는 항상 자신이 있었고 그 과목만은 항상 만점(滿點)이었다. 형이 말했다.

“이왕 대학에 가려면 국문학과보다는 법학(法學)을 공부해라!”

나는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도 묻지 않고 형이 시키는 대로 법학과에 지원을 했다. 형을 믿었으니까.

수많은 사연과 함께 세월은 가고 드디어 대학생이 되었다. 지방에 있는 대학이다 보니 학생이 그다지 많지도 않았다. 말이 대학생이지 노는 것이 일이고 공부는 뒷전이였다. 꿈에 그리던 학교도 아니고, 내가 절실히 원하던 학과에 붙은 것도 아니고, 뭐 별 감흥(感興)도 없었다. 6개월 후 1학년 1학기말 시험을 치렀는데, 교양과목 중 철학(哲

學)에서 ‘F’가 나왔다. 내 머리의 구조가 별로 철학적이지만, 사실 나는 그 과목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철학은 철학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첫 시간에 듣고부터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 이력서에 ‘F’가 찍히다니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였다. 마침 재시(再試)의 기회가 주어져서 재시를 치기로 했다. 문제는 내가 그 과목 강의를 많이 빼먹어서 그랬던 것이다.

같은 과에 함께 공부하는 학생 중에 나이는 나보다 대여섯 살 위인 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군복무(軍服務)를 마치고 다시 온 복학생(復學生)이었고, 공부를 잘 해서 전교 수석(首席)으로 학비를 모두 면제받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부탁했다.

“형, 철학 노트 좀 빌려 주시오, 좀 보고 내일 갖다 드릴게요.”

돌아온 대답은 참 기가 막혔다.

“그러지 말고 내가 부를테니 그냥 여기서 지금 받아써라.”

나는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어찌랴. 그 학생이 거만한 자세로 팔짱을 끼고 책상에 걸터앉아 부르는 대로 열심히 받아썼다. 하숙집에 돌아와 생각을 했다. ‘네가 그렇게 잘 외워? 그럼 나도 한번 한다.’ 오기(傲氣)가 발동(發動)을 했다. 그 날 밤을 꼬박 새워서 딸딸 외웠다.

그 이튿날 시험 성적은 물어보나 마나 ‘A’였다. 내친 김에 1학년 2학기 시험을 모두 그렇게 치렀다. 2학년 1학기가 개강하자 나는 재단(財團) 장학생(獎學生)이 되어 있었다.

난생 처음, 지불했던 등록금(登錄金)을 돌려받아가지고, 양복점에 가서 양복바지도 근사한 것으로 하나 맞춰서 입고, 같은 집에 함께 하숙하고 있는 시골 후배에게 용돈도 좀 주고 그랬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건 공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건 꿈이나 하는 짓이다. 나는 꿈이 되기는 싫다.’ 는 마음이 생겼다. 그 이후로 다시는 장학금(獎學金)을 받아 본 일이 없다.



함께 하숙하던 후배들과 하숙집 주인 선생님의 딸

그건 알아서 뒀에 쓰겠는가

내가 처음으로 성경(聖經/Bible)을 만나게 된 것은 대학 2학년 때였다. 영어를 배운답시고 영어 회화(會話)반에 등록을 했는데 주 교재가 성경이었다. 그래서 한영 대조판으로 된 손바닥만 한 크기의 신약(新約)성경을 한권 샀다. 목적은 순전히 영어공부를 위해서였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주로 공부했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야 이미 내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귀가 아프게 듣고 배운 것들이고, 딱 두 가지 새로운 것이 있었다.

십자가(十字架) 사건과 부활(復活) 사건이었다.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처형(處刑)되었는데, 그가 흘린 피로 어떻게 내가 지은 죄가 용서되는 것인지, 그리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 하는 것이었다. 다섯 살에 천자문(千字文)을 떼며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한학(漢學)을 공부 했지만 그런 것은 배운 일이 없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무언가 생각을 새롭게 하게 하는 계기(繼起)가 되었다. 유학(儒學)을 존중하시는 할아버지에게서 한문(漢文) 교육을 받고 자랐기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별로 몰랐지만, 그 두 가지는 분명 다른데서 배울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그렇다고 금방 교회엘 나가야 하겠다거나 뭐 그런 생각

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뿐이었다. 그 해 음력 4월 초파일 일요일 저녁에, 친구 와 함께 가까운 곳에 있는 절간(寺刹)으로 석가(釋迦) 탄신을 축하하는 연등(燃燈) 행사 구경을 갔다. 구경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두 사람은 길가에 있는 대폿집으로 들어가서, 막걸리한 주전자를 놓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왔는데, 그 다음 날 잠을 깨자마자 아침부터 하나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절(寺) 하면 불교(佛敎)요 불교 하면 윤회(輪回) 아닌가.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단편적(斷片的)인 지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문득 내 전생(前生)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났고, 또 내 후생(後生)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났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내 실력으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때 관여하던 학보(學報/학교에서 발행하던 교내 소식지)에, ‘일요일(日曜日)은 고민(苦悶)이다’라는 제목으로 짧은 수필(隨筆)을 써서 실었다. 포인트는 전생(前生)도 알 수 없는 인간이 후생(後生)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쓸데없는 공상(空想)이나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선 주어진 삶이나 제대로 살아야 할 것 같았다.

공자(孔子)의 제자(弟子) 계로(季路)라는 사람이 귀신을

섬기는 일과 죽음에 대해서 묻자 공자는, ‘산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기겠는가?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 알겠느냐?’ 하고 대답했다는 것이다.(未能事人 焉能事鬼 未知生, 焉知死) 논어(論語) 선진(先進) 편에 나오는 글이다. 신약성경이 기록되기보다 500년도 더 이전의 일이다. 성경 요한1서 4장 20절에서는, ‘눈에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고 가르친다. 그러고 보면 공자는 철저하게 이 세상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 같고, 성경의 가르침도 어떤 면에서는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사람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확실하게 말해 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 따라 왔다가 정처 없이 흘러만 간다’ 하고 부르는 최 희준의 노래에 젖어 있던 나에게, 인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나와 성경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는 사회생활에 휩쓸려 살다보니 더 이상 그런 문제에 대해 관심을 접고 살고 있었다. 말은 일성실하게 감당하며 살기도 바쁘는데 그런 건 알아서 뒀어 쓰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아까운 손목시계

대학시절 여름방학이 되어 시골로 내려가 지내다 보면 마을에서는 가끔 콩쿨 대회 라는 것이 있었다. 노래자랑 대회였다. 시장 마당에 무대를 설치해놓고 하거나 아니면 개울가 모래밭에 무대를 설치하고 하기도 했다. 마을에서 노래 좀 한다는 청춘 남녀들이 기타 반주에 맞춰서 솜씨 자랑을 하는데 상품이 걸려 있었다.



콩쿠르 가설무대

노래는 대충 ‘신라의 달밤’ ‘죽장에 샷갓 쓰고’ 등이 단골로 무대에 올랐고, 상품으로는 1등은 손목시계, 2등은 양은 냄비, 뭐 그런 것들이 걸려 있었다. 어느 해 여름 나도 한 번 숨을 크게 쉬고 출전을 했다. 3일 동안 계속이 되는데 마지막 날 결승전을 한다. 얼마나 노래들을 잘(?) 하는지 내 솜씨가 2일째에 준결승까지 갔다. 마지막 날 한 번 더 부르면 떨어져도 2등이다. 그런데 그날은 방학이 끝나서 내

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다. 별 수 없는 일이었다. 아쉽지만 손목시계 포기하고 이튿날 아침 버스에 올라 집을 떠났다. 그렇게 해서 전국 노래자랑으로 가는 길은 자연스레 막혔다. 손목시계는 날아갔다.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살 때, 어느 주일 아침 예배시간이 되었는데, 피아노 반주 하시는 분이 무슨 문제가 생겨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다. 그래서 반주를 누가 하나 하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나이50세가 좀 넘어 보이는 남자인 분이 말했다.

“제가 반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휘자 집사님이 물었다.

“정말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분이 말했다.

“내가 ‘아코디온’ 연주자입니다. 찬송가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해보지요 뭐!” 했다.

듣기는 좀 그랬지만 누가 달리 없으니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분이 한마디 했다.

“아이구 땀났네! 찬송가 이거 우습게 볼 거 아니네!”

우습게 볼 걸 우습게보아야지!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아니었고, 마침 무슨 일이 있어서 이곳에 왔다가 어떤 아는 분을 만나 교회 예배에 참석

하게 되었던 것이다. 찬송가를 불러보지도 않은 분이 찬송가 연주를 했으니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나중에 어떤 집사님 댁에서 연말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데 장끼자랑 순서가 있었다. 그분 내외의 차례가 되었는데, 그 부인은 등에 아기를 업고 그는 ‘아코디온’을 메고 나오더니, 자기는 반주를 하고 부인은 흘러간 옛 노래를 메들리로 구성지게 부르는데, 영락없이 사골 약장사 타입이었다. 그날 거기 있던 사람들은 모두 엄청 웃었다.

검사나 판사는 하지 마라

대학 생활 2년째로 접어들었을 때, 기왕에 법대에 입학
을 했으니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판사가 되든지 검사가 되
든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다. 3학년 1학기가 되어 처음으로 사법고시 1차 시험을
치렀다. 단번에 합격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만 그게 그
렇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기에 보기 좋게 낙방을 했
다. 그리고는 방학이 되어 시골집으로 내려갔다.

어느 날인가 사랑방에서 할아버지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할아버지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다. 대학에 입학
을 한 후 고향엘 내려갔을 때, 고향 어른들이 하나같이 칭
찬을 하시면서, 우리 집안에도 이제 판사 나게 되었다고
좋아들 하셨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우리 집안에서 대
학생이 된 것은 내가 처음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 나도 괜스레 우쭐해지곤 했었는데, 할아버
지께서 그 날 나에게 하신 말씀은 한동안 나로 하여금 생
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했다.

할아버지께서 그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고시(考試) 합격하더라도 검사나 판사는 하지 마라,
혹 변호사는 하면 몰라도.”

나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 그런대요?” 하고 물었다.

할아버지는,

“검사는 늘 사람을 잡아 가두어야 하는 직업이고, 판사는 늘 사람을 벌주어야 하는 직업인데, 그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 어떤 때는 잘못 판단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는 어떻게든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니 하려면 그런 일을 해라.” 하셨다.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지식 검사 판사 못시켜서 안달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시니, 세상을 거꾸로 사시는 분으로 생각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를 생각해 봐도 내 실력으로 사법고시 합격은 어림도 없었다. 명색이 법대생이니 그래도 한번쯤은 시험은 봐야 할 것 같아서 해 본 것뿐이었다. 그런데 울고 싶은 마당에 뽀뽀때린다고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렇게 무지 단순한 사고를 하고 살았다. 그래서 그 후로 판사의 꿈을 접었다. 할아버지의 말씀은 언제나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 말씀이 100% 옳은 말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때 할아버지께서 하신 그 한 마디의 말씀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래서 그 이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힘쓰기는 하지만 그게 어찌 그리 잘 되지 않는
것인지.

내 딸 책임질 텐가?

여름방학이 되어 시골집에 내려가 있던 어느 날, 무얼 좀 사려고 잡화를 파는 상점에 들렸다. 먼저 와서 있던 손님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다. 처음 보는 예쁜 모습의 처녀였다. 그저 힐끗 한번 쳐다본 것이 고작이었는데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서 지워지지가 않았다. 누굴까?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분명 동네 사람은 아닌데. 며칠 지난 후 어느 날 다시 그 가게엘 갔다. 주인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아주머니, 지난 번에 저 여기 왔을 때 어떤 처음 보는 아가씨가 왔던데, 누구예요?”

주인아주머니는 힐끗 나를 쳐다 보더니,

“학생, 왜 그 색시 맘에 있어?” 하고 되물었다.

나는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얼굴이 후끈후끈 했지만, 시침을 떼고 대답했다.

“아니요, 못 보던 얼굴이라 궁금해서요.”

언젠가 그 동리에 있는 초등학교에 새로 부임해 온 여선생님이란다, 나이도 많이 들어 보이지 않았고, 꽤 고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핑계 삼아 그 가게엘 자주 들렸다. 그러다가 혹 만나면 그냥 무심한척 목레나 하고 그렇게 지나쳤다. 방학도 거의 끝나갈 무렵, 드디어 용기를 냈다. 다시 학교로 가면 겨울방학이나 되어서 내려오게 될 터이니 조

금은 초조하기도 했다. 편지를 썼다. 모일 모일 모시에 지서(支署:Police station) 아래쪽 큰길가에 있는 여섯 번째 푸라다나스 나무 아래서 기다릴 것이니 꼭 좀 만나 달라 고. 시간은 저녁 여덟 시로 정했다. 그 시간이면 어둠이 짙어 갈 무렵이고 사람들도 거의 다니지 않을 시간이기에.

편지를 전달하는 게 문제였다. 수소문을 해서 사는 집은 알아 냈지만 내가 직접 들고 갈 수는 없는 일이고 해서 친구를 꼬드겼다. 자전거를 타고 동리를 빙 돌아서 그 집 앞 골목에 도착해 나는 밖에서 기다리고 그 친구는 편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조금 후에 친구가 그 집에서 나왔다.

“야, 전했어?”

“응, 그런데 그 선생님은 집에 없고 그 집 주인 아주머니가 있길래 전해달라고 했어.”

그리고는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왔다.

이튿날은 모내기를 하는 날이었다. 어른들은 모두 일찍들로 나가시고 나 혼자 조금 늦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문을 열고 나가 보니 한 50여세 되어 보이는 어떤 영감님 한 분이 마당에 서 있었다. 나는 얼른 밖으로 나가서 꾸벅 인사를 하고,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 분이 잠간 할 얘기가 있어 왔다는 것이다.

나는 그분을 마루에 올라와 앉으시도록 하고 또 물었다.

“무슨 말씀인데요?”

영감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주머니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시더니,

“이거 자네가 보낸 거 맞는가?” 하시면서 나에게 보이시는 것이었다.

그건 분명 어제 친구를 통해 내가 보낸 편지였다. 겹봉의 수취인 란에는 ‘이 선생님께’라고 쓰고, 발신인 란에는 내 이름을 썼다. 이름은 모르고 성만 알기에 그렇게 썼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긴 것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예, 이 편지 제가 보낸 거 맞는데요. 누구시지요?”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당장 불호령이 떨어졌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 내 오늘 어른들을 좀 만나 뵙고 가야겠네, 어디 계신가?”

아니 갑자기 왜 어른들 얘기는 하시는지 좀 그랬지만, 어찌됐던 일은 터졌다. 나는 마음은 가다듬고 숨을 한번 크게 쉰 다음에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다.

“그 선생님이 어르신의 따님이시군요. 뭐 이런 일로 부모님들까지 걱정을 하시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호통을 치셨다.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온 동네 소문나면 자네 내 딸 책임 질 텐가? 어서 빨리 앞장서게, 자네 부친을 좀 만나야겠네.”

나는 은근히 화가 났다. 좀 너무하다 싶었다.

“어르신,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도 대학생입니다. 제 행동 하나 책임질 줄은 아는 사람입니다. 책임 질 테냐구요? 그럼 책임지지요. 제가 어르신의 따님 책임지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책임 질 테니 아무 걱정마시고 돌아가시지요.”

내가 한바탕 쏟아 부치자 그분은 잠시 멈칫하고 입을 열지 못했다. 그 틈을 타서 나는 계속 말했다.

“이제 됐습니까? 자기일 하나도 처리 못해서 어른들께 고자질이나 하는 그런 사람 저도 흥미 없습니다. 다시 만날 일 없을 테니 돌아가세요.”

그분은 조금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며 말했다.

“아니 뭐 그렇게 화나게 했다면 미안하네만 나도 딸자식 객지에 보내놓고 걱정이 돼서 한 일이니 이해하게.”

나도 순간 흥분해서 큰 소리를 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 것으로, 별 후환이 없이 일이 끝났고 그분은 댁으로 돌아 가셨다.

친구가 그 집에 들어가니 주인아주머니가 있기에 물었다

다.

“여기 이 선생님 계세요?”

그 아주머니 왈,

“지금 집에 안 계시는데 왜 그래요?”

“그럼 이 선생님 들어오시면 이 편지 좀 전해 주세요.”

그리고 나왔단다.

그 무렵 사랑하는 딸을 객지에 보내놓고 어떻게 지내나 걱정이 되어 그 여선생님의 아버지가 와 있었는데 그분도 교편을 잡고 계시는 선생님이셨다. 나중 그 어른 선생님이 돌아오자 그 아주머니는 별 생각 없이 그분께 전해달라는 것이라니 하고 그 편지를 여선생님의 아버지에게 전했던 것이다. 나중에 그 여선생님을 한번 만나가는 만났다. 미안하게 되었다고 하기에 일 없다고 말해 주었다. 그 이후로는 다시 만나본 일이 없다. 그 여선생님은 지금 내 형님의 친구 부인이 되어 그 동리에 산다.

3부 허무한 작전

선기유종(歟其有終)

여름 방학이 되면 봉사활동을 했다. 시내에 있는 각 대학의 몇몇 학생들이 청년봉사회를 조직해서, 함께 모여 응급처치법, 소창(Recreation) 인도법등을 배우고, 지역사회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모임으로, 대한적십자사 지역 본부에서 지원하는 활동이었다. 그 모임에 가입을 해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어느 시골 마을에 보리 베는 일을 도우러 갔다. 낮을 한 자루씩 배급 받아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보리를 베었다.

왼손으로는 보리를 한웅큼 잡고 오른손에 든 낫으로 보릿대의 밑 등을 짝둑 자르며, 한참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낫이 튀어 오르며 왼손 검지를 베었다. 바닥에 돌이 있는 것을 모르고 일을 하다가, 낫이 돌에 닿으면서 각도가 비뚤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다. 첫째 마디 관절부분에서 피가 흘렀다. 대체로 상저가 잘 아무는 스타 일이라,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응급처치를 했다. 팔목을 묶어 지혈(止血)을 하고, 빨간약(요드징크/그 때는 이 약을 ‘아까징끼’ 라고 불렀다)을 바르고, 거즈를 대고 반창고로 감았다. 배운 대로 대충 응급처치가 끝난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다. 웬만한 상처는 이삼일이면 낫곤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잘 낫지 않았다. 혼자서 상처를 살펴봤더

니, 다친 손가락에 감아놓았던 반창고를 풀면 손마디가 맥 없이 앞으로 굽는 것이었다. 그래서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조그맣게 잘라서 손가락 안쪽에 대고 묶어두었다. 며칠 후에 풀어보았더니 상처는 아물었는데 손가락 첫 마디가 약간 안으로 구부러져서 이상한 모양이 되었다. 상처뿐인 영광(?)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섯불리 아는 것이 병이었다. 손가락 첫마디 힘줄이 끊어진 것을 몰랐던 것이다. 손가락 첫마디가 안으로 한 5도쯤 꼬부라진 채 상처가 아물었다. 다른 손으로 밀면 펴지지만 놓으면 도로 꼬부라졌다. 이 일을 어쩔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고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적십자사에 근무하는 의사를 찾아갔다. 사정 설명을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처음에 수술을 해서 끊어진 힘줄을 꿰맸어야 했는데 이제는 틀렸다는 것이다. 상처뿐인 영광(?)이다. 뭐든지 처음부터 제대로 잘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도 손가락을 볼 때마다 그 때의 생각이 나서 혼자 씩 웃곤 한다.

결들여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 때 그 모임에서 계간(季刊)으로 회지(會誌)를 내기로 했다. 회지의 제목을 ‘청봉(靑奉)’이라고 짓고 내가 편집을 맡았다. 원고를 수집하는 중에 권두언(卷頭言)으로 적십자사 지역 총재의 글을 싣

기로 했다. 미리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하고 찾아가서 정중히 인사를 하고 원고를 부탁하고 돌아왔다. 며칠 후에 원고를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고 갔더니, 써 놓은 원고를 주셨다. 돌아와서 그 원고를 꺼내보니 글의 제목이, ‘미불유초 선기유종(靡不有初 艱其有終)’이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없는 일은 없으나 그 일을 끝까지 잘 해내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었다.

‘미불유초 선기유종(靡不有初 艱其有終)’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고사(古事)가 있다. 전국(戰國) 시대의 일이다. 서쪽의 강국 진(秦)나라가 점차 그 우위를 확보하자 진나라 무왕(武王)은 안심하고 자만하는 기색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를 걱정한 신하 한 사람이 왕에게 충고했다.

‘지금 대왕께서 위(魏)와 조(趙)를 얻으신 것에 만족하시고 제(齊)를 잃은 것을 가볍이 생각하고 계시는 듯하옵니다. 시경(詩經)에 ‘미불유초 선극유종(靡不有初 鮮克有終/처음은 누구나 잘하지만 끝을 좋게 여물이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왕께서는 모두 처음과 끝을 다 같이 존중하여 대성하셨습니다.

이에 반해 처음을 잘하고도 끝을 완성하지 않은 경우가 역사상에 많이 있습니다. 대왕께서 천하통일의 대업을 착실히 추진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신다면, 천하의 삼왕에 대왕을 더해 사왕(四王)이라 찬양할 수도 있으며, 춘추오패

에 대왕을 넣어 육패(六霸)라 해도 우습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왕께서 끝을 잘 마무리 짓지 못하신다면, 사람들은 대왕을 오(吳)왕 부차나 진(晉)의 지백(智伯)과 같이 비참한 말로를 본 자들과 동일시할 게 틀림없습니다.’ 선기유종(渺其有終)은 선극유종(鮮克有終)의 오기(誤記)였던 것 같다.

인천이 뭐야?

조그만 그로서리 마켓을 운영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 마켓을 찾는 사람들은 주로 얼굴이 검은 사람들이었다. 어느 해 추수감사절 다음날, 단골고객 한 사람이 가게에 들어왔다. 반가운 낯으로 Hi ! 하고 인사를 하고, 추수감사절 잘 보냈느냐고 인사성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나서 말을 하려는데, 좀처럼 입이 떨어지질 않았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도통 감이 잡히질 않았다. 한참 생각하던 이 친구,

“어제 터키 많이 먹었니?”하고 물으면 되겠다 싶었다.

그래서 그 손님을 보고 씨익 웃으면서,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그 친구를 가리키며 한마디 했다.

“You turkey?”

앞뒤 다 빼고 터키요리 많이 먹었느냐고 본론만 물었다. 그랬더니 그 고객이 갑자기 눈을 뚱그랗게 뜨고 화를 벌컥 내면서,

“What? fuck You!”

하고 물건도 안사고 그냥 나갔단다.

이 친구 그래도 ‘에프 유 씨 케이’ 가 욕하는 말인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아니 자기 댄에는 친절하게 한다고 말을 걸었는데, 욕을 해대고 나가니 정신이 멍 했단다. 자기가 한 말이 인사가 아니라, ‘야 이 어리버리한 놈아!’ 라고 말할 때 쓰이는 말이라는 것을 안 것은 한참 뒤였단다.

대학 1학년 말쯤인가 영어회화를 공부하는 영어회화클럽에 가입을 했다. 강사는 미국인 신부님이였다. 축음기에 L. P. 판을 걸어놓고 소리 나는 대로 따라하는 방식이였다. 축음기에서 ‘This is an Ameriphone English Lesson One.’ 하고 소리가 나면, ‘디스 이스 어메리폰 잉그리쉬 레슨 원!’ 하고 큰 소리로 따라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그런데 실력이 좀처럼 늘지 않았다. 왜 그때 내가 그 클럽에 가입을 했는지 그 이유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아마도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려고 그런 생각이 났었나보다.



영어 회화반 일동

암튼 그놈의 영어는 왜 그렇게도 안 되는지. 이민 수속을 시작해 놓고는 그 당시 청량리역 부근에 있던 S. D. A. 영어학원엘 다녔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기초 영어회화를 익히기 위해서였다.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전철을 타고 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미국사람이

었다. 당시에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한국에 와서 있는 동안 영어강사노릇을 했던 것이다. 일단 수업이 시작되면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게 했다. 그리고는 서로 영어로만 이야기를 하게 했다. 강사가 나에게 질문을 했다.

"How long does it take from here to In-Chon?"

‘하우 롱 더스잇 테이크 프롬 히어 투 인천?’ 이렇게 들렸다 그런데 그 말에 대답을 못했다. ‘인천이 뭐야?’ 인천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었다. 나름대로 영어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인천”이라는 영어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그래서 대답을 못한 채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강사가 다시 물었다.

"How far from here to the city of In-Chon?"

나는 그제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대답을 했다.

"Oh, In-Chon!...어쩌구, 저쩌구!"

참 바보가 따로 없었다. 세상에 내가 그 인천이 그 인천인 줄을 까맣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치매도 아닐 나이에. 무조건 한국말은 못한다고 하는 바람에. 이런 영어실력으로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이 신기할 지경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곳에는 한인이 엄청 많이 살고 있어서 하루 종일 영어 한마디 안하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Made in U.S.A.

대학 3학년 때에 R.O.T.C. 를 지원(志願)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청년(靑年)이므로 군복무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義務)고, 기왕(既往)에 군 복무(服務)를 할 바엔 장교(將校) 복무를 해보고 싶었다. 학교를 다니면서 2년간 군사훈련을 받으면, 대한민국 육군 소위(少尉)로 임관이 되는 것이다. 같은 도시에 있는 두 대학 학생이 함께 한 학군단(學軍團)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그 학군단의 명칭이 ‘123’ 학군단이었다. 남들은 학교 공부만 하면 되었지만,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군사학을 공부해야 했고 군사훈련(軍事訓練)을 받아야 했다. 남들이 다 휴가를 즐기는 여름 방학 동안에는, 인근 보병(步兵) 예비사단(豫備師團)에 입소(入所)해서, 한 달간 집중적인 군사훈련을 받았다.

나는 청주(淸州) 근교에 있던 보병 제 37사단에 입영(入營)을 해서 훈련을 받았다. 한참 더운 여름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찜통 더위를 견뎌야 했고 퍼붓는 장마 비를 맞으며 훈련을 받아야 했다. 아침 일찍 기상(起床)을 해서 교육출장을 나가면, 저녁 늦게야 내무반(內務班)으로 돌아왔다. 내무반(內務班)은 병사들이 기거(寄居)하는 부대(部隊) 막사(幕舍)를 말하는 것이다. 거기서 잠을 자고 실내교육을 받기도 하고 하는 곳이다. 아침에 깨끗한 군복을 입

고 야외 교육을 나간다. 보무(步武)도 당당히 군가(軍歌)를
씩씩하게 부르며, 발을 맞추어 행군(行軍)을 하고, 그러다
가 실전(實戰) 훈련 시간이 되면 진흙바닥을 굴러야 했다.
낮은 포복(엎드리거나 뒤로 누어서 기어가는 것을 말한다)
으로, 철조망을 통과하여 적진(敵陣)으로 침투하는 훈련을
하고나면 물골이 말이 아니다.

아침에 말쑥하게 차려 입었던 군복은 온통 흙투성으로
변해버리고, 땀에 젖은 얼굴은 먼지를 뒤집어써서 거지 중
에도 상거지 물골이다. 그러다가 또 소나기를 만나면 영락
없이 물에 빠진 생쥐 꼴이다. 그것도 잠깐, 다시 햇빛이 나
면 물에 젖은 옷을 입은 채로 또 다시 훈련이 계속 된다.
한 달 동안 된장국과 김치를 반찬으로 식사를 하게 되니
팔뚝에서는 된장 냄새가 난다. 하루의 고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면, 내무반 정돈, 정훈교육, 그리고 취침점호가 이어
지고 저녁 10시쯤 취침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 취침 점호
(點呼/잠자기 전에 받는 검열)시간만 되면, 여러 가지 일이
터진다. 정리 정돈을 잘 못했다고 완전 무장을 하고 모두
밖으로 나가서, 연병장(練兵場)을 몇 바퀴씩 돌아야 하는
별이 주어지기 일쑤인 것이다.

어느 날이었다. 점호를 담당한 장교가 소지품 검사를 위
해 내 옆에 서있는 친구 앞으로 왔다. 그 때는 반합(飯哈:

밥그릇)을 깨끗이 닦았는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시간이었다. 그 장교가 내 옆에 서있는 친구가 들고 있는 반합을 건네 받아서 검사를 하다가, 밥그릇 안 밑바닥에 밥풀 조각이 하나 붙어있는 것을 보았다. 점호 장교가 물었다.

“귀관(貴官), 이 반합 안쪽 바닥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옆에 서서 잔뜩 긴장한 채로 검열을 받고 있던 이 친구, 반합을 받아서 한참 들여다보더니 내무반이 떠나갈 만큼 큰 소리로,

“예, 김OO 후보생, 그 안에 있는 것은 Made in U.S.A.입니다.”

순간 내무반에서 폭소(爆笑)가 터졌다.

그 당시 한국군에 지급(支給)된 보급품(補給品)은 대부분 미제(美製)였다. 반합 안쪽 밑바닥에는 Made in U.S.A 라고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잔뜩 긴장하고 있어야 할 내무반에서 폭소가 터지니 점호장교가 그냥 넘어갈 리 없었다.

“귀관들 지금 무슨 짓들인가? 군기가 쏙 빠졌구만! 안되겠어! 모두 완전(完全) 군장(軍裝)으로 10분 내에 연병장에 선착순(先着順) 집합!” 하고는 내무반을 나가버렸다.

취침준비를 다 해놓고 검열만 마치면 잠자리에 들게 되어 있었는데, 모든 보급품을 배낭에 넣어 짊어지고, 무거운 M1 소총을 메고 밖으로 뛰어나가야 했다. 그 날도 예외

없이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진 채 연병장을 몇 바퀴 돌고,
땀이 범벅이 되어 자정이 넘어서야 잠을 잘 수 있었다. 그
후로 그 친구에게는 **Made in U.S.A.** 라는 별명이 붙었다.



R.O.T.C 후보생 시절

너는 좋겠다!

1966년 2월 어느 날, 2년간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대학 졸업과 함께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임관(任官)이 되었다. 두 달 정도 쉬고 3월 중순 쯤, 그 당시 전라남도 광주에서 송정리 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육군 보병학교(步兵學校)에 3개월간의 보충교육을 받으러 갔다.



그 석달 동안 참으로 많은 경험을 했다. 극한(極限)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 고된 훈련이 있었고, 체력훈련, 유격(遊擊)훈련, 생존훈련 등을 거쳤다. 나이도 한참 피 끓는 청춘인데다가 그런 훈련을 받고나니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다. 2주간의 유격훈련을 모두 끝내고 돌아가는 날이었다. 그동안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던 까닭으로 행군(行軍)을

하면서도 눈이 감겨서, 반은 졸면서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한주간은 체력단련이었고 한주간은 현지 산악훈련이었는데, 광주 근교에 있는 무등산(無等山) 일대가 훈련장이었다. 때가 마침 여름 장마철로 들어서고 있어서, 하루 종일 줄기차게 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격훈련 이모저모

군화 콧등은 한주간의 산악훈련에 하얗게 벗겨지고, 군복이라고 입었지만 입은 채로 장맛비에 젖어 후주구리하고, 모포와 개인천막 등을 꾸린 배낭과 M-1 소총 한 자루 뺄뻣하게 어깨에 메고, 그런 패잔병 같은 모습으로 터벅터벅 걸다가 10분간 휴식명령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배낭을 멘 채 앉아서 피곤한 몸을 뒤로 반쯤 누웠다. 소리 없이 내리는 빗줄기가 얼굴에 쏟아져 내려도 스르르 눈이 감겼다. 정확하게 십 분이 지나면 출발 명령이 떨어지고, 또 다시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걸었다. 높이가 족히 500m 는

되는 산을 하나 더 넘어야 점심식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시장기는 왜 그리 드는지. 산 속으로 나있는 길옆에는 더러더러 찢레나무가 있었고, 아직은 연하고 보드라운 새순이 좀 남아 있을 때라, 그걸 꺾어서 껍질을 까고 먹으면 정말 맛이 좋았다. 그런데 그거나마 앞에 가는 친구들이 다 먹어버리고 뒤에는 차례가 오지 않는다.

드디어 그 산을 넘어서 기슭으로 내려가니 작은 마을이 있었고, 거기 이미 점심식사를 싣고 온 트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줄을 서서 식사 배급을 받았다. 장대비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반합을 들고 밥과 국을 배급 받으니, 국은 뜨거운 국인데 국물 반 빗물 반이 된 형편이었다. 함께 먹을 수 있는 반찬이래야 풋내 나는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 그래도 그 밥과 그 국이 어찌 그리 맛이 있든지. 그렇게 무등산 일대를 밤낮으로 헤매고 다니고 나서 교육이 거의 끝이 났다. 보병학교 구내 숙소로 돌아와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토요일, 함께 훈련을 받은 동료가 와서 소식을 전한다.

“야! 너는 좋겠다!”

“아니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더니, 뭘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 26사단으로 발령 났대, 거기 모두 가고 싶어 하는 곳인데 너 땡 잡았어 임마!”

참 재주들도 좋다. 언제 그런 정보들을 주워듣고 다니는지. 난 그 부대가 어디 있는 부대인지 관심도 없었다. 애시당초 최전방(最前方) 초소(哨所) 근무를 각오하고 있었기에 그랬다. 보병학교 교육을 마치고 두주일 휴가를 보낸 다음, 그해 6월 말 경에 서울의 집합장소로 가서 군용 트럭에 몸을 싣고 임지로 향했다. 사단 사령부에서 3주간의 보충교육을 또 받아야 했다. 대한민국 육군 보병 제 26사단은 그 당시 경기도 의정부(議政府) 시 외곽에 주둔하고 있었다. 해와 달을 상징으로 하는 견장(肩章)을 달고 다녔고, 부대(部隊)의 별명은 ‘불무리’ 부대였다. 부대원들이 늘 외치는 구호는 ‘할 수 있다!’였고, 그래서 ‘Can Do!’ 부대라고도 했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남짓이면 다다를 수 있는 곳이라, V.I.P.(국내외 귀빈들)의 시찰이 잦았고, 따라서 행사가 많았다. V.I.P.가 시찰을 오면 꼭 해야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태권도 시범이었다. 그래서 태권사단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거기서 잠깐 동안이지만 태권도(跆拳道) 교관노릇을 하기도 했다. 국방색과 카키색 제복을 수시로 갈아입어야 하는 군복무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한탄강(恨歎江) 뱃놀이

사단(師團) 보충대(補充隊)에서 6주 간의 보충교육을 마치고, 각자 배속(配屬)을 받은 부대로 가야하는 날이 왔다. 의정부에서 북쪽, 차로 약 한 시간 반 거리의 동두천(東豆川) 일대에 주둔해 있던 76 연대 2 대대 6 중대 제 1 소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군용 트럭을 타고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학담 부락에 있던 대대본부를 찾아갔다. 대대장에게 신고를 하고 중대본부로 갔다. 그런데 중대 막사(幕舍)에는 있어야 할 병사들이 보이질 않았다. 중대장실로 찾아 들어갔더니 학군단 출신 선배 김OO 소위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전 대대 병력이 자대(自隊)를 떠나 이곳저곳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보직(補職)을 받은 76연대 6중대 제 1 소대는, 경기도 포천군 자작리에 있는 6군단 비행장 경비를 맡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그냥 오늘은 여기서 묵고 내일 함께 가자는 것이다. 암튼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이튿날이 되었다. 때는 8월 초순(初旬)으로 한참 더운 여름 날씨였다. 영내(領內)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나더니 자기를 따라 나서라는 것이다. 부대 앞에 있는 조그만 구멍가게에 들어서 먹을 것 몇 가지와 수박 한통을

쌌다. 중대장에게 가져가려는 것인 줄로 생각했다. 내 일상 용품이 들어있는 더플 백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수박 한 통을 들고, 택시를 잡아서 타고 부대를 떠났다.

그런데 그 선배의 행동이 좀 수상했다. 나를 데리고 중대장에게로 갈 심산이 아닌 것 같았다. 한참 가는데 아무래도 임지(任地)로 가는 것 같지가 않았다. 그래서 물었다.

“김 소위님,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긴 뭘 어디로 가? 한탄강(漢灘江)으로 가는 것이지!” 그러면서 씨익 웃는다.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한탄강이 있었고, 그곳에 뱃놀이를 하는 유원지가 있었다.

“아니, 신고는 언제 하고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봐, 일찍 가 봐야 할 일도 없어. 그러니 한탄강에 가서 좀 놀다가 저녁에 들어가면 돼!”

부임 첫날부터 뱃놀이라니! 아무튼 그렇게 부임 첫 날 여름 한나절을 한탄강 뱃놀이를 시원하게 보내고, 그 날 오후 늦게 포천에 있는 6군단 비행장을 향해 떠났다.

한탄강은 한국의 중서부 화산지대를 흐르는 강(江)이다. 강원도 평강군에서 발원하여 철원군을 거쳐 연천군 미산면과 전곡면에서 임진강과 합류한다. 총 길이는 136km에 이른다.(위키백과사전) 지금은 그곳이 국민관광지가 되어있고

한탄강 유역은 래프팅(Rafting)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한다. 1967년 여름에 거기서 뱃놀이를 하던 육군중령 한분이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다.

선을 뵈던 날

그날 오후 늦게, 선배인 김 소위는 나와 옥OO 소위를 데리고 경기도 포천으로 갔다. 옥OO 소위는 나와 같은 중대로 발령을 받아 함께 간 것이다.



왕방산에서 내려다보이는 포천 시가지

의정부에서 포천으로 가는 국도를 가운데 두고, 서쪽 왕방산 기슭에는 KMAG(미군 군사고문단)가 있었고, 동쪽에는 한국군 제 6군단 비행대(飛行隊)가 주둔하고 있었다. 요즘 지도를 찾아보니 포천읍도 시(市)로 승격이 되었고, KMAG가 주둔해 있던 곳에는 대진대학교(大眞大學校)가 자리 잡고 있다. 자작리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난 골목길을 따라 한참 올라가 중대 막사(幕舍)에 도착했다 주변은 차츰

어둠이 깔리는 저녁 시간이었다. 김 소위는 우리 두 사람을 중대장에게 소개했고 우리는 전입신고를 했다. 중대장은 그리 크지 않은 키에 조금은 몸집이 있는데다 평안도 사투리를 쓰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가자 일어나 우리의 신고를 받고는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다. 야전(夜戰)용 테이블을 사이로 하고 마주 앉았다. 몇 마디 말을 주고받은 후 중대장이 전령(傳令)을 불렀다. 군에서는 지휘관이 비서처럼 쓰는 사병(士兵)을 전령이라고 부른다. 중대본부 내무반에 있던 전령이 뛰어나와서 거수경례를 붙이며,

“중대장님 부르셨습니까?” 했다.

“응, 그래, 거 준비해 놓은 거 있지? 그거 가지고 오라우!”

중대장의 명령을 듣고 돌아나간 사병이, 조금 후에 노란색 한 되들이 주전자와 밥공기 세 개를 들고 들어왔다. 중대장은 우리 두 사람에게 공기 하나씩을 주고는,

“귀관들, 함께 일하게 된 거 환영합니다. 자 한잔씩 받으시오!”

그리고는 우리들이 들고 있는 공기에 전령이 가지고온 막걸리를 하나 가득 부었다. 중대장이 자기 잔에도 한잔 가득히 부은 다음에 잔을 들고,

“자 함께 드시다!” 했다.

나는 어릴 적 초등학교시절부터 막걸리를 마셔봤다. 그

것도 할아버지 앞에서, 작은 아버지 앞에서, 공식적으로(?) 술 마시는 법을 배웠다. 막걸리 한 공기쯤이야 술도 아니었다. 나는 단숨에 쭉옥 잔을 비우고 잔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옆에 옥 소위는 한 1/3 쯤 마시고는 잔을 내려놓는 것이다. 난 속으로, ‘앗, 내가 실수했구나! 이를 어쩐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대장이 옥 소위를 보고 말했다.

“남자가 막걸리 한 사발쯤은 단숨에 비울 줄 알아야지 그게 머이가?” 하는 것이다.

술잔이 몇 번 더 돌아갔는데, 아, 그만 옥 소위가 고개를 꾸벅꾸벅하며 졸고 말았다. 중대장이 그 광경을 힐끗 바라보더니,

“자 피곤들 할테니까 그만 가서 쉬도록 하세요!”

하고는, 전령을 불러 우리를 숙소로 잘 안내해 드리라고 했다. 우리는 일어나 중대장에게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하고 전령을 따라 숙소로 가서 쉬었다.



함께 근무하던 소대장들

이튿날은 아침부터 하늘이 온통 시커먼 구름으로 덮인 채 굵은비가 주룩 주룩 내리고 있다. 내가 맡아 지휘하게 될 1소대는 군단 비행장 경비(警備)를 맡고 있었다. 비행장 안으로 들어가 소대 막사(幕舍)에 도착하니, 선임하사관 김중사가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내무반으로 안내했다. 내무반 안에 들어서니 보초근무를 나간 사병을 제외한 십여 명의 병사들이, 침상 앞에 한 줄로 나란히 서서 부동자세(不動姿勢)를 하고 있었다. 새로 부임해 오는 소대장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궁금한 눈치였다. 선임하사가 병사들을 향해서, “소대장님께 경례!” 하고 구령을 내리니, 병사들이 목청을 높여서,

“충성!” 하고 거수경례를 했다.

나도 손을 들어,

“충성!” 하고 맞 경례를 한 다음 “쉬어!”

하고 병사들이 긴장을 풀게 했다.

그리고 짙막하게 부임 인사를 했다.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도 ‘잘 해보자!’ 그랬을 것이다. 드디어 지금부터 생사고락을 같이 할 병사들과 첫 대면을 하게 된 것이다. 부대원들의 첫 인상은 매우 순진하고 착해보였다. 저들의 눈에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쳤을까 조금은 궁금하기도 했다. 암튼 부임 첫날의 인상은 그리 산뜻한 것이 아니었다. 막사 안에서는 덜 말라 곰팡이 난 행주에

서 나는 그런 쿼퀴한 냄새가 나고, 달랑 한 개만 달려있는 전등 조명이 그리 밝지 않아 약간은 어두컴컴하고. 게다가 밖에는 억수같이 여름 장마 비가 줄기차게 내리고 있지. 한쪽에 내 자리로 마련되어있는 조그만 탁자와 의자가 있어 그리로 가서 앉았다. 병사들은 여기 저기 흩어져 각자 제 할 일 들을 하고 있었다. 군화를 닦든지, 총기를 손질하든지, 다음 보초(步哨)교대(交代)를 할 준비를 하든지 그랬다. 나는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상념(想念)에 젖어들었다. ‘자, 이제부터 시작(始作)이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내 앞에 펼쳐 질 것인가.’

소대장님, 고맙습데이!

하루 종일 그치지도 않고 비가 내리는 날은 좀 따분했다. 밖에 나가 시간을 보낼만한 곳도 마땅히 없고, 병사들과 함께 내무반(內務班)에 있으려니 내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쉬지도 못할 것 같았다. 군부대 안에 있는 병사들의 숙소를 내무반이라고 부른다. 병사들의 하루 일과는 내무반에서 시작되고 내무반에서 끝난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점호를 한다. 밤새 무슨 사고가 있지는 않았는지 병사들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점검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식당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하고 다시 내무반으로 돌아온다.

맡은 일이 비행장 경비근무임으로 각 초소(哨所)에 보초병을 배정하고 교대를 하러 나간다.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다시 내무반으로. 근무를 서지 않는 병사들은 대개 내무반 안에서 쉰다. 밤을 새워 초소를 지키고 들어온 병사들은 잠을 자기도 하고, 당일 근무가 없는 병사들은 책을 읽거나 각종 근무 수칙(守則)을 외우거나 한다. 그런 것들을 잘 외고 있는지 종종 점검을 한다. 며칠간 계속되던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개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초 근무교대 확인하고,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 각 초소를 한 바퀴 돌아보고 나니 좀 심심했다. 별로 할 일도 없고 해서 비행대대 사무실엘 들렀다.

거기는 우리 내부반과는 분위기가 좀 달랐다. 깨끗한 사무실에 가구들도 잘 배치되어 있고, 암튼 우리 내부반과는 격(格)이 달랐다. 주로 대위 소령들이 앉아서 책을 보거나 바둑을 두거나 하고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경비행기(L-19)의 조종사들이었다. 비행대 소속 병사들도 분위기가 달랐다. 깔끔한 옷차림에다 외모에서 풍기는 것이 시쳇말로 가방끈이 좀 긴 것 같았다. 그 병사들은 항공기 정비가 주어진 임무였다. 궤죄죄한 우리 부대 병사들과 말쑥한 차림의 비행대 병사들의 모습이 비교가 되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점호시간이었다. 잠자기 전에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다. 병사들 가운데 이상이 생긴 사람은 없는지, 각종 병기(兵器)는 잘 손질이 되어 있는지, 각자 외우고 있어야 할 수칙들은 잘 암기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병사들 중의 몇 사람에게 보초 근무수칙을 암기해 보라고 했다. 대개들 잘 외고 있었는데 한 병사가 어물어물하고 있다. 이OO 일등병이었다.

“넌 어째 여태 보초근무수칙도 못 외우고 있나? 무슨 이유인가?”

대답이 결작(傑作)이었다.

“소대장님, 지는 예, 글을 못 읽는기라예, 그래가꼬 자들이 외는 걸 듣고 외야 하는데, 마캥 속으로 중얼중얼 해싸

니 지가 우짖니까?”

내무반에 폭소가 터졌다. 나도 웃음이 나는 걸 억지로 참았다. 체면이 있지.



내무반 점호시간

이튿날 아침, 보초 근무교대를 모두 확인하고 내무반으로 돌아오니, 마침 그 병사가 저만치서 혼자 총기(銃器) 손질을 하고 있었다. 슬슬 옆으로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너 집이 어디냐?”

“예, 지가 사는 데는 갱북(경북) 으성군(의성군) 다인면이라 하는 텐데요, 아주 숭한 산골입니다.”

지금은 다르지만 그 때만 해도 한국의 문맹(文盲)율이 꽤 높았었다. 듣고 보니 참 문제는 문제였다. 글을 읽지도 못하는 사람을 갖다놓고 글을 외우라니. 암튼 그랬다 그

때의 형편이. 혼자 잠시 생각을 해 보았다. 이들과 함께 2년 넘게 살아야 한다. 허구한 날 외우네 못 외우네 하고 있어야 하는가? 그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틈만 나면 함께 앉아서 한글을 가르쳤다. 그래야 우선 내가 편할 것 같았다. 저도 글 읽기를 목말라 했던 탓인지 꽤 잘 따라주어서, 얼마 후에 스스로 글을 쓰고 읽을 수 있게 되자 그는 나를 만날 때마다 말했다.

“소대장님, 고맙습데이!”

그 소리를 듣는 나도 마음이 흐뭇했다.

하면 된다.

한 달포쯤 병사들과 같은 내무반에서 함께 먹고 자고 했다. 병사들의 신상(身上)도 파악해야 되고, 부대 사정도 살펴보아야 하기에 그랬다. 대충 상황 파악이 끝나고 소관 업무도 익숙해졌다. 그래서 부대 앞마을에 셋방을 하나 얻어서 영외(營外) 거주를 하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부대에 들어가 지난밤에 무슨 일이 없었는지 상황을 살피고, 하루 근무계획 세우고, 제대로 경비근무를 하고 있는지 각 초소를 돌아보고, 그렇게 한나절을 보내고 나면 별 할 일이 없었다. 혼자서 넓은 비행장을 한 바퀴 걸어 돌아보기도 하곤 했다.

어느 주말이었다. 비행장 정비소대에서 제안이 들어왔다. 우리 병사들과 배구시합을 하자는 것이다. 병사들에게 그 말을 했더니 모두들 안한다는 것이다. 워낙 실력이 딸려서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으니 은근히 뿔이 났다. 아무래도 병사들의 사기(士氣)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지레 겁을 먹고 상대가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제안을 했다.

“왜 진다고만 생각하느냐, 서로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내가 막걸리 두 말 경품으로 건다!”

만일 시합을 해서 지면 아까운 막걸리 두 말의 정비소대 몫이 되는 것이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따분한 병영생활에 소대장이 막걸리 두말 산다니 신이 났다. 모두들 시합을 해 보자는 쪽으로 뜻이 모아졌다. 시합이 시작되자 죽어라 하고 열심히 싸웠다. 그 날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늘 지기만 해서 안하려고 하던 우리 병사들이 정비소대를 이겨버린 것이다. 분명 실력은 딸리는데 이겼다. 약속대로 그 날 저녁에는 근무 보조만 제외하고 신나게 막걸리 파티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날도 하루 일과를 모두 잘 챙겨놓고 좀 심심해서 비행대대 사무실로 갔다. 조종사(Pilot)들이 앉아서 바둑을 두고 있기에 옆에 끼어 구경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함께 구경하고 있던 대위(大尉) 조종사 한 사람이, “누구 원주 갈사람 없어요?”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강원도(江原道) 원주(原州)에는 일군(一軍) 사령부가 있었다. 난 강원도가 있다는 말만 들었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에 어떤 곳일까 좀 궁금했었다. 그런데 그 강원도엘 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나는 무턱대고, “예, 저 원주 좀 갈까 하는데요!”

그는 자기를 따라오라 하더니만 활주로(滑走路)로 가서 경비행기(L-19) 문을 열고,

“자 , 타시오!” 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 보는 비행기였다. 시동을 걸고 조금 있다가 출발을 하더니 어느새 부~~~웅 하고 공중으로 떠올랐다.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좀 요란하기는 했지만 꼭 택시를 타고 있는 기분이었다. 높은 산과 넓은 들이 그림같이 내려다보이고, 유리창 옆으로는 솜털 같은 뭉게 구름이 손에 잡힐 듯 지나가고 있었다. 얼마 후에 비행기가 원주에 있는 일군 사령부 비행장에 착륙했다. 대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부대 밖으로 걸어 나갔다.

부대 밖에 나오고 보니 갈 곳이 없었다. 어디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갈 곳을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무작정 왔으니. 우선 시내로 들어가야겠기에 지나가는 차를 기다렸다. 마침 군용 트럭이 한 대 오기에 세우고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 원주 시내로 간다고 했다. 운전병에게 시내까지 좀 태워줄 것을 부탁하고 차에 올랐다. 트럭은 시내로 들어가서 적당한 곳에 나를 내려놓고 자기 갈 길로 갔다. 자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보니 시내에 좀 높게 언덕진 곳이 있었다. 시내 구경 한다고 골목을 누비고 다닐 수는 없는 일이라, 거기서 올라가서 한눈에 시내 구경을 하면 될 것 같았다. 목표를 그 언덕으로 잡고 걸었다. 한참 걸어서 그 언덕 제일 높아 보이는 곳으로 갔더니 정말로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시가지(市街地)가 그리 크지 않은 느낌이
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해는 뉘엿뉘엿 서쪽으로
지고 있었고, 배가 조금씩 고파오기 시작했다.

언덕을 내려와서 주변에 있는 한 식당에 가서 뭘 먹기는
했는데, 어느 식당에서 뭘 먹었는지 지금 그 기억은 없다.
아마도 중국음식점에 들어서 자장면을 먹었을 것이다. 식
당을 나와서 보니 몇 집 건너에 극장이 있었다. 잠 잘 시
간은 아직 한참 남았고, 영화나 한편 보면 좋겠다는 생각
이 들었다. 가까이 가서 무슨 영화를 하나 하고 간판을 봤
더니 당시 한참 이름을 날리던 영화배우 신성일과 엄앵란
이 주인공으로 열연(熱演)한, ‘맨발의 청춘’ 이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영화
를 한편 보고 나오니 저녁 10시가 훌쩍 넘어, 근처에 있는
여관에 들어가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골목길에 있는 국밥집으로 가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시외 버스 주차장으로 갔다. 처음에는 기차를 타고 갈까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주변 경치구경하기는 버스가 나을 것 같아서였다.

아침 일곱 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 사람들이 없었다. 마침 버스의 유리창을 닦고 있는 차장 아가씨가 있어서, 괜히 쓸데없는 질문도 몇 마디 던져보고 하던 중, 한 중년 아저씨 한분이 내게로 슬슬 가까이 다가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오른쪽 가슴에 붙어있는 이름표를 슬쩍 슬쩍 훑쳐보는 것이었다. 저분이 왜 저러시나 하고 생각하던 중에 내 마음에 나름대로 집히는 데가 있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말을 걸었다.

"아저씨 혹시 저와 종씨(宗氏)세요?"

종씨(宗氏)란 말은 같은 성(姓)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내 질문에 그 아저씨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아들과 이름이 같은 항렬(行列)이라서..."

그러면 이분은 나에게 아저씨뻘이다. 내 성(姓)이 단본(單本)이다 보니 어디서 만나든, 이름만 보면 대개는 금방 촌수(寸數)가 나온다. 그래서 처음 만나도 이름을 알면 금방 형님, 아저씨, 할아버지라 부른다. 고등학교 학생시절에 종친회(宗親會) 학생모임이 있어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데, 버스 안에서 교복을 입은 남녀 학생들이 서로 ‘아줌마, 할머니, 조카!’하고 불러대는걸 보고, 버스 안에 있던 다른 승객들이 의아(疑訝)한 눈초리로 쳐다보던 생각이 난다.

이 아저씨는 자기 아들이 월남(越南)에 파병되었다가 돌아온다는 연락을 받고 부산엘 갔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만날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오는 길이고, 원주에서 서쪽으로 17km 쯤 떨어진 문막읍(文幕邑)에 사신다고 했다. 포연(砲煙)이 그칠 날 없는 전쟁터로 떠났던 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오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매표구(賣票口)로 가서 서울행 버스표를 사고 보니, 주머니에 남은 돈이 별로 없었다. 서울에서 부대까지 가는 차비는 겨우 될 것 같았다. 아무래도 점심은 굶게 생겼다. 갑자기 대책도 없이 떠나왔으니 별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흙먼지를 날리며 약 한 시간쯤 지나서 버스는 문막읍에 도착했다. 함께 버스를 타고 온 그 아저씨는 거기서 내리며 나에게 잘 가라고 손짓을 했다. 나도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했다. 다시 서울을 향해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내 자리 옆 창문을 두드린다. 고개를 들고 내나보니 그 아저씨가 뭔가를 신문지 에 싸서 들고, 나더러 창문을 좀 열어보란다.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고 왜 그러시느냐

고 물었더니, 들고 있던 것을 나에게 주시면서,

"서울까지 가려면 배고플 것이니 이것으로 요기나 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두어 번 사양을 하다가 받아서 열어보니 찐빵 몇 개가 들어 있었다. 그 때 그 아저씨의 마음이 내 머리에 남아있다. 아마도 아들 생각을 하시면서 그 빵을 사셨을 것이다. 그 때 그 아저씨가 주신 것은 빵이 아니라 아들에게 주려던 사랑이었다. 나는 그 날 점심을 굶지 않았다.

삼천포(三千浦) 아가씨

포천에 있는 동안은 별 특별한 일이 없었다. 그 날이 그 날처럼 경비 보초 잘 서고 있는지 확인하고, 심심풀이로 걸어서 비행장 활주로 한 바퀴 돌고. 시간을 내서 운천리(雲川里)에 있는 산정호수라는 유원지에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 호숫가에 김일성 별장이 있었다고 전해온다. 그럭저럭 그 해가 다 가고 12월 초순(初旬)이 되어, 부대가 대대 본부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전령으로 데리고 있던 병사가 휴가를 갔는데 휴가 기한이 지났는데도 돌아 오지 않는 일이 생겼다. 마음이 조금 불안했다. 끝내 돌아 오지 않으면 탈영(脫營)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는 군법을 어긴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병사를 데리고 있던 지휘관도 근무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나야 장기복무를 할 것이 아니니 근무평가에 좀 영향이 미친다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 병사는 잡히는 경우 중벌을 받고 영창(군부대에 있는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니 그것이 걱정이었다. 그래서 중대장에게 허락을 받아 탈영보고를 좀 늦추고 일단 찾아보기로 했다. 그 병사의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은 경상남도 진주(晉州)였다. 주소를 적어 주머니에 넣고 서울을 지나 진주 행 열차를 탔다. 그날 오후에 진주에 도착해서, 가지고간 주소를

보며 물어 물어 그 집을 찾아갔다. 그래도 명색이 소대장인데 부하 병사의 집엘 가면서 빈손 들고 갈 수는 없는 일이라, 시장(市場)에 들러서 어른들에게 드릴 것을 좀 사기지고 갔다.

그런데 그 병사의 어머니 말씀이 자기 아들이 집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무리 사정을 하고 설명을 해도 그 말밖에는 나오는 대답이 없었다. 그러면 다른데 어디 갈만한 곳이 없겠느냐고 물었더니, 삼천포(三千浦)에 외가(外家)가 있다고 했다. 더 있어봐야 아무 소득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만일 아들이 돌아오면 꼭 연락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놓고 그 병사의 외가가 있는 삼천포엘 가 보기로 하고 일단 그 집을 나왔다. 어느덧 사방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이미 버스 도 끊어진 시간이라 바로 삼천포엘 가긴 틀렸고, 어디서 저녁이나 먹고 하룻밤 쉬었다가 가기로 하고 적당한 장소를 찾던 중, 진주 지방방송국 가까운 곳에 여관집이 눈에 띄어서 거기서 하루를 묵었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니,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덮이고 눈이 내리고 있었다. 진주에는 의기(義妓) 논개(論介)의 전설을 담고 있는 남강(南江)과 축석루(矗石樓), 논개바위가 있다. 이왕에 내려왔으니 우선 거길 한번 가보고 싶었다.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기에 곧바로 찾을 수 있었다.



진주 남강

임진왜란(壬辰倭亂)때, 논개가 적장(敵將)을 끌어안고 강물에 뛰어내려 함께 죽었다는 곳이다. 논개는 전라북도 장수(長水)에서 1574년 주달무의 딸로 태어났다. 1578년 부친이 사망한 후 어머니와 함께 숙부 주달무의 집에 몸을 의탁했는데, 주달무는 어린 논개를 김풍헌의 집에 민며느리로 팔아먹고 도망을 갔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논개의 어머니는 논개를 데리고 친정으로 피했다가 체포되어 장수 관아에 수감되었다. 1579년 장수 현감 최경회의 심리로 재판이 열리고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돌아갈 곳이 없는 모녀는 침방(寢房) 관비(官婢)를 자청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최경회가 전라(全羅) 우도(右道)의 의병장(義兵將)으로 부임해 의병을 모집하고 군사를 훈련할 때, 논개는 최경회의 부실(副室)이 되어 의병 훈련을 뒷바라지했다. 1593년 최경회가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로 제수되어, 2차 진주성 전투를 할 때 성안에서 전투의 뒷수발을 들었다. 진주성이 함락되고, 최경회도 목숨을 잃었다. 일본 장수들이 축석루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논개는 왜장(倭將) 게야무라로쿠스케(毛谷村六助)를 유인해 끌어안고 함께 남강에 떨어져 죽었다.(논개 자료 : 위키백과)



축석루와 논개바위

축석루 구경을 마치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삼천포 행 버스를 탔다. 그날이 장날이었는지 버스는 만원이라 꼼짝 없이 사람들 틈에 끼어 서서 가게 되었다. 장에 가는 아낙네들이 들고 이고 가는 그릇들에서는, 생선 비린내와 땀냄이 젓의 짠 냄새 같은 것들이 코를 찔렀다. 버스 뒤쪽에 있는 이와 앞쪽에 있는 이가 큰 소리로 주고받는 이야기는 귓전을 때리고. 그렇게 얼마쯤 가다보니 버스가 해안선으로 접어들었다. 구불구불 해변을 돌아가는데 바깥 경치가 참 좋았다. 하늘로부터 펄펄 춤을 추며 내리는 함박눈이, 바닷물 속으로 소리 없이 빠져 들어가곤 하는 것이 버스

창밖으로 보였다. 무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거기 있었다.

나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버스가 삼천포에 도착을 하고 내려서 시내로 들어가 그 병사의 외가를 찾았지만, 거기에도 그는 없었다. 아니 애초부터 거기 오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래도 그 병사를 찾는 일은 접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돌아가려니 너무나 마음이 허전했다. 삼천포 바닷가에 노산공원이라는 조그만 동산이 있어 그리로 걸어갔다. 산봉우리에 오르니 앉아 설만한 바위가 있었다.

그 바위 위로 올라가 무릎을 가슴에 안고 눈 내리는 바다를 보고 앉았다. 주위에 아무도 없다. 눈 내리는 추운 겨울에 누가 뭐 하러 거길 오겠는가 생각하며 이런 저런 상념에 젖어있는데, 인기척이 나서 뒤를 돌아다보니 어떤 시골 아저씨 한 분이 나를 유심히 보고 서있었다. 이 춥고 눈 내리는 날씨에 웬 군인 하나가 외로이 바닷가 바위 위에 앉아있는 것이,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던다. 아마도 그는 내가 그 바위에서 바다로 뛰어내리기라도 할까봐 몹시 걱정이 되었나 보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기차역으로 가서 서울행 차표를

샀다. 출발시간이 아직 한참 남아있기에, 차나 한 잔 마실
요량으로 인근에 있는 다방(茶房)을 찾았다. 마침 '삼천포
다방'이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건물 이층에 있었다. 계
단을 올라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리 넓지 않은 홀에 연
탄난로가 있어 그 가까이로 가서 자리에 앉았다. 난로 불
을 조금 켜고 나니 바닷가에서 얼었던 몸이 좀 녹았다. 다
방 아가씨(그 때는 '레지' 라고 불렀다)가 차 주문을 하러
왔다. 나는 커피 한잔을 주문하고 나서 그 아가씨에게 물
었다.

"노래 한곡 들려주실 수 있나요?"

"어떤 노래인데요?"

"삼천포 아가씨요!"

"찾아볼게요."

그래서 그 눈 내리는 겨울 날 삼천포 시내 삼천포 다방
에서 '삼천포 아가씨' 노래를 들었다.

돼지나 먹이고!

그 해 겨울, 파견근무를 끝내고 원대(原隊)로 돌아왔다. 눈이 내리는 겨울에는 곧 야영훈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대 병력 전체가 산 속 훈련장으로 들어가서, 실전(實戰)훈련(ATT)을 하는 것이다. 'ATT' 는 대대 단위의 전술(戰術) 훈련을 말하는 것인데 보통 일주일 정도의 일정이다. 요즘은 이 훈련이 2박3일로 시행된다고 한다. 부대가 몽땅 산 속으로 들어가서 가상적(假想敵)과 싸우는 전투훈련을 하는 것이다. 병사들은 훈련준비를 잘 하면서도 가끔씩 투덜대는 소리가 들린다. 시쳇말로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데, 그나마 조금은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내무반을 떠나, 눈 내리는 산속에서 천막을 치고 고된 훈련을 할 생각을 하니 입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병기(兵器) 손질도 하고, 천막도 점검을 하고, 훈련기간 동안 사용할 식량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할 일들이 꽤 많았다. 그렇게 병사들과 함께 훈련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 D-Day가 하루 앞으로 닥아 왔다. 'D-Day' 란 무슨 계획이 시작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다. 그 날자가 적군에게 노출이 되지 않도록 암호로 쓰는 말이다. 이튿날 아침, 출동준비를 모두 끝내고 출발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대장 전령이 나를 찾아와서 말했다.

“민 소위님, 대대장님이 찾으십니다. 지금 바로 대대장님께 가 보세요.”

“무슨 일인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일까?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걸까? 내가 뭐 잘못된 일이라도 있는 것인가? 암만 생각해 봐도 집히는 데가 없다. 군대에서 상사(上司)가 호출을 하면 십중팔구는 꾸지람을 듣는 일인데, ‘이거 아침부터 뭐가 잘못 된 것인가?’ 생각하며 대대장실로 갔다. 대대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대대장도 전투복으로 출동준비를 한 채, 담배 한 대를 입에 물고 조개탄으로 달구어진 난로 옆에 앉아있었다. 나는 거수경례를 붙이며 말했다.

“대대장님 부르셨습니까?”

“응, 왔는가? 자네에게 특수임무를 맡기려 불렀네!”

무지 무지 궁금했다. 도대체 그 특수임무가 무엇인지. 대대장은 담배를 한 모금 빨고 나서 말했다.

“자네는 이번 훈련에서 빠지게. 그리고 부대에 남아서 돼지들이나 잘 돌보고 있게!”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중요한 군사훈련을 앞두고 있는데 부대에 남아서 돼지나 키우라니!

그 당시 한국군은 참 가난했다.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보

급품이 충분하지 못했다. 주식(主食)인 쌀, 보리 등도 넉넉하지 못했고, 부식(副食:국이나 반찬)재료도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각 대대 단위로 돼지를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만일 관리를 잘 못해서 돼지가 죽기라도 하면 지휘관이 책임추궁을 당하던 그런 시절이었다. 그러니 이 엄동설한(嚴冬雪寒)에 부대가 전부 훈련을 떠나고 나면, 돼지들은 꼼짝없이 굶어야 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

보통 부대가 훈련을 떠나면 각 중대별로 한두 명은 부대에 남아 부대를 지키게 했다. 그것을 가리켜서 잔류병(殘留兵)이라고 불렀는데, 대대장은 나에게 잔류대장(殘留隊長)으로 부대에 남아 그 잔류병들을 장악해서, 대대가 훈련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부대를 잘 지키고 돼지를 잘 돌보고 있으라는 것이다. 조금은 맥이 빠지기도 했지만 암튼 나쁘지는 않았다. 그 추운 날씨에 산속을 헤매고 다니는 훈련에서 제외되어, 따뜻한 내무반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도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그해 겨울은 부임해서 첫 번째로 하는 전술훈련에는 참여하지도 못하고, 잔류병들을 데리고 한 주간 동안 돼지만 열심히 먹였다.

그해 겨울은 그렇게 지나가고

그해 겨울은 그렇게 지나가고 그곳에도 봄이 왔다. 가까운 산기슭에는 진달래꽃이 붉게 피어나기 시작하고, 시냇가 좁은 들판에서는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보병(步兵)대대 소대장으로 부임한지도 벌써 7개월째 접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소대장 근무를 그만 하고 다른 할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났다. 마침 사단(師團) 사령부에 있는 법무참모부(法務參謀部)에, 행정장교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자리는 법률에 상당한 지식이 있는 자로 보직을 해서, 법무참모를 도와 사단 군법회의와 참모부 일을 보는 자리다. 마침 사람을 구하고 있었고, 나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니 딱 제격이었다.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해보고 싶은데 길을 찾는 것이 문제였다.

군부대 안에 뒷줄이라고는 이등병 하나도 없는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엘 갈 수 있을까? 며칠을 두고 생각을 하다가 결심이 섰다. 하루 날을 잡아 중대장에게 외출 신청을 했다. 사단 사령부에 볼일이 좀 있으니 다녀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중대장은 흔쾌히 승낙을 했다. 부대 밖 신작로에 있는 버스(Bus) 정류장으로 가서 의정부(議政府)행 버스를 탔다. 사단 사령부로 들어가서 우선 경리(經

理)참모부에 있는 윤OO 소위를 찾았다. 윤 소위는 사단 보충대에 있을 때 처음으로 사관 사람이다. 보충교육을 받는 동안 서로 옆자리에서 지내게 되어 자연스레 친구가 되었던 것이다. 대충 찾아온 목적을 말하고 점심 약속을 한 후에 법무참모부 막사로 올라갔다. 가슴이 약간은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막사 문을 열고 들어갔다. 몸집이 나의 두 배 쯤 돼 보이는 상사(上士)가 인기척을 느끼고 얼굴을 들더니, 일어나 경례를 붙이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명찰을 보니 그도 성이 윤 씨였다.

“아! 예, 윤 상사님, 참모님을 좀 뵙까 해서요!”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닌데요.”

“그럼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상사는 참모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오더니,

“참모님이 마침 자리에 계시니 들어가 보십시오.” 했다.

나는 조심조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비교적 해맑은 얼굴로 조금은 차갑게 느껴지는 인상의 대위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태권!’ 하고 구호를 외치며 거수경례를 했다. 답례를 하고난 대위가 나를 의자에 앉게 한 후 나에게 물었다.

“그래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요?”

“예, 참모님, 저는 76연대 6중대 1소대장 민OO 소위입니다. 제가 참모님을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참모부에 법무행정장교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총 소대장으로 7개월을 복무했으니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있는데, 제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니 기왕이면 법무참모부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결례(缺禮)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참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혹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시면 한번 고려(考慮)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위는 내가 말을 하는 동안 나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내가 말을 다 마쳤는데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참 별놈 다 보겠네, 지가 날 언제 봤다고, 갑자기 찾아와서 인사 청탁을 하는 거야!’ 하는 눈빛이었다. 그건 내가 생각해도 그랬다. 말을 해놓고 대답이 없어 멧쩍은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데,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다.

“민 소위! 부대로 돌아가서 신상명세서(身上明細書/이력서) 한 장 써 보내시요!” 하는 것이었다.

그 말이 전부였다. 뭐 다른 말이 있나 해서 어물어물 하고 있는 나에게,

“그만 나가 보시요!” 했다.

“참모님 감사합니다!”

하며 경례를 붙이고 밖으로 나왔다.

주사위는 던졌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윤 소위와 함께 의정부 시내로 나가서 저녁을 먹고, 큰길가 건물 2층에 있는 다방에 들러 차를 마시며 TV도 보고 하다가 부대로 돌아왔다. 그 시절 TV에서는 ‘도망자’(Fugitive)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었다.

이튿날 소속부대로 돌아와 출근을 해서 중대 서무병(庶務兵)인 진OO 일병(一兵)을 불렀다.

“야! 진 일병, 너 내 신상명세서 한 장 잘 좀 써서 사단 사령부 법무참모에게 보내라!”

진 일병은 글씨를 참 잘 썼다. 난 글씨 쓰는 솜씨가 신통치 않아서 그에게 부탁했던 것이다. 암튼 진 일병은 최대한의 솜씨를 다해서 내 이력서 한 장을 써서 법무참모에게 보냈다. 그리고 또 얼마쯤 시간이 흘렀다.

사단 사령부에서 법무참모가 나를 부른다는 기별이 왔다. 나는 속으로 ‘벌써 인사발령을 냈나?’ 하고 생각하며 사단 사령부로 갔다. 법무참모부 막사로 가서 참모실로 들어가, 참모에게 인사를 하고.

“찾으셨습니까?” 했다.

참모는 책상위에 있는 흰 봉투 하나를 집더니, 그 안에 들어있는 서류를 꺼내서 나에게 주면서 물었다.

“민 소위, 이 신상명세서 민 소위가 쓴 것이요?”

나는 좀 멧쩍은 표정이 되어서, 솔직히 말했다.

“아닙니다. 중대 서무병이 쓴 것입니다.” 했다.

이상한 것은 이런 일로 왜 나를 여기까지 오라고 했을까 하는 것이었다. ‘일이 뭐 잘못 되었나?’ 하는 생각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 나에게, 참모가 말했다.

“그 신상명세서 다시 민 소위가 직접 다시 써 보내시오!”

조금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으나, 나는 금방 그 말의 뜻을 알았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그 방을 나왔다.

내 판단이 맞는다면 참모는 나의 한문(漢文) 실력을 보려 했던 것이다. 중대 서무병은 내 신상명세서를 100% 한글로 썼다. 한문이라고는 한자도 쓰지 않았다. 법무 참모부가 뭐하는 곳인가? 육법(六法)전서(全書)를 다루는 곳이다. 법률용어의 대부분이 한문이다. 한문을 모르고는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판단이 선 나는 부대로 돌아가서 내 신상명세서를 내 손으로 직접 다시 썼다. 꼭 필요한 토씨만 빼고는 모두 한자(漢字)로 채워서 전령 편에 다시 보냈다. 그거야 내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배운 것이니 어려울 것이 없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사단 법무참모부 행정

과장으로 보직 발령이 났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는
옛말이 생각나는 추억의 한 토막이다.

폐병(肺病)에 페스탈

그렇게 해서, 1967년 초부터 사단 법무참모부 근무가 시작되었다. 보통 때는 참모부 내의 일상 업무를 보고, 한 주간에 한 번씩은 예하 부대를 돌면서 병사들에게 군법 교육도 하고 그랬다. 군법회의에 회부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는 날은, 내가 국선(國選) 변호인의 일을 해야 했다. 검찰관이나 법무사(法務士/군법회의 판사)는 당연히 사법고시를 거친 법관들이지만 국선변호인은 법률지식이 있는 일반장교가 맡는 것이 관례였다. 그래서 나는 재판이 있는 날은 의례히 변호사 노릇을 해야 했다. 검사 판사는 하지 말고 변호사나 하라고 하신 할아버지의 말씀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줄은 정말 몰랐다.

재판이 있는 날은 육군 장교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변론(辯論)에 임해야 했다. 검찰관이 공소 사실을 낭독하고 나면 변호인에게 변론의 기회가 주어진다. 변론을 하려면 공소장을 미리 자세히 읽어보고, 반증(反證)도 수집하고, 피고인을 만나보고 면담도 해야 하는 것인데, 공소장 사본을 재판 전날에 주니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니 그냥 공소장 한번 읽어보고 변론이라고 해 봐야 형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면 국선변호인 수임료로 그 당시 돈으로 3천원이 나왔다. 그날은 그거 가지

고 참모부가 저녁에 회식하는 날이다.

아무튼 죄를 짓고 잡혀 와서 재판을 받는 이들을 변호해주는 입장이 되다보니, 병사들에게는 나름대로 꽤 인기가 있었다. 그러다 보면 참 어이없는 일을 만나기도 한다. 한번은 일등병 하나가 탈영(脫營) 죄로 잡혀 와서 재판을 받았다.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 출신인데 문맹(文盲)이었다. 그 당시는 한국의 문맹률이 꽤 높던 시절이었다. 휴가를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가 잡혀왔다. 내용을 보니 휴가를 갔다가 아버지가 폐병으로 고생을 하고 계셔서, 약도 좀 구해 드리고 하느라고 제 날짜에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유야 어찌됐던 탈영은 탈영이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든 벌을 감해 줄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나에게 변론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병사에게 왜 제 날짜에 돌아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아버지 약을 좀 구해다 드리느라고 그랬다는 것이다. 그러면 좀 정상을 참작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그 사실을 좀 더 확인하려고 아버지가 무슨 병을 앓고 계시는가 물었더니, 폐병을 앓고 계신다고 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무슨 약을 구해다 드렸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 병사가 하는 말이 페스탈(Festal)을 사다 드렸다는 것이다. 순간 재판정에는

웃음이 터졌다. 폐병에 페스탈 이라니. 페스탈은 위장(胃腸)약이다. 뭘 좀 도와주려 해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 법인데 이걸 영 아니었다. 그 병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변론을 끝내고 말았다.

피아노가 뭐이가?

1968년 1월 21일. 한국에서 그 해를 산 사람치고 이 날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김신조를 비롯한 31명의 북한의 무장공비(武裝共匪)들이, 휴전선을 넘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로 침투해서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靑瓦臺)를 습격하려 했던 날이다. 그때 나는 일 년 동안의 사단 군법회의 근무를 끝내고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는 연대본부로 내려와서, 동두천 위수지구(衛戍地區) 사령부 위병(衛兵)소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다.

이상한 조짐은 이미 며칠 전부터 있었다. 한 일주일 전부터 비상경계령이 떨어지고 모든 장교와 하사관들의 영내 대기(營內待期)령이 내려졌다. 모든 병사들이 명령만 떨어지면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가 이미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일이 터지기 나흘 전인 17일부터 연대본부 작전상황실에는 전통(傳統)이 날아들고 있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파평산에 2-30명쯤 되는 수상한 사람들이 몰려다닌다는 정보였다.

파평산은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외곽의 휴전선에 인접해 있는 산으로, 동쪽으로는 동두천이, 그리고 서남쪽으로는 파주시가 내려다보이는 높은 산이다. 작전상황실로 가서

근무 중인 박 소위를 보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박 소위 말로는, 아직 잘 모르는 일이지만 주말이라 대학생 등산대원들이 배낭을 메고 등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정보가 들어왔다고 했다. 그 날은 하루 종일 상황실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파평산

나도 병사들도 언제 출동명령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막사 안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다. 별 다른 진전이 없이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녁이 되어, 그 날의 일석점호를 마치고 병사들을 잠자리에 들게 한 다음에 나도 취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밤이 점점 자정으로 깊어가고 있는 시간, 나 팔수의 비상나팔이 온 영내에 울려 퍼졌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다. 병사들은 황급히 일어나 출동준비를 하고

나는 상황실로 뛰어갔다.

"박 소위! 뭐가 어떻게 된거야?"

"응, 지금 막 전통이 들어왔는데, 북한 무장괴한 일개소대가 자하문(紫霞門)을 지나 효자동(孝子洞)쪽으로 넘어오다가, 종로 경찰서 소속 경찰들과 교전을 하던 중에 종로 경찰서장 최규식 경무관이 전사(戰死)했다네, 그래서 비상출동명령이 떨어진거지!"

당시 첩보부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날 밤에 자하문을 넘어온 북한 무장 공비들은, 얼마 전에 대학생 등산대원들로 보였다는 파평산에 있던 그 수상한 무리들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들이 자하문까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올 수 있었을까?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것은 무장공비들이 자하문을 지나 들어오다가, 한국 군경의 저항을 받자 청와대 습격을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지며, 청와대 뒷산인 비봉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무튼 부대는 즉각 출동을 했다. 날씨가 몹시 추웠다. 게다가 눈이 내리고 있었다. 주변의 산과 들이 온통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다. 새벽 1시 쯤, 경기도 송추(松楸)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텐트를 치고 연대 지휘소를 설치한 후

경계 근무에 들어갔다. 시간은 이미 새벽을 향하고 있었다. 조금 있더니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내려왔다. 미군이 지원해 준 U-6 전투용 헬기였다. 군 비상식량이 수송되고 수색중대 병력이 헬기를 타고 공비들이 도망가 숨어있는 비봉으로 날아갔다. 들려오는 소식은 수색중대 하사관들이 월남전에 참여한 경력이 있어서, 대부분의 무장공비들을 색출해 사살했고 일부는 다른 곳으로 흩어져 도망을 갔다는 것이었다. 사살된 공비들의 시체는 모두 작전 지휘소가 있는 송추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옮겨졌다.

그 때 군에서는 경비병들에게 암구어가 주어졌다. 캄캄한 밤중에는 적군인지 아군인지 눈으로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수상한 자가 나타나면 ‘피아노~~~’하고 묻는다. 그러면 저쪽에서 미리 정해진 암구어로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적은 이걸 모른다. 상대방이 어물어물 하면 그건 틀림없이 적군이니 사살(射殺)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어느 병사가 경계근무를 하고 있는데 수상한 자가 나타났다. 병사는 배운 대로 했다.

"피아노~~~" 그러고 대답을 기다리는데,

"피아노가 뭐이가 이 간나아 새끼~~~!"

그 자가 가지고 있던 총이 불을 뿜었다. 그 병사는 그렇

게 어이없이 죽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암구어를 없앴다. 대신 다른 명령이 떨어졌다. 무장공비들은 한국군 군복으로 위장을 하고 있었는데 군화 대신 통일화(운동화처럼 생긴 것)를 신고 있었다. 한국군 병사들에게는 통일화를 신지 말고 군화를 신으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수상한 자가 나타났을 때 그 자가 통일화를 신었으면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이튿날 밤, 밖은 아직 어두운 밤이었지만, 들판에 쌓인 눈에 어스름한 달빛이 비추어 주어서 그런대로 가까운 주위의 상황을 식별할 수 있었다. 아직 별 상황이 없으므로 전투준비를 하고 군화를 신은 채, 토막잠이라도 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잠간 몸을 누었다.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옆 텐트에 있던 박 소위가 조그맣게 나를 불렀다.

"민 소위, 한 놈 잡으러 가자. 지금 수상한 놈 하나가 부대 앞으로 오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나는 벌떡 일어났다

"그래? 그럼 같이 가자!"

허무(虛無)한 작전(作戰)

칼빈 소총에 실탄을 장전(裝填)해서 들고 텐트 밖으로 나가니, 박 소위도 막 오른손에 총을 들고 텐트 안에서 나오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30분이었다. 들어온 첩보에 의하면 무장공비 한명이 국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서, 우리가 야영(野營)을 하고 있는 이 지역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곳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눈에 띄게 되어 있었다.

보초병(步哨兵)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잠들어 있는 조용한 밤이었다. 사방은 고요했고 야영을 하고 있는 부대 주변의 들판은 온통 흰 눈으로 덮여 있었다. 가을걸이를 끝내고 벧짚을 단으로 묶어 모아 세워둔 것이 여기 저기 있었다. 으스스한 달빛이 논바닥의 눈에 반사되어 그런대로 주위를 분간할 수는 있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총구를 앞으로 하고 조준 자세를 취하며 조금씩 앞으로 걸어갔다. 10여 미터 앞에 있는 개울 가로 가서 거기 세워져 있는 벧짚 더미 뒤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는 개울을 건너 오기로 되어있는 무장공비가 나타나기만 기다렸다. ‘어디 나타나기만 해 봐라, 너는 죽었다!’ 생각을 하면서.

둘이는 서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각자 벧짚 더미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다. 사격 준비를 한 채로 그렇게 숨을 죽이고 기다린 지 약 30분 쯤 지났을 때였다. 전방 20여 미터 앞에서 꿈틀거리는 검은 물체가 하나 눈에 띄었다. 아직은 실체를 분명히 식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기다렸다. 그 수상한 물체가 사람인지, 사람이면 군화를 신었는지 통일화를 신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숨을 죽이고 잔뜩 긴장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은 사람이 분명했다. 조금 더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 분명 군복을 입고 있었다.

밤새 추운 공기에 약간 얼어 있는 눈발을 저벅 저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신고 있는 신발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 사람이 신고 있는 것은 통일화가 아니었다. 통일화를 신은 것은 적(敵)이니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이른 새벽에 겁도 없이 군부대가 주둔해 있는 야영지 앞을, 군화를 신고 저벅 저벅 걸어오고 있는 저 인간은 도대체 누구일까?

아무래도 이상했다. 박 소위도 꿈쩍 않고 총구(銃口)를 그리로 겨냥한 채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를 향해 걸어오던 그 사람이 논둑길을 따라 오다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우리는 조금 멀리서 상대방이 눈치 채지 못하게 몸을 숨기며 조금씩 뒤를 따랐다. 여차하면 발사할 생각으로 오른

손 검지로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고. 그렇게 조금 지난 후에 그 수상한 사람이, 가던 길 앞에 설치되어 있는 큰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텐트는 부대의 식사를 준비하는 취사반(炊食班)이 머물고 있는 곳이었다. 우리는 밖에서 조금 기다렸다. 혹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텐트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없다.

박 소위와 나는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불침번을 서고 있던 보초병이 거수경례를 했다. 다른 병사들은 잠을 자고 있었고, 침상 저 끝에 병사 하나가 일어나 앉아 있었다. 박 소위가 보초병을 보고 물었다.

"어이! 보초병! 조금 전에 밖에서 이리로 들어온 사람 하나 있지? 누구야?"

그 소리를 들었는지 앉아있던 그 병사가 일어나서 우리 앞으로 오면서 말했다.

"전데요? 왜 그러시죠?"

박 소위와 나는 그만 맥이 빠지고 말았다. 조금은 화가 났다. 이놈 하나 때문에 밤잠 못자고 그 추운 밤에 들판에서 긴장을 하고 있었던 말인가? 내가 물었다.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그 친구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아침에 취사 준비하려고 불쏘시개 할 나무좀 구하러 갔다 왔는데요?"

나는 들고 있던 칼빈 소총 개머리판으로 그 병사가 쓰고 있는 철모를 한 대 쥐어박고 큰 소리로 야단을 쳤다.

"아! 이놈아! 너 죽으려고 환장을 했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러고 돌아다녀? 자칫하면 생사람 잡을 뻔 했잖아?"

그 날 박 소위와 나의 간첩 사살 훈장(勳章) 취득 작전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다.

인생무상(人生無常)

예정대로라면 군 의무복무 기간 2년이 되는 그 해 3월 말에 예편(豫編)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21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문에 복무기간이 3개월 연장되었다. 그러니 국방부에서는 할 수없이 복무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그 대신 중위로 진급을 시켜주었다. 그 해 6월 예편할 무렵이 되어 어떤 회식자리에서, 연대장 정OO 대령이 부관(副官) 김OO 대위를 보고 말했다.

“여보 김 대위, 저 민 중위 장기복무 시키시오!”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장기복무로 군에 남아있을 생각을 추호도 해 본 일이 없었다. 제대한다고 금방 무슨 직장이 결정되어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건 군에 남아있을 생각은 없었다. 부관 김 대위가 말했다.

“연대장님, 그건 제 맘대로 안 됩니다.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연대장은 나에게 물었다.

“어떤가? 장기복무 해볼 생각 없는가? 그러면 병과도 보병에서 법무병과로 바꾸어줄 수 있네!”

나는 말했다.

“연대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무관(武官)의 기질이 못됩니다. 제가 저를 잘 압니다. 죄송합니다만 전 이대로 예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해 6월 28일에 전역(轉役)을 했다. 막상 전역을 하고 시골에 있는 집으로 내려가려니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었다. 전역하기 전에 직장을 준비해 놔야 했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이다.

군부대를 떠나기 전 며칠 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같은 부대에 함께 근무하다가 함께 전역하게 된 이 OO 중위가 어느 날 나에게 제안을 했다. 직장을 구해야 하는 내가 서울에 머무를 곳이 없음을 알고 자기 처갓집으로 함께 가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면서 함께 직장을 구해보자는 것이다. 이 친구의 집은 충남 덕산(德山)에 있었는데 군 복무기간 중에 서울 부잣집 외동딸과 결혼을 했기에, 전역 후 장모님을 모시고 서울 처갓집에서 살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전역하기 일 년쯤 전의 일이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을 해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이 소위가 나를 불렀다. 저녁에 자기숙소로 좀 같이 가자는 것이었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서울에서 장모될 분이 오시는데 가서 자기를 좀 도와 달라는 것이었다. 이 중위가 사귀고 결혼을 약속한 처녀의 집안에서 그 결혼을 반대하는 바람에, 이 처녀가 집을 나와서 들어가지 않고 이 중위의 숙소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엄마가 집 나온 딸을 데리고 가려고

온다는 것이었다. 함께 가서 내가 무슨 말로 설득을 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아무튼 그날 이후로 그 문제가 잘 풀려서 그 처녀는 서울 집으로 돌아갔고 얼마 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그러니 나야 기왕에 그 친구 내외를 아는 사이니 좋지만 그 장모님에게는 미안한 일이었다.

그래서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 처는 내게 신세를 진 것이 있으니 대 환영이고 그의 장모님도 허락을 하셨다는 것이다. 그런 연고로 전역 하자마자 서울로 가서 그 집 사랑채 신세를 지게 되었다. 그렇게 한 달쯤 서울에 머물며 직장을 구해 봤지만 허사였다. 줄을 댈 데라고는 눈을 찢고 찾아봐도 없는 시골뜨기가 무슨 재주로 그리 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겠는가? 공연히 친구 집의 쌀독만 축내고 있을 뿐이지. 결국 한달 만에 나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시골집으로 내려갔다.

사람의 일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다. 그 해 가을에 다른 경로를 통해 취직이 되어 다시 서울로 올라와 살면서 그 친구와 가끔 서로 만나기도 했다. 그런데 그 이듬해 여름에, 그 친구의 부음(訃音)이 날아왔다.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일을 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장례식에 갔을 때, 소복(素

服)을 하고 울고 서서 나를 바라보던 그 친구 부인의 젖은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 날 그 친구의 장모님은 내 팔을 잡고, ‘자네 친구는 이렇게 잘 있는데 자네는 어찌 그리 매정하게 떠난단 말인가, 아이구 내 딸 불쌍해서 어찌나’하며 누워있는 사위를 보고 오열(嗚咽)을 토(吐)하셨다.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을 그 때 새삼스럽게 했다.

4부 찜뽕을 좋아하는 이유

암호(暗號) 풀이

그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고 있던 때였다. 그 시절 일간 신문 중에 동아일보는 야당성이 강해서, 동아일보를 보는 사람들은 야당 취급을 받았다. 우리 집에서는 동아일보를 보고 있었는데 여당인 공화당 지역 지부장이 아버지와 잘 아는 사이인지라 별 핍박을 받지 않았다. 농촌에서 논 밭 갈아 먹고 살고 있는데 핍박 받을 일이 뭐 있었겠는가?

군(軍)에서 제대한 후 서울에서 직장을 구해 보려다가 실패를 하고, 시골집으로 내려와서 빈둥빈둥 밥만 축내며 그해 여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어디 좀 쓸 일이 있으니 내 이력서를 한 장 써 달라고 하셨다. 정성껏 이력서를 써서 아버지께 드렸다. 그로부터 두어 달 후, 서울에서 전보가 한 장 날아왔다. 발신인은 김OO 씨고 수취인은 분명히 내 이름인데 발신인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전보를 뜯어서 내용을 보니 도무지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는 글이 적혀 있었다.

전보의 내용이 ‘마포상경’ 딱 네 글자였다.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무슨 암호 같았다. ‘마포’가 서울에 있는 것도 알겠고 ‘상경’은 서울로 올라오라는

말 같기는 한데 도무지 앞뒤 연결이 되지 않았다. 마포로 올라오라는 말이라면 내가 마포 어디로 가야하는건지, 왜 마포로 올라오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마포는 고사하고 그 넓은 서울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전보를 펴놓고 연구를 해봤다. ‘바로 상경’인데 ‘마포 상경’으로 잘못 썼나보다 하고 색각 해 봤다. 그래도 왜 바로 올라가야 하는 것인지, 바로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 건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다. 궁리 끝에 우체국으로 가서 우체국 직원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전보를 치기도 하고 받기도 하니까 그들만 아는 무슨 암호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났던 것이다. 전보를 들고 장터에 있는 우체국으로 갔다. 안으로 들어가서, 우체국 직원에게 전보를 보여주고 그 내용이 무인인가를 물어보았다.

우체국 직원은 전보의 내용을 보더니 옆에 있는 책꽂이에서 책을 한권 꺼냈다. 제목을 보니 전보 약어집(略語輯)이었다. 책을 몇 장 넘기며 찾아보더니,

“아~~~ 이거요, ‘취직을 축하합니다. 서울로 올라오세요’라는 말입니다.” 하는 것이다.

통신비를 절약하느라 전보를 칠 때 약어를 사용하고 있

있던 것이다. 무식한 시골 촌놈이 그걸 알 리가 없었다. 나는 우체국을 나와 집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 이력서 어디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왜, 무슨 연락이 왔냐? 그 이력서 선OO 씨에게 주고 좀 부탁을 했다.”

선OO 씨는 그 때 그 지역 공화당 지부장으로 있었다. 실마리가 풀렸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서울로 올라갔다. 발신인의 주소지를 찾아 그가 근무하는 회사로 갔다. 수위실(守衛室)에서 연락을 하더니 사무실로 올라오라는 전갈이 왔다. 사무실로 올라가서 내게 전보를 친 김OO 라는 분을 만났다. 그는 나를 아주 반갑게 맞아 주었다. 취직을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고, 자기의 고향이 내가 사는 곳과 같은 곳이라 반갑다며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했다.

다른 직원들도 함께 가서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나는 알려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언제부터 출근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며칠 내로 발령이 날 것이니까 숙소를 정하고 며칠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나는 그 날로 회사 가까운 곳에 하숙집을 하나 구해서 들어갔다. 이튿날 일어나니 아무 할 일이 없었다. 그래 그 회사로 찾아갔다. 수위실에서도 이미 낯 익은 사람이니 사무실로 올라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사무실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으며 한나절을 보내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함께 점심 먹으러 가고, 어떤 날은 저녁까지 같이 먹고 들어가곤 했다. 그런데 그렇게 며칠이 아니라 근 한 달이 되어 가는데도 회사에서 정식 사원으로 출근하라는 소식이 없는 것이다. 조금 초조해지기도 하고 슬그머니 화도 나고 그랬다. 허구한 날 그렇게 무위도식(無爲徒食)을 하며 회사를 불법(?)으로 출근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사람들 보기도 좀 민망했다. 그렇다고 달리 어디 마땅히 갈 곳도 없었다.

결국 이것도 글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결말을 내야 할 것 같았다. 할 일 없이 하숙비만 날리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날을 잡아서 아침 일찍 일어나 시내버스를 타고 국회 문공위원장 사무실을 찾아갔다. 한 번 만나본 일도 없고 대화를 해본 적도 없는 분이다. 다만 아는 것은 그분이 내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그 회사에 발령을 내라고 주었다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무슨 일을 그렇게 처리 하는가 따져 볼 심산이었다.

당시 세종로 네거리 근처에 있던 청화 빌딩 안으로 들어가 그의 사무실로 올라갔다. 문에 ‘국회의원 육OO 사무실’이라는 문패가 달려 있었다. 나는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고 난 다음에 오른 손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조금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나를 아래위로 한번 훑어보더니,

“누구를 찾아 오셨나요?” 하고 물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서,

“예, 저는 육OO 의원님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 했다.

그 사람은 내 말을 듣더니 약간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아 그러세요? 의원님 지금 안에 안 계십니다.”

하고는 무슨 일인지 자기에게 말해보라는 것이었다.

“아니요 이걸 선생님과 할 얘기가 아닙니다.” 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의원님 운전기사라면서, 자기가 꼭 전해 드릴 것이니 찾아온 목적을 말해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런 일로 두 번 다시 찾아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해서 아주 작심을 하고 약간 화를 내며 큰소리로 말했다.

“그럼 육의원님에게 똑바로 전해 주시오. 일을 하려거든 좀 똑바로 하시라구요. 일을 어떻게 처리했기에 생사람을 잡아 올려서 허구한 날 하숙비만 축내게 하는 거요? 사람을 불러 올렸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요? 나는 다시 여기에 오지 않을 것이니 일을 하시려거든 좀 제대로 처리 하시라고 분명히 전해 주시오!”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사무실을 나와서 그 길로 다시 시골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다.

무식하면 겁(怯)이 없다

아버지로부터 나의 이력서를 받아 든 그 지역 공화당 지 부장은 서울로 가서, 그 이력서를 가지고 국회 문공위원장 인 육OO 의원 사무실로 찾아가, 지역구에 유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집안의 아들이니 취직을 좀 시켜 달라고 부탁 을 한 것이다. 당시 그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육OO 씨는 박정희 대통령의 처남이다. 지역 선거구의 지부장이 하는 부탁이니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마침 자신이 문공위원장으로 있던 터라, 문교부와 관련이 있는 정부관 리 기업체중 한 곳에 내 이력서를 보내면서 잘 처리하라고 일렀다.

그 시절에는 자기 실력만 가지고 살기가 힘든 때였다. 뒤를 봐주는 사람 즉, 흔히 하는 말로 ‘뺨’이 있어야 취직 을 할 수 있었다. 하다못해 사돈의 팔촌 ‘뺨’이라도 있어야 그럭저럭 살아가던 시절이었다. 우리 집안에는 관계요로에 ‘뺨’을 댈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내가 어찌다가 졸지에 대통령 처남을 ‘뺨’으로 업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 서슬이 시퍼런 높은 사람을 사전에 예약도 하지 않고 불쑥 찾아가서 큰 소리로 야단을 치고 왔다. 무 식하면 겁이 없다고, 내가 해놓고도 생각해보니 참 겁 없 는 짓을 했다. 아마도 그 의원님은 그 때 자기 방에 있었

을 것이고 밖에서 내가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 나도 그걸 의식하고 만일 그 분이 안에 계시면 안에서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던 것이다. 내게 전보를 친 분도 바로 그 높은 분과 끈이 닿아있는 분이였다. 이분이 어느 날 회사 총무부 인사처에 갔다가, 인사 담당자가 내 이력서를 놓고 인사발령 기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가만히 보니 자기 고향 사람이다. 추천인이 대통령 처남이니 이걸 보나마나 발령이 날것이 분명한 것인지를,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얼른 기쁜 소식을 알려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그런 전보를 친 것이다.

일이야 아직 정식으로 발령이 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전보를 쳐서 나를 불러올려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그 불뚱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일이 그렇게 된 것은 당시 그 회사의 인사담당자 때문이었다. 그 사람은 뭔가 심사가 좀 뒤틀려 있었던 모양으로, 발령을 내라는 연락과 함께 나의 이력서를 받고서는 바로 처리를 하지 않고 그걸 자기 책상서랍에 넣어두었다. 그리고는 차일피일 그 처리를 미루었다. 내게 전보를 친 분은 그 사정을 모른 채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니 분명 금방 발령이 날 줄로 알고, 내게 알렸던 것이다.

아무튼,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그것도 막강한 권력을 가

지고 있는 대통령 처남을 찾아가서, 해변(海邊) 강아지 범(虎) 무서운 줄 모른다고 겁도 없이 큰소리로 야단을 치고 왔으니, 일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내가 큰소리로 야단을 친 것을 그 때 자기 사무실에서 들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자기 운전기사에게서 들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나, 아무튼 그 일로 인해 그 의원님은 대노(大怒)하셨고, 누가 그 청년을 불러 올렸으며 왜 여태 그 일이 처리되지 않고 있었는지 당장 조사해 보고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그 여파(餘波)로 인사담당자는 다른 곳으로 전임(轉任)이 되었고, 나에게 전보를 친 분도 그 의원님에게 불려가서 된통 야단을 맞았다고 뒤에 들었다. 그런 사정을 알 리 없는 나는 전처럼 시골에서 소를 몰고 들로 나가 소에게 꼴을 먹이기도 하고, 더러는 일터로 나가 논일 밭일을 거들기도 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해 9월 말경에 바로 그 회사에서 직접 보낸 편지가 왔다. 10월 1일부로 발령이 났으니 그 날부터 출근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먼저 번에 묵었던 하숙집에 다시 거처를 정하고, 10월 1일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름대로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 입고 회사로 갔다. 첫 출근 날인데 조금도 어색함이 없었다. 수위실에서부터 낮 익은 사람이 인사를 했고, 전에 미리

올라왔을 때 둘러서 서로 인사를 나눈 분들이 있어 직원들을 만나도 낯 설지가 않았다. 그 날 함께 입사(入社)한 직원은 나를 포함해서 다섯 사람이었는데, 모두 그 배경이 나름대로 든든한 사람들이었다. 신고식을 마치고 그날 저녁에 직장 선배들이 신입사원 환영 회식을 열어 주었는데, 그 회식자리에서 그날 함께 새로 입사한 한사람이 내게 물었다.

“전에 이 회사에 다니셨습니까?”

“아닌데요, 왜요?”

"가만 보니 이 회사 어른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듯해서요."

나는 속으로 피식 웃으면서,

“아, 그거요…뭐 좀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다.

한국에서 나의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 생활은 그렇게 요란하게 시작이 되었다.

예비군(豫備軍)

그렇게 요란하게 취직을 해서 새내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해 겨울에 회사에 직장예비군을 조직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향토예비군은 1968년 4월 1일에 창설되었다. 당시 북한은 전쟁에 대비하여 1962년에 4대 군사노선을 발표하였고, 1966년 8월에는 이른바 자주노선을 선언하여, 1970년대 ‘남조선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를 두고 전쟁도발 행위를 격화시키고 있었다. 6·25전쟁을 통한 한반도의 무력적화 통일작전이 좌절된 북한은, 한때 평화통일을 앞세운 심리전, 정치전으로 전략을 바꾸었다. 그러나 1962년부터 다시 무력침략정책으로 복귀하여 이른바 4대 군사노선을 실천하고, 약 50만 명의 현역군 외에 노농적위대 142만 명과 붉은 청년근위대 70만 명을 무장해서 전쟁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1968년 1월 21일의 청와대기습 미수사건, 울진, 삼척 지구의 양민학살과 약탈사건 등의 비인도적 야만행위를 감행하였다. 북한은 휴전선 근방에서 교란행위뿐만 아니라 무장공비를 남파하여 청와대 공격을 기도하고, 잇따라 해상에서도 미국 해군의 정보수집함 ‘푸에블로’ 호를 비롯한 한국어선 납치행위 등을 계속하는가 하면, 무려 300여건, 1천 여 명에 달하는 무장간첩을 남파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북한의 대남공작 전술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 이와 같은 긴박한 상황 하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유엔 중심의 국방정책을 자주국방태세로 전환하고, 향토예비군 2백50만 명을 조직해 무장하는 한편, 무기생산 공장의 연내 건설 등의 국방정책을 발표했다. 이것은 한국의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자료 : 구글)

그에 따라 많은 수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도 각각 회사별로 직장 예비군을 조직하게 되었던 것이다. 직원이 남자 여자 합해 모두 700여명 쯤 되는 회사였는데 회사 내에 군 장교출신이 별로 없었다. 하루는 회사 기획관리실 고OO 계장이 나를 찾았다. 가서 인사를 했더니 자기가 육군 포병 대위(大尉) 출신이며, 회사의 직장 예비군 중대장을 맡아 회사 예비군을 조직하게 되었는데, 나보고 회사 내의 예비군 해당자들을 모아서 내일부터 훈련을 좀 시키라는 것이다. 회사 안에 젊은 장교 출신이 나밖에 없었던 것이다.

명령이니 별 도리가 없는 일이다. 알았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퇴근을 했다. 집에 와서 곰곰 생각을 하니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았다. 현역(現役)으로 있어도 병사들 다루기가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제대한 지가 5년,

10년, 20년이나 지난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훈련을 시킨단 말인가? 물론 나이도 나보다 훨씬 많은 분 들이다. 직장생활로 치더라도 나는 입사한 지 겨우 두 달도 되지 않은 풋내기 사원이 아닌가. 그러니 그들이 과연 내 지시대로 따라 줄 것인가. 걱정이 생겼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통솔(統率)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스운 꼴만 당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밤새 생각을 한 끝에 한 가지 결론을 냈다. 교관(教官)이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나, 제각각 가지각색의 민간인 복장을 하고 군사훈련을 해서는 기강이 서지 않을 것 같았다. 군사훈련은 군복을 입고 해야 제대로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나는 현역을 제대하고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군복을 꺼내서 입었다. 군모(軍帽)에 육군중위 계급장도 그대로 달았다. 군화를 신고 완전 현역 장교의 모습으로 출근을 했다. 내가 비록 현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출근을 하니 꼭 현역으로 부대에 출근하는 기분이 들었다.

느닷없이 현역 장교의 모습으로 출근을 했더니 회사 현관에 들어서면 순간부터 인사받기에 바빴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라는 것이다. 왜 갑자기 군복을 입고 나타났느냐는 것이다. 그들이 내가 군 장교 출신인 것을 알았을 리

가 없으니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날 오후에 회사 건물 옥상(屋上)으로 예비군 해당자들을 불러 모아서 첫 훈련을 해야 하는데, 날은 춥고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문을 열고 예비군 해당자들이 집합해 있는 옥상으로 나가니 손이 시리고 가슴이 오그려들었다. 하지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가슴을 내밀어 어깨를 펴서 이까지 추위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좀 허세를 부렸다. 그리고 뚜벅 뚜벅 줄을 지어 모여 있는 그들 앞으로 걸어가서 첫 구령(口令)을 내렸다.

“부대(部隊) 차렷!”

구령이 옆 건물에 반사되어 메아리로 돌아왔다. 제 멋대로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흐트러진 자세로 서 있던 그들은, 갑자기 큰 소리의 구령이 떨어지자 무의식중에 지난 날 군대시절의 감각이 살아났는지, 일제히 자세를 바로잡고 부동자세를 취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조금 틈을 들인 후 나는 두 번째 명령을 했다.

“부대 열중 쉬어!”

그들은 내 구령에 잘 따라 주었다.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중에 인기척이 느껴져서 사무실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보았더니, 여직원 몇 명이 신기한 듯 얼굴을 유리창에 붙이고 훈련광경을 엿보고 있었다. 그 일로 인해 나는 졸지에 그 회사에서 꽤 인기 있는 존재가 되었다.

공범(共犯)

결혼하기 2년 전 쯤의 일이다, 나도 아직 직장이 결정되지 않았고 그녀도 일터가 없었다. 서울에서 직장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둘 다 지방 출신이니 그게 그리 쉽지가 않았다. 이리저리 직장을 알아보고 있던 중에 그녀가 말했다.

“원주에 기독교병원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겨우 왕복 차비를 준비해 함께 버스를 타고 강원도 원주로 갔다. 다행히 그곳에 그녀의 큰 오빠가 살고 있어서 하룻밤 잠자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다. 이튿날 길을 나서서 조금 떨어진 나지막한 산언덕에 있는 병원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내려쬐는 땀별은 우리를 피곤하게 했다.

가는 길에 시장 통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눈이 자꾸만 뭘 찾고 있었다. ‘아이스게끼’ 통이었다. 그런데 막상 아이스게끼 통을 발견하고는 그 앞에서 둘이 얼굴만 마주 한번 쳐다보고 말없이 그냥 가던 길을 갔다. 주머니 사정이 거기 머물 형편이 아니었던 것이다. 자칫하다가 돌아갈 차비부족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참 가난한 연인이었다. 내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무더운 여름 날 길을 가면서 사랑하는 연인에게 ‘아이스게끼’ 한 개를 사주지 못하다니.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며 우리는 묵묵히 가던 길을 계속 걸

어갔다. 그리 높지 않은 산언덕에 서있는 하얀 건물을 바라보며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길옆으로 작은 마을이 있어 군데군데 마을로 들어가는 골목길이 눈에 띄었다.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으로 조금 앞에 어떤 아주머니가 머리에 무엇을 이고 걸어가다가 옆으로 난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별 말이 없이 터벅터벅 계속 걸어갔다. 후덥지근한 날씨에 맥없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내 이마에는 땀이 나기 시작했다. 조금 전에 본 그 아주머니가 들어간 골목을 막 지나려는데 발 앞에 무엇이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무슨 종이쪽지 같기도 해서 몸을 구부려 그것을 주웠다. 돌돌 말려있는 종이를 펴보니 그 안에 소액 지폐 서너 장이 꼬깃꼬깃 싸여 있었다.

아이스게끼 두어 개는 족히 살 수 있는 돈이었다. 얼핏 생각해보니 조금 전 그 아주머니가 떨어트리고 간 것이 분명했다. 우리는 병원으로 가던 발길을 돌려 그 아주머니를 찾으려고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돈 임자를 찾아주어야 하겠기 때문이었다. 골목을 돌아 마을 안으로 들어가니 쪽 골은길이 나타나는데 그 길에는 길을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말없이 또 한 번 서로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돈 임자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찰서에 가져다주려면 시내로 다시 나가야 한다.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어찌해야 하나하고 생각을 하다가 내가 말했다.

“이거 아무래도 자기 아이스게끼 사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

교회에 다니고 있지도 않을 때인데 어째서 그런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왔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내 말을 듣고 있던 그녀가 깔깔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네요. 나 아이스게끼 사주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거 같네요!”

병원에 가서 취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시장 통으로 들어가 아이스게끼 집으로 갔다. 단팔이 듬뿍 들어간 아이스게끼 두 개를 사서 시원하게 한 개씩 나누어 먹었다.

불에 반창고 붙이고

처음 우리가 만난 곳은, 청주 시내에 있던 다방(茶房) ‘돌체’였다. 대학시절 적십자 청년봉사단 활동을 할 때, 그 멤버 중에 자기 외가(外家)가 나와 종씨(宗氏)인데다 내가 자기 아저씨뻘 된다고 하며,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후배 여학생이 어느 날 나에게 한번 만나자고 하기에, 그렇게하기로 하고, 약속된 장소인 다방 ‘돌체’로 나갔다.

그냥 가볍게 차나 한잔 나눌 요량으로 나갔더니 친구를 한사람 데리고 나와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라며 소개를 했다. 웃을 때 크지 않은 입술 사이로 덧이가 살짝 보이는 그런대로 귀여운 얼굴이었다. 그렇게 처음 만난 후 자연스레 종종 만날 기회를 만들게 되었고, 그는 나이 한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나를 자기 친구가 그러는 것처럼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조금씩 정이 들어갔다.

한 2년 그렇게 교제하다가 나는 군에 입대(入隊)를 했고, 다시 2년이 좀 지나 제대(除隊)를 한 후 취직을 해서 서울로 올라와 있었는데, 그 사람도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어 우리는 그 이듬해 결혼을 했다. 처음 만난 지 4년 만이었다. 그 때 그 조카는 작정하고 나를 소개시

켰던 것이다. 서울 시내 을지로에 있던 신혼예식장에 예약을 하고 결혼식 준비를 했다. 신부화장은 명동에 있는 어느 미장원이 맡았고, 사진 촬영은 회사 내의 동료 사원이 책임지기로 했으며, 주례는 회사 사장님에게 부탁을 드렸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웃기는 것은 하필 그 무렵 내 얼굴 왼쪽 눈 바깥쪽 아래 2 센티 쯤 되는 볼에 종기가 난 것이다. 처녀가 시집을 가려면 등창이 난다는데 이걸 신랑이 장가가는 날 얼굴에 반창고 붙이고 결혼식을 하게 된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그런 우스운 꼴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시간이 다 되어 가도 신부가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다. 처가(妻家) 쪽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형부(兄夫)가 혼주(婚主)가 된 형편인데, 이 형부라는 분이 또 한 성질 하시는 분이다. 시간은 점점 다 가오는데 신부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나도 초조하기 이를 데 없었다. 생각 끝에 경찰 전문학교 재학 중인 친구를 택시를 태워서 급히 미장원으로 보냈다. 오는 길에 혹 교통이 복잡할 것을 대비해서였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정 시간이 조금 넘어 신부가 도착했는데 그 형부님 성질이 폭발했다.

예식식장으로 들어서는데 신부에게 버럭 큰 소리를 지르며

야단을 친 것이다. 가뜩이나 긴장하고 있던 신부는 그만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주위 친구들이 달려서 가까스로 진정을 하고 예식장으로 들어오는데 그 모양이 말이 아니다. 신부를 기다리고 서있는 신랑 얼굴에는 하얀 반창고가 X표로 붙었고, 식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신부는 눈이 툭툭 붓고 입술은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렇게 해서 결혼식이 진행되었는데 주례하신 사장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는 하나도 모르겠고, 단 한마디 '신랑 아무개 군은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 사원으로...' 하는 말밖에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런 중에도 사진 맡은 친구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열심히 사진을 찍었다. 예식장 측에 전용사진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너무 비싸다며 그 친구가 자청해서 찍어주기로 한 것이다. 마침 회사 연구실 전용으로 성능 좋은 일제(日製) 카메라 한 대를 구입한 것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걸 들고 나왔다. 뒤에 또 다른 팀이 대기하고 있기에 서둘러 예식을 마쳤다.

시골집으로 내려가기 전에, 신혼여행이랍시고 유성온천엘 들러 가기로 해서 차를 타려는데, 사진 담당 친구가 와서 한마디 했다.

"야, 미안해서 어쩌니, 아무래도 사진이 잘못 된 것 같

다. 플래시가 영 터지질 않아서 그냥 찍기는 했는데 나올지 모르겠다."

그럼 이제 와서 어찌란 말인가? 그 친구 카메라 사용법도 제대로 익히지 않고 들고 나왔던 것이다. 그런 사연으로 나는 결혼기념 사진이 없다. 예식장 측에서 공식적으로 한 장 찍어준 것이 내 결혼사진의 전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진관에서 필름 원판을 수정해서, 조금 부은 자국은 있지만 반창고는 걷어낸 모습으로 인화(印畵)를 했다. 울어서 툭툭 부은 신부의 눈과 뼈죽이 나온 입술은, 별 도리 없이 그냥 놔둔 채로.

무주구천동의 감자국 맛

1972년 여름, 회사에서는 사원들을 위해서 산업시찰 계획을 세웠다. 회사 버스 2대를 동원해서 울산 공업단지, 포항 종합제철공장, 그리고 마산 수출자유지역 등을 돌아보는 일정인데, 그 사이 사이로 경주 불국사, 충무, 여수 오동도, 백양사, 그리고 전주(全州)를 거쳐, 무주구천동, 속리산 법주사를 돌아오는 3박 4일의 여행이었다. 여행 중에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아내가 짜 준 알밤 한 주머니를 가지고 버스에 올랐다. 처음으로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으로 펼쳐지는 산과 들의 싱그러운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었다.



경부고속도로

울산 공업단지에 도착해서 먼저 현대 조선소(造船所) 견학을 했다. 그 당시로서는 엄청 큰 규모였다. 그리고 울산 정유(精油)공장도 둘러보았다. 모두 처음 보는 것들이요 그렇게 큰 규모의 시설을 일찍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구경을 했다. 로스엔젤레스 인근, 롱비치(Long Beach)와 월밍턴(Wilmington)에 있는 조선소와 정유시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만큼 작은 규모였지만, 그 때 한국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은 국내 외적으로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견학을 마치고 경주(慶州) 시내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었다.



현대 조선소와 울산 정유공장

그 날 저녁을 먹을 때 송이버섯 구이가 반찬으로 나왔는데, 어찌나 향기가 좋고 맛이 있었는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코끝에서 그때 그 송이 향기가 나는 것 같다. 이튿날, 경주 불국사와 그 주변, 첨성대, 포석정, 국보 20호인 다보

탑 등을 구경하고, 마산(馬山) 수출자유지역을 지나 충무(지금은 통영시)로 갔다. 충무는 이순신 장군의 자취가 있는 곳이다. 당시 통제영(統制營/해군 지휘본부)으로 사용했다는 세병관(洗兵館)을 둘러보고, 동양 최초로 건설되었다는 해저(海底)터널을 보러 갔다. 왜 이름을 세병관(洗兵館)이라 했을까?



충무 세병관

중국의 시성(詩聖) 두보의 시 '세병마행(洗兵馬行)' 가운데, '어찌하면 장사(壯士)를 얻어서/하늘에 있는 은하수를 끌어와 갑옷과 병기(兵器)를 깨끗이 씻어서/다시는 전쟁에 쓰이지 않도록 할까?'에서 '병기를 깨끗이 씻는다'는 뜻의 한자(漢字) 말인 '세병(洗兵)'을 따서,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이루고자하는 마음을 담아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한다.

해저터널은, 1931년부터 1932년까지 1년 4개월에 걸쳐 만들어진 동양 최초의 바다 밑 터널로, 길이 483m, 너비 5m, 높이 3.5m이다. 양쪽 바다를 막고 바다 밑을 파서 콘크리트 터널을 만든 것으로, 터널 입구에 쓰여 있는 '용문달양(龍門達陽)'은 '섬과 육지를 잇는 해저도로 입구의 문'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 해저 터널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실제로 보게 되니 감회가 새로웠다. 터널 안으로 걸어 들어가다가 돌아 나와서 전라남도 여수로 향했다.



통영 해저터널 입구

거기서 하룻밤을 묵고, 동백꽃으로 유명한 오동도를 다녀서 백양사에 잠시 들렀다가,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인 '나제통문'(羅濟通門)을 지나서 무주구천동으로 갔다. 전북(全北) 무주에 있는 나제통문은 덕유산(德裕山) 국립공원

무주구천동 33경 중 제 1경으로, 신라와 백제의 국경 관문이었으며 동쪽은 신라 서쪽은 백제 땅이 맞대고 있었던 군사요충지였다. 남대천(南大川)옆 바위산(암벽)을 사람이 직접 정으로 쏘아서 뚫었다고 한다. 무주구천동이 지금은 레저타운으로 개발이 되어 덕유산 정상까지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지만, 그때는 그리로 들어가는 도로조차 제대로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심산(深山) 유곡(幽谷)이었다. 워낙 일정이 빠듯해서 그 날 저녁 밤늦게 그곳에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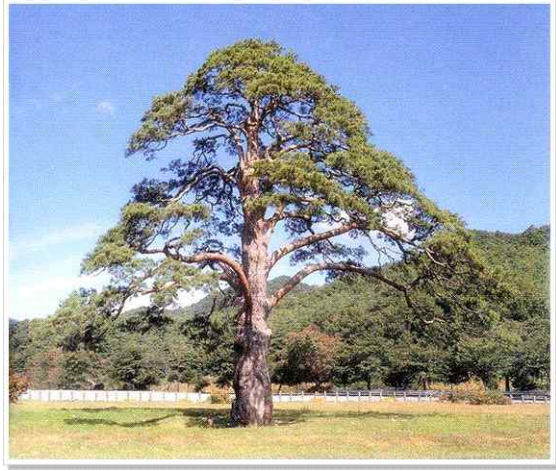


무주구천동 계곡

깊은 산속이라 들리느니 바람소리와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뿐이었다. 여관에 들어가 숙소를 정하고 저녁을 먹는데 음식이 절간 음식처럼 정갈하고 맛이 있었다. 그 날 먹은 음식 중에 기억이 나는 것은 깊은 산에 많이 자라는 싸리

버섯과 감자를 넣어 끓인 국이었다. 늦은 저녁이라 배가 고프기도 했지만 그 때 그 싸리버섯 향기와 감자국 맛은 정말 좋았다.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입안에서 싸리버섯 향내와 함께 먹었던 감자국 맛이 돈다.

이튿날 무주구천동을 빠져나와서 속리산 법주사로 향했다. 목적지까지 가기 전 약 5리(2km)쯤 되는 곳에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103호인 ‘정이품(正二品) 송(松)’이 있다. 속리산 법주사로 가는 길 한가운데 서 있는 이 소나무는 그 모양이 아주 아름다운, 수령이 약 600살 정도로 추정되는 소나무로, 높이 14.5m, 둘레 4.77m이다. 조선왕조 7대 왕인 세조(世祖) 10년(1464년)에, 왕이 법주사로 행차(行次)할 때 타고 있던 연(輦)이 그 소나무 아래를 지나게 되었는데, 가지가 아래로 처져 있어 연(輦)이 나무 가지에 걸리게 되었다. 이에 세조가 ‘연(輦) 걸린다!’하고 말하니, 소나무가 늘어져 있던 가지를 위로 들어 올려 왕이 무사히 지나가도록 하였다 한다. 왕이 타는 가마를 가리켜서 ‘연(輦)’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랬는지 내가 어릴 적에는 이 소나무를 ‘연거리소나무’라고 부르기도 했다. 세조는 이 소나무의 충정(衷情)을 기리기 위하여 정(正)이품(二品/현재의 장관급) 벼슬을 내렸고, 그 후로부터 사람들은 이 소나무를 ‘정이품송’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입사 후처음으로 동료 사원들과 함께 참 즐겁고 보람 있는 여행을 했다.



정이품송

어디 아프세요?

매년 연말이 되면, 회사에서는 소폭의 인사이동이 있곤 했다. 그런데 그해는 대폭적인 보직이동과 함께, 승진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입에서 입을 통해 떠돌아다녔다. 내가 입사한지도 벌써 5년이 지났다. 한 자리쯤 올라갈 때가 되었는데 아직 4급 사원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연말 인사이동이 가까워 올 무렵에 한 동료사원이 나를 좀 보자고 했다. 그는 나보다 나이가 열 살 쯤 위로 나보다는 세상 경험을 좀 많이 하신 분이었는데, 내게 할 말이 있다는 것이다. 그가 불쑥 말했다.

“왜 그렇게 조용히 있는거요?”

“뭘 말씀입니까?”

“아, 지금 인사이동이 있어서 모두들 줄을 대기에 바쁜데 왜 그렇게 손 놓고 가만히 있느냐 말입니다.”

그는 평소 나를 눈여겨보아 왔는데, 자기는 입사한지도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해당사항이 없지만, 이런 중요한 때 내가 조용히 자리나 지키고 있는 것이 이상해보였던 모양이었다. 정부관리 기업체이다 보니 온갖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뺨’으로 치면야 내가 제일 큰 ‘뺨’(대통령 처남)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그 ‘뺨은’ 입사할 때만 필요했었고 그 이후부터는 무용지물이었다. 처음부터

그렇게 잘 아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나도 ‘뺨’ 덕으로 계속 자리를 보전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런데 나더러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하지만 그날 그 분이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미 회사 중역들을 찾아가서 인사 청탁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대답은 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 개인적으로 연줄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 누구를 찾아가 무슨 말을 한다는 말인가?

며칠 고심(苦心)을 하다가 생각이 정리되었다. 회사로 출근을 해서 총무이사 여비서에게 전화를 했다. 총무 이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시간을 좀 봐서 알려 달라고. 잠시 후에 연락이 왔다. 지금 혼자 계시니 오라는 것이다. 그래 얼른 총무이시실로 갔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 허리를 굽히고 인사를 했더니

“아! 왔는가? 거기 앉게!”

그래서 소파에 앉았다.

총무이사도 자리에서 일어나 소파로 와서 마주 앉았다. 여비서가 녹차 두 잔을 가지고 들어와 놓고 나갔다. 고맙다고 말하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총무이사님이 먼저 말

문을 열었다.

“그래 무엇 때문에 나를 보자고 했는가?”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생전 처음으로 높은 분과 가까이 마주 앉아 있게 되니 많이 어색했다. 무슨 말부터 시작을 할까 하고 있는데 그 분이 또 내게 물었다.

“아니 자네 왜 그러는가? 얼굴색이 아주 좋지 않아 보이는데 어디 아픈가?”

당연히 그럴 것이었다. 내가 내 얼굴을 스스로 볼 수 없었으니 모르기는 했어도 아마 긴장을 해서 얼굴빛이 백지장 같았을 것이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한번 큰 숨을 쉬고 다시 말했다.

“이사님, 이번에 회사에 대폭적(大幅的)으로 승진(昇進) 인사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대고 인사 청탁을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줄을 대지 않으면 그 승진 인사에서 탈락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저도 입사한지가 5년이 되었으니 승진 대상에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거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숨을 쉬느라 말을 멈췄다.

“그래 말하고 싶은 것이 뭐가?”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일이 원칙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진을 해야 할 사람이면 가만히 있어도 승진이 되어야 하고, 승진이 안 될 사람이면 아무리 청탁을 해도 안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를 원칙대로 해 주십시오. 제가 승진이 되던 안 되던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원칙대로만 해 주신다면 저는 아무 불만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총무이사님은 꼭 그렇게 하실 분으로 믿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그 분은 내 말을 듣고 말없이 나를 한 참 보고 계셨다. 나는 더 할 말이 없어 일어서서 다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그 방을 나왔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자리에 앉으니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얼굴이 화끈 그렸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온 것인가?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직원이 내 얼굴을 힐끗 보더니만,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나는 억지로 씩웃으며,

“아니, 아무 일도 아니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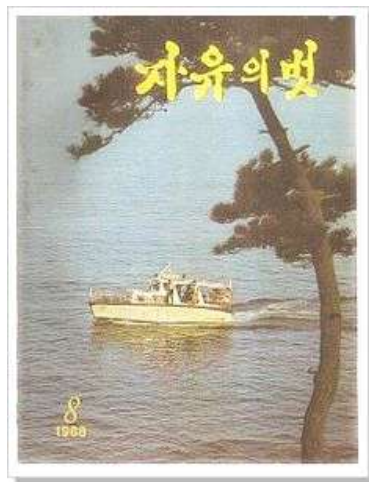
그런 일이 있고 한참 지난 후 연말이 되어 회사 인사이드 발표가 났다. 3급 주사(主事)승진 자 명단이 발표되었는데 거기에 내 이름도 올라 있었다.

산 입에 거미줄 치랴!

세월은 유수(流水)와 같다더니,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을 하던 날이 어제 같았는데 어언 7년이 지났다. 회사생활도 제법 몸에 배어 그럭저럭 지낼 만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생활에 회의(懷疑)가 일기 시작했다. 회사가 국영기업이다 보니 정치적 인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비자금 같은 것을 정리해야 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다.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었다. 언제까지 이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다른 직장을 찾아보기도 싫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이 다 그런데 다른 곳이라고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몇 달을 그런 생각을 하며 보냈다.

몇 년 전인가 아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자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그 말을 일언지하에 묵살했다. 그 때는 대개 간호사들이 취업이민을 가던 때였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났다. ‘그래, 이 상황을 떠나는 일은 그 길 뿐이다.’ 마음속으로 결단을 했다. 생각을 해보니 한사람이라도 더 떠나야 좋을 것 같았다. 그러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일자리가 더 생길 것이 아닌가. 떠날 결심을 하고 나니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가 문제였다.

1960년대 한국에서 발행된 잡지 중에 ‘자유의 벚’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 잡지는 당시 학생들의 교양 필독서(必讀書)였다. ‘자유의 벚’은, 당초 한국 국민에게 자유 우방(友邦)으로서의 미국을 널리 홍보(弘報)할 목적으로 간행한 월간잡지였다. 학교 교실이나 마을회관 벽에는 대개 ‘자유의 벚’ 몇 권이 걸려 있었다. 그 당시 한국 사회는 휴전으로 인하여 몹시 불안정한 시기였다. 6.25동란 직후 미군 극동사령부에서 발간했던 ‘자유의 벚’은, 1955년 6월호를 창간호로 하여 1972년 6월호로 종간할 때까지, 전쟁으로 인하여 수선했던 사회 분위기를 안정시키고, 남북분단으로 불안한 민심을 수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던 잡지였다.



그 때가 언제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잡지에서 읽은 내용은 지금도 기억이 난다. 미국 어느 지역에 있는 농장의 이야기였다. 과수원 사진 한 장을 중심으로 써진 글을 읽다가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확인했다. 과수원 주인이 자기 농장을 살피러 가는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돌아본다는 글이었다. 그건 내게 충격이었다. 과수원이라야 고작 사과나무 수십 그루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인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아니 농장이 도대체 얼마나 넓고 크기에 자동차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본다는 말인가? 그 때 그 글은 내 머리에 각인(刻印)이 되었다. 톼툼이 그 생각이 났다.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어디로 떠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문득 또 그 생각이 난 것이다.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미국이다. 미국으로 가는 거다.’ 도대체 얼마나 큰 나라인가 가보고 싶었다. 아내와 상의를 하고 미국 이민을 결심했다. 아내가 간호사자격증이 있으니 노동허가서를 받아 취업이민을 할 수 있었다. 나는? 아무 대책이 없었다. 그냥 부딪혀 보기로 했다. 설마 산 입에 거미줄 치랴 싶었고 일단 가면 대책이 서리라 믿었다.

암튼 그렇게 일은 시작이 되었다. 일단 청량리에 있던 S.D.A. 영어 학원 저녁 반에 등록을 했다. 영어 회화를 배

워야 하니까. 그리고 당시 서울 시청 앞에 있던 해외개발 공사를 찾아가서 이민수속을 시작했다. 별반 사전 지식이 없는 탓에 해외개발공사 직원이 알아서 신청해 주는 대로 노동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 미시건(Michigan)주에서 노동허가서가 발급되었다. 그걸 가지고 주한(駐韓) 미국 대사관으로 가서 비자(Visa)신청을 했다.

기다리는 시간은 왜 그렇게도 지루한지 서류를 접수시킨 지 6개월이 다 돼 가는데도 대사관에서 통 연락이 없었다. 한 주일만 더 기다려보고 그래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이민을 포기하기로 하고 기다렸다. 그런데 그 주말에 연락이 왔다. 인터뷰하러 오라는 것이었다. 그 시절에 한국 서울 광화문 앞 태평로에는 같은 모양으로 지어진 고층 건물 둘이 양쪽에 하나씩 있었는데, 하나는 정부종합청사로 쓰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미국 대사관이 쓰고 있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 준비를 하고 미국 대사관으로 갔다. 건물 앞에 도착하니 이미 먼저 온 사람들의 줄이 대사관 건물을 한 바퀴 돌만큼 길게 서 있었다. 줄을 서려는데 아내가 약국에 가자고 한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겠다는 것이었다. 인터뷰할 일이 부담이 되었던 모양이었다. 건물 뒤로 돌아서 뒷골목으로 들어가니

약국 간판이 눈에 띄었다. 약을 사러 들어가려고 가까이 갔더니 거기서도 이미 약을 사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모두들 인터뷰를 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참 가슴 뛰는 사람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미국 입국 비자를 받아서 그해 9월 말일로 회사 업무를 끝내고, 한 달이 지난 후 1975년 11월 1일 오후에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을 떠나 미국으로 왔다. 우연히 읽은 잡지의 글 하나가 내 인생의 좌표를 또 바꾸어 놓았다. 나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고향땅을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거나 무슨 대단한 환상을 본 일도 없이 그렇게 대책 없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왔다. 그 때는 지금처럼 직장 스폰서가 있어야 영주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단 노동허가서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오면 영주권이 주어지고 그 후에 직장을 찾아야 했다. 그러니 대책이 없이 온 것이다. 말도 제대로 안통하고 글도 시원하게 읽을 수 없는 형편에 쉽게 직장이 구해질 리도 없었다.

여기가 어디지요?

바다 건너라고는 인천에서 배를 타고 작약도(雀躍島)에 한번 갔던 것이 고작이었는데, 생전 타보지도 못한 엄청 크게 생긴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미국이 어디 붙었는지, 태평양이 얼마나 넓은 바다인지,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하고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는 같은 날 오후 4시쯤 김포 공항을 출발해서 기수를 북쪽으로 돌리더니, 얼마 안 되어 다시 동쪽을 향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 땅을 가로 질러 태평양 상공으로 들어섰다.



출국 전 회사 동료들과 함께 김포공항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깥은 어두움으로 덮였고,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제트 엔진이 내는 웅웅거리는 소리와, 간간이 스피커를 통해 들리는 안내 방송, 그리고 승

객의 안전여행을 도우려고 좁은 통로를 오고 가는 승무원들, 조금은 얼떨떨한 표정을 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승객들,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 귀에 들리는 것의 전부였다. 눈을 감아보기도 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잠도 청해 보고 했지만, 이상하게 들떠 있는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 몇 시간인가 그렇게 흘렀다. 좁은 공간이 답답하기도 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를 지나 화장실이 있는 뒤쪽으로 갔다. 여승무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무리 밖을 내다 봐도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언제나 이 지루하고 초조한 비행이 끝날 것인지 궁금했다. 조금은 피곤한 듯 승무원 전용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여승무원에게 말을 걸었다.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말씀 하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지요?”

그 여승무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깐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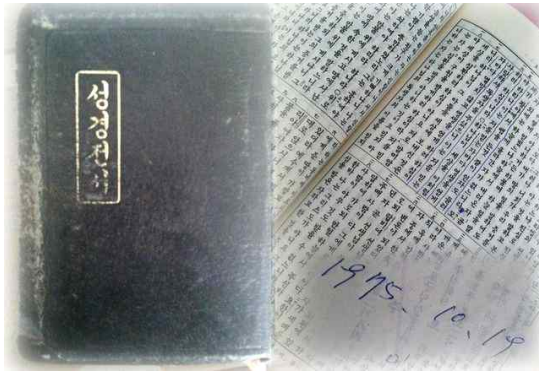
“여기는 바다 위인데요!” 했다.

기내(機內)가 그리 밝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빨개진 내 얼굴을 들킬 뻔 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집에서 김포 비행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손위 동서(同壻)가 성경책 한권을 내게 주면서 한마디 했다.

“이것을 가지고 가게! 내가 꼭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네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세!”



그 때 그 성경책

그는 서울 신촌(新村)에 있는 한 교회의 장로(長老)였다. 그리고는 어느 목사님 명함 한 장을 주면서,

“로스엔젤레스에 가거든 이 분을 찾아 만나 보시게!” 했다.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그 성경을 받아 들고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한국을 떠나왔다. 한국에 있을 때 더러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유교를 신봉하는 집안에서 유학(儒學)에 젖어 있던 내가, 그 환경을 털어버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민을 준비하면서, 이제 앞으로 내게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면 그렇게 해 보리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민 길에 올라 공항으로 가서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는, 이륙(離陸)하기 전에 참으로 황당한 기도를 했다.

‘하나님, 저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이 비행기가 제대로 가서 목적지에 잘 도착하게 될지, 잘 도착하면 6개월 먼저 이민을 간 친구가 제대로 마중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아내의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취업비자를 받아서 가기는 하지만, 영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취업은 제대로 할 수 있게 될 것인지, 도무지 보장이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나름대로 살아온 것, 다 버리고 맨 몸으로 가는데, 제게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아는 사람 한 사람 없고 친척도 한 사람 없는 곳으로 저는 가고 있습니다. 6개월 먼저 간 직장 친구 한 사람이 있지만 그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모든 걸 당신께 맡기립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시든, 무슨 일을 시키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깜깜한 산타모니카 비치

1975년 11월 1일 오후 7시. 대한항공 소속 KE-02편 비행기가, 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다. 옆으로 나 있는 조그만 창을 통해 밖을 보니 멀리 사방은 어둠으로 쌓여 있는데, 처음으로 내 눈에 들어온 로스엔젤레스의 모습은 참으로 대단했다. 공항 주변으로 넓게 퍼져 있는 도시의 건물마다에서 불빛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엄청나게 크고 넓은 도시를 본 일이 없었다. 언젠가 삼국지를 읽다가 ‘낙양(洛陽)은 불바다’라는 대목이 있었던 생각이 났다. 불바다가 따로 없지 싶었다. 여기기 바로 불바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그 때 생각을 하면 나를 감회에 젖게 했던 그 야경(夜景)이 떠오른다. 서울이 그리 큰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 때 알았다. 지금은 서울도 엄청 큰 도시로 발전했지만.

그 때만 해도, 한국에서 미국을 오는 직항 항공편이 없었다.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두 시간을 보내고, 일곱 시간쯤 지난 후에 하와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기내에서는 전통적인 하와이 음악이 흐르고, 여승무원들이 열대과일 주스(Tropical Fruit Juice)를 한 잔씩 주는데, 생전 처음 맛보는 그 주스의 맛과 향이 참 좋았다. 색깔도 어찌 그리

굽던지. 세관 통관 수속을 마치고 다시 미국 본토를 향해 이륙하기까지 약 두 시간이 더 걸렸다. 또 태평양 상공을 날기 시작해 세 시간쯤 지나서 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서울을 떠난 후 열다섯 시간쯤 걸려서 드디어 미국에 도착한 것이다.

한국에서 이민 수속을 할 때, 미국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사람도 없었다. 막상 이민을 떠나려고 마음을 먹고 이민 수속을 하려 하니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지금의 서울 시청 앞에 해외개발공사가 있었다. 무작정 거기로 가서 담당 직원에게 상담을 청했다. 직원이 물었다.

“어디로 가시려고요?”

“미국으로 갔으면 합니다.”

“미국의 어느 주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아는 곳이 아무데도 없으니 어디가 좋을 지 아무데나 좀 찾아주세요.”

아내가 간호사 면허가 있으니 그것으로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으면 아무데나 좋겠다고 말했다. 담당 직원은 한참 생각을 하더니,

“많은 사람들이 대개 캘리포니아주로 가기를 원하는데 거기는 노동허가가 쉽게 안 나오구요, 동부 쪽으로 가서 미시건(Michigan) 주 같은 데는 비교적 노동허가가 잘 나오는데요.” 했다.

“어차피 모르는 곳인데 아무데나 쉬운 데로 해 주세요.”
그래서 미시건 주에다가 노동허가를 신청했다.

미시건 주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받아서 미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한 친구가 이미 미국행 비자를 받아놓고 떠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걸 알았다. 이야기 하는 중에 자기가 6개월 먼저 엘에이(L. A.)로 가 있을 것이니 그리로 오라고 했다. 자기도 미국에 고종사촌(姑從四寸)이 있을 뿐 아는 사람이 없으니, 이웃에서 서로 의지하고 같이 살자는 것이었다. 하와이에서 입국 수속을 할 때, 주소지를 로스엔젤레스로 변경하고, 로스엔젤레스 공항에 도착해 짐을 찾아가지고 나오니, 그 친구 내외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자기도 미국에 온지가 6개월 밖에 안 되었는지라, 미국에 와서 알게 된 다른 한분의 인도를 받아서 마중을 나왔다고 했다. 미국에 처음 도착해서 동포 한 가정을 만나게 되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공항을 빠져나와서 로스엔젤레스 시내로 가기 위해, 그분이 앞에서 인도를 하고 우리는 친구 내외와 함께 뒤를 따랐다. 405번 프리웨이를 타고 북쪽으로 가다가 10번 동쪽구간으로 들어섰는데, 앞서 인도하던 차는 속력을 내고 시야에서 멀리 사라졌다. 거기서부터는 복잡하지 않은 길이라 인도할 필요 없으니

그냥 먼저 가시라고 했던 것이다.

우리는 친구가 운전을 하는 차를 타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그리 빠르지 않게 달려가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쯤 가다가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분명 시내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주위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아무래도 이상했다.

“이거 뭐 잘못 된 거 아니요? 어디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했더니.

“가만히 있어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조금만 더 가보자구”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던 방향으로 가다가 아무래도 이상하다며 길옆으로 차를 세웠다. 자동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주위를 살펴보니,

“이거 길을 잘못 들었네, 여기는 ‘산타모니카(Santa Monica) 비치’ 인데.” 하는 것이었다.

405번 프리웨이에서 10번 동쪽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차 하는 순간에 그만 서쪽구간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그야 말로 미국에 오자마자 삼천포로 빠지고 만 것이다. 그래서 나의 미국 생활 첫 출발은 캄캄한 산타모니카 비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토기장이 이야기

미국에 도착 한 후 아파트 구하고 자동차 준비하고 직장 찾고 그러다 보니 그 해가 다 갔다. 이국땅에서 처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무언가 각오를 다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중에, 한국을 떠나올 때 가지고 온 명함 한 장이 생각났다. 그것은 한국 경기도 인천의 어느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의 명함인데, 그 분은 그 때 이곳에 있는 풀러(Fuller)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함을 보여 주며 이런 분을 혹시 아느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없었고, 그분이 지금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그런 가운데 새해 첫 일요일아침이 밝았다. 1976년 1월 4일 이었다. 그때 이곳 교포사회에는 한국일보가 발행되고 있었다. 지면(紙面) 크기도 지금보다 훨씬 작고 전부 4면쯤 되는 그런 것이었다. 새해 첫 일요일 아침에 그 신문을 넘기는데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다. 로스엔젤레스 지역 교회 예배안내가 박스기사로 조그맣게 나 있었다. 교회 이름과 담임목사 이름, 예배시간, 그리고 연락전화번호가 전부인데,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명함에 있는 목사님 이름이 있었다. 그 때 알아본 바로는 그 당시 로스엔젤레스 지역에 약 40여 곳의 교회 예배처소가 있었다. 전화를 걸어서 위치를 알아가지고 서둘러 준비를 했다. 이미 내게는 모든 환경이 바뀌어 버렸으니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가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아내는 소녀 시절에 교회에 다니던 신자였으니까 당근 환영이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차를 몰고 교회로 갔다.

자동차로 한 20분쯤 운전해서 다운타운을 지나 남쪽으로 내려가니 거기 교회가 있었다. 안식일(安息日)교회의 소유인 예배당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었다. 그들은 일요일에 예배가 없으니 일요일 하루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었다. 교회 울타리 밖 길가에 주차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계단을 올라가니 조그만 책상 앞에, 한복(韓服)을 입고 두루마기 까지 갖춘 나이가 좀 드신 어른 한분이 분이 앉아서 안내를 하고 있었다.

인사를 하고 가지고 있던 명함을 내어 보이며 이분이 여기 계시느냐고 물었더니, 지금 성경공부 인도하고 계시니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란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미국에 와서 새해 첫 주일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성경공부가 끝나고 나는 그 목사님 앞으로 가서 인사를 드린 다음, 명함

을 내밀고 한국에 있는 분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왔다고 말했다. 그 목사님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고 우리는 그렇게 첫 인사를 나누었다. 그날 성경공부 시간이었는지 예배 설교시간이었는지는 기억이 분명치 않은데, 아무튼 그날 그 목사님으로부터 전해진 성경의 말씀에는 강한 메시지가 있었고, 그 메시지는 내 마음에 깊숙이 들어와 박혔다.

그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이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詰問)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權)이 없느냐?’

그 날 나는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를 해결했다. 평소에 밖으로 들어내 놓고 있지는 않았지만 늘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 풀렸던 것이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나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왜 이런 모습일까? 왜 나에게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까? 명예도 부(富)도 권세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심지어 대부분의 가정에 주시는 어린아이 하나도 내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달랑 나와 내 아내 둘 뿐이었다. 두 사람 모두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나름대로 건강한 몸 하나밖에 없었다.

토기장이가 자기의 생각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늘이 그의 뜻대로 나를 만드셨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을 하고나서부터 다시는 그 문제에 매어달리지 않았다.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필요하면 주실 것이요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 있는 것도 거두어 가실 것이다. 내가 처해 있는 그 순간순간은 내게 필요한 것이기에 내게 주어진 것임을 알았다.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 내 안 깊숙한 곳에 등지를 틀고 있던 무거운 짐이 한 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 날을 시작으로 나의 삶이 기독교 신앙인의 삶으로 변해가게 되었던 것이다.

거짓말 하지 말아요!

한국을 떠나기 얼마 전에 한통의 편지가 왔다. 6개월 먼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서 로스엔젤레스에 살고 있는 친구가, 참고하라며 준비할 것들을 적어 보낸 것이다. 그는 나보다 다섯 살 위로 같은 직장에서 6년간 함께 일을 하다가 먼저 떠난 직장 동료였다. 미국의 물가가 비싸니 생활 필수품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모두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민 집에 방 청소할 때 쓰는 빗자루와 쓰레받기, 그리고 화장실에 놓고 쓰는 휴지통까지 넣어가지고 왔는데 그 휴지통은 아직도 쓰고 있다.

이민 집을 배편으로 부쳐야 했기에, 운송회사 직원이 집으로 와서 가지고 갈 물건들을 포장해 집을 꾸리는데, 준비한 규격의 나무 궤짝에 공간이 좀 남았다며 라면 두 상자를 사오라는 것이다. 가지고 가면 어차피 먹을 음식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다. 그래 시키는 대로 삼양라면 두 상자를 사다 주었더니, 그걸 짐 속 여기저기 빈 공간에 채우고 궤짝에 못을 박아 봉해가지고 선박회사로 실고 갔다. 그리고 얼마 후에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일본과 하와이를 거쳐서 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왔다.

6개월 먼저 와서 살고 있는 친구가 마중을 나와 함께 차를 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나를 데리고 갔다. 이민 첫날밤을 그렇게 친구의 방에서 신세를 졌다. 이튿날부터 거처할 곳을 찾는데 그것도 금방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며칠을 친구의 원 베드룸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다가 가까스로 그 이웃에 아파트를 구해 옮겼다. 원 베드룸 아파트 월세가 월 \$173.00 이었다. 그것도 비싸다고 우선 살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빈 곳이 나면 옮기자는 친구의 말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몇 달이 지난 후 친구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옮겼다. 이번에는 월 \$128.00 이었다. 살 곳을 정하고 보니 집 주소가 ‘4015 Marathon Street!’ 이제부터 마라톤 뛰듯 열심히 뛰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럭저럭 두어 주일이 지난 어느 날 운송회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짐이 도착했으니 찾아가라는 것이었다. 친구의 자동차(Station Wagon)를 타고 함께 롱비치(Long Beach) 항구에 있는 미국 세관(Terminal Island)으로 갔다. 통관 절차를 밟는데 새까만 얼굴을 하고 좀 우락부락하게 생긴 세관 직원이 물었다.

"Do you have any food in this box?"

나는 속으로 ‘애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말했다.

"No, no, no food."

그 직원은 나를 물끄러미 한번 바라보더니 또 물었다.

"Do you have any new clothes in this box?"

난 또 대답했다. "No, no, no clothes."

내 말을 듣고 한 번 더 나를 바라보더니 또 물었다.

"Are you sure?"

나는 또 대답했다. "Ya, ya. no!"

내 대답을 들은 그 직원이 내 이민 짐이 들어있는 나무
궤짝 있는 곳으로 오더니.

"I have to open this box!"

하면서 공구(工具)를 가지고 box를 뜯었다. 뚜껑을 열고
물건을 뒤적뒤적 하는데 여기저기서 라면들이 튀어나왔다.
그는 라면 한 봉지를 집어 들고 나를 보면서,

"Hey, you liar! This is a food!" 하고 큰소리를 쳤다.

그리고는 또 뒤적뒤적 하더니 포장되어 있는 내의(內衣)
를 꺼내 들고는, 이게 모두 새 상품들인데 자기가 물어볼
때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건 여기 와서 사려
면 다 돈이 들어가는 것이므로 미리 좀 준비해 오느라고
내의를 사서 넣어놓은 것이었다. 그 직원은 다시 창구로
가더니 이 짐은 한국으로 도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내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었다. 순간 기가 막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나마 떠들떠들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한다지?’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는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참 환장할 노릇이었다. 말이 술술 통하는 한국도 아니고 조금은 난감했다. 나는 라면을 ‘Food’ 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 새 양복을 그 께쪽에 넣어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단연히 ‘No food, No clothes.’라고 말한 것이다. 순간 이 작자가 작정을 하고 나를 골탕 먹이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말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 자기도 멀뚱멀뚱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사정을 해보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자존심은 좀 상하는 일이지만 그 검은 얼굴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짹짹 빌었다. 내가 모르고 그랬으니 한번 봐달라고. 뭐라고 주절댔는지는 지금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 꼴을 한참 보고 있던 그가 입을 열었다.

“미국에 살려거든 거짓말을 하지 말아요!”

그래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約束)을 하고,
"Thank you Sir!"

하고 경례를 붙였더니 짐을 가지고 가라고 했다. 참 황당했던 기억이다. 그 사람은 한국 사람들의 이민 집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이미 대충 다 알고 있으면서, 나를 시험하고자 물었던 것이 분명했다.

새로운 시작(始作)

1975년 11월 1일 오후에 한국을 떠났는데, 같은 날인 11월 1일 저녁에 미국에 도착했다. 시차(時差)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미국에 첫 발을 내어 디딘지 일주일쯤 지났다. 이제 슬슬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판이었다.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어떤 직장을 잡아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감(感)이 잡히질 않았다. 먼저 온 친구는, 노스 할리우드(North Hollywood)에 있는 영화(映畵) 관련(關聯) 장비회사에서 목수(木手)보조 일을 한다고 했다.

이민 오는 사람은 공항에 누가 마중을 나오느냐에 따라 직업이 결정된다는 말이 있다. 하기야 어차피 말도 잘 안 통하고 이곳에서의 경험도 없는 터이니, 무슨 일이든 할 수만 있다면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가진 돈 없으니 썰 것도 없고 고향산천 아는 사람 다 떠나왔으니 체면 볼 것도 없었다. 한국을 떠나올 때 이럴 경우를 생각하고 회사에서 입고 일하던 작업복까지 싸가지고 왔다. 한 지역을 택해서 ‘낙 투 도어’(Knock to Door/집집마다 문을 두드려보는 것)를 하기로 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쥘다. 그리고 로스엔젤레스

인근 지도 한 장을 들고, 버몬트(Vermont) 길과 멜로스(Melrose) 길 부근에 있는 굴다리 아래 101번 프리웨이 버스 정류장으로 내려갔다. 친구가 일하고 있는 노스 할리우드로 가서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한 것이다. 그리로 가는 버스 번호가 몇 번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노스 할리우드를 향해 간다는 표지판이 붙은 버스가 내 앞에 와서 서더니 문이 열렸다. 나는 얼른 올라서서 버스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맨 뒷자리로 가 앉았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지도에 표시해야 하겠기 때문이었다. 밖에 보이는 길 이름을 보고 들고 있는 지도에서 그 길을 찾아 색연필로 표시를 했다. 그렇게 한 30여분을 가서 친구가 알려준 대로 그가 일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갔다.

싸가지고 간 도시락을 친구와 함께 회사 앞뜰 잔디밭에 앉아서 나누어 먹은 다음에, 친구는 일하러 들어가고 나는 그 주위의 조그만 공장들을 돌며 직장을 구하러 다녔다. 주위에 고만 고만한 공장들이 여러 곳 있었다. 모두 영화 산업에 소용되는 물건들을 만드는 곳들이었다. 한곳을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가 ‘헬로!(Hello!)’하고 부르면, 조금 있다가 한사람이 일하다 말고 카운터로 나와서 ‘하우 캔 아이 헬프 유?’(How can I help You?)했다.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린지 잘 들리지도 않았다. 대충 인사

하는 소리려니 하고는 얼른 말을 걸었다. ‘유 해브 오프닝?’(You have opening?)

그렇게 묻고 나면 한번 나를 쳐다보고는 씨~익 멧 적은 웃음을 웃고는 ‘쏘리 노 오프닝!’(Sorry no opening!) 했다. 그러면 더 할 말이 없어서 ‘땡큐!’(Thank You!)하고는 돌아서 나왔다. 그러기를 수 십 차례, 더러는 취업신청서를 한 장 주면서 씨 내라고 하기도 했다. 열심히 써서 건네주면 한 번 쓰윽 훑어보고는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한마디 하고는 돌아가 제 할 일을 한다. 나는 그게 건성으로 하는 인사인줄을 모르고 순진하게도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연락해 준다고 했던 몇 사람에게서 한 번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 며칠 그러고 돌아다녔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다. 그때 나는 툭툭히 보았다. 얼굴을 대하고 마주 보는 데서는 미소 짓던 얼굴이 돌아서며 달라지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나이가 나보다는 조금 젊은 이웃 사람이 자기 다니는 회사에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라며, 한번 일해 보겠느냐고 물었다. 로스엔젤레스에서 남쪽으로 10여마일쯤 떨어진 곳에 있는 공구(工具)회사였다. 항공기 조립할 때 쓰는 부속품을 깎는 공구를 만드는 공장이었다. 그 사람 말로는 처음에는 공장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오후에는 기계(機械) 조

작하는 것을 배워서 기능공으로 일할 수 있다고 했다. 청 소면 어떻게 공구 깎는 일이면 어떨까, 우선 당장 급한데 찬밥 더운밥 가릴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였다. 매일 새벽 6시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데 거리가 좀 멀다보니 걸어서 다닐 수는 없는 일이라, 우선 운전면허를 받는 일이 급선무였다. 마침 친구의 고종사촌 형수가, 시간이 있다며 운전선생노릇을 해 주 시겠다고 해서 열심히 배웠다. 일주일 후에 할리우드 차량 국(Deptment of Motor Vehicle)으로 가서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 이튿날 운전 실기(實技) 시험을 보러 갔 다. 보기 좋게 떨어졌다.

친구의 사촌형수는 내일 다시 보자면서 나를 데리고 집 으로 왔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르쳐 주느라고 수고를 했는데 좀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튿날 다시 갔다. 좋은 점수는 아니지만 합격했다. 이제는 차를 사야 한다. 새 차 살 돈은 없으니 중고차를 사야 한다. 차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으니 또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마침 주정부 공무원이 쓰던 차가 공매(公賣)에 나온 것이 있다며 그걸 사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800.00을 주고 그 차를 샀다. 흰색 6기통 포드 자동차(Ford Custom Sedan)였다. 준비는 끝났다.

찍고 들어가고 찍고 나오고

소개해 준 사람과 함께 가서 이력서를 한통 써놓고 왔더니 출근을 하라는 연락이 왔다. 이력서에 학력을 적어야 하는데 한참 고민이 되었다. 하는 일이라야 공구 깎는 아주 단순한 일인데 거기다가 대학, 대학원 공부한 거 써넣어서 도움이 될까? 그러면 혹시 그런 고급인력은 이 회사에 지금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을까? 생각 끝에 학력란에 ‘고졸(高卒)’이라고 썼다.

까짓 학력이 무슨 대수이겠는가? 당장 무슨 일이든 해야 하는 판국인데. 드디어 미국 땅에서 첫 출근을 하는 날이 왔다. 아침 7시까지 출근을 해야 하니 일찍 서둘렀다. 여섯 시에는 집에서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나니 아내는 벌써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첫 출근이라고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지은 것이다. 쌀이 있는지 콩나물이 있는지 모른 채 왔는데 쌀밥에 콩나물국을 대하고 보니 참 신기한 생각이 들었다. 빵하고 고기만 먹고 사는 나라인줄 알았던 곳에서, 한국에서 먹던 밥상을 대하는 것이 조금은 생경스럽게 생각되기도 했다.

따듯한 아침을 먹고 점심 먹으라고 싸주는 도시락을 들고 차에 올랐다. 한국에 있을 때 출근시간 때마다 콩나물

버스를 타던 몸이 갑자기 자가용(自家用) 타고 출근을 하게 된 것이다. 새벽시간에 버몬트 길을 남쪽으로 달려서 회사에 도착하니 아직 30분이나 남았다. 차 안에서 조금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따라 들어갔다. 모든 것이 생소하니 자꾸만 옆 사람들의 행동을 살피게 되었다. 건물 안에는 커피 자판기(自販機)가 있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자판기에다 동전을 넣고 커피를 받아들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참 별게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었던 물건이었다.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벽에 꽂아져 있는 자기의 이름이 쓰인 기다란 카드(Time Card)를 하나씩 꺼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시계 앞으로 가서 시계 아래 파여 있는 홈에 넣으니, ‘철커덕’ 하는 소리가 나며 그 때의 시간이 분단위로 찍혀 나왔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대부분의 종업원들이 시간급이므로 급료 계산할 때 쓰려고 하는 것이었다. 출근할 때 찍고 퇴근할 때 찍고, 자기의 일로 외출 할 일이 있으면 찍고 나갔다가 찍고 들어오는 것이다. 내 이름이 적힌 카드도 거기 있었다. 하루 8시간 일을 하는데 오전에 쉬는 시간 15분, 오후에 쉬는 시간 15분, 그리고 점심시간 30분, 포함한 시간 쉬는 시간 중에서 30분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30분은 근무한 것으로 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의 기

본 급료는 시간당 2불 50전이였다. 한국에 있을 때 일급제(日給制)는 있었지만 시간급제는 없었던 것 같다. 참 이상한 나라라는 생각을 또 했다.

소위(所謂) ‘펀치인 펀치아웃’(Punch in Punch out)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조장(Foreman)이 나를 데리고 자기 방으로 가더니 그 날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다. 오전 중에는 청소용구를 가지고 공장 바닥을 닦아내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정해주는 기계 기술자 한사람에게서 기계 조작법을 배우라고 했다.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통을 끌고 다니며 공장바닥을 물걸레로 닦았다. 탄소(炭素) 소재(素材)를 가지고 공구(Carbide Rotary File Tool)를 만드는 곳이라, 날아다니는 먼지는 대부분 연탄가루나 마찬가지였다.



Carbide Rotary File Tool의 일종

한나절 청소를 하고 손으로 머리를 한번 긁었더니 손톱 사이가 새까매졌다. 컵속에서도 코 안에서도 연탄가루 마신 사람처럼 검댕이 묻어나왔다. 화장실에 가서 거울에 얼굴을 비추고 보니 참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어찌

하겠는가? 해야 하는 일인데. 점심시간이 되어 점심을 먹으려는데 가만히 보니 모두 조그만 비닐 주머니에서 샌드위치롤을 꺼내서 먹고 있었다. 나는 도시락에 밥과 김치, 멸치볶음 같은 반찬을 싸가지고 왔으니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을 수가 없었다. 밖으로 나가서 주차장에 있는 내 차 안으로 들어가 유리창 하나를 내리고 차 안에서 점심을 먹었다. 시간이 되어 자동차 문을 닫고 나와서 공장 안으로 들어가 오후의 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첫날 하루의 일을 마치고 퇴근 시간이 되었다. 작업복을 훌훌 털고 손을 씻고 타임카드(Time Card)를 찍고 밖으로 나와 자동차가 주차되어있는 곳으로 가서 자동차 문을 열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자동차 열쇠를 꺼내려고 손을 넣었는데, 어?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도로 공장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일하던 곳을 살펴봐도 거기도 없었다. 조금 당황하기 시작했다. 어찌해야 하는가?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다른 차는 하나 둘 주차장을 빠져 나가고 이제 곧 내 차만 한 대 달랑 남을 판이었다.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서 자동차 오른쪽으로 가서 유리창을 통해 차 안을 살펴보았더니, 저런! 자동차 열쇠가 그냥 운전대에 꽂혀 있는 것이다.

차 안에서 점심을 먹을 때 음악을 듣는다고 열쇠를 운전대에 꽂았었는데, 나오면서 열쇠를 빼지 않은 채 창문 잠금장치(Door Lock Lever)를 누르고 문을 닫아버린 것이다. 이제 집에 가긴 다 글렀고 어찌나 하고 궁리를 하고 있는데, 마침 마지막으로 주차장을 빠져 나가려던 사람이 차를 세우더니 문을 열고 나와서 내게로 왔다. 차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내게 물었다. ‘왓 해픈?’(What happen?) 뭐라고 금방 대답할 수가 없었다. ‘아, 내가 자동차 열쇠를 차 안에다 두고 문을 채우고 나왔다.’ 해야 하는데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락드 인’(Locked in!) 하면 바로 알아들었을 것인데 내가 그 쉬운 말을 알고 있을 리가 없었다.

내 설명을 듣더니 자기 차로 가서 가는 철사로 된 옷걸이를 하나 가지고와서, 그 철사를 구부려 올가미를 만들어 가지고 유리창 틈을 통해 어렵게 차 안으로 집어넣더니, 그걸 요리 조리 움직여서 잠금장치 윗부분을 잡아 올리는 것이었다. 참 신통했다. 고마운 친구였다. 그렇게 가까스로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始動)을 걸고 집으로 왔다. 참 황당했던 날이었다.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나

그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 말이 잘 안 통했다. 가끔 자기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킬킬 웃는데 도무지 왜 웃는지를 몰랐다. 더러는 나를 힐끗 쳐다보며 웃기도 했는데, 그러면 속으로 ‘저 놈들이 왜 나를 보고 웃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이 나를 죽인다 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았다. 영어를 배워야 살겠다는 생각이 났다. 한국에서 영어를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도합 10년이나 배웠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니 말이 잘 통하지를 않는다. 문법과 작문이야 저들만 못하지 않는데 문제는 대화였다.

아무리 문법이 맞고 작문 실력이 좋아도 말이 안 통하는데 어쩔 것인가? 귀에 뭔가가 들리면 대답을 하겠는데 도무지 들리지를 않았다. 글자로 써놓으면 알겠는데 말로 하는 소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럼 지난 10년 동안 무슨 영어를 배웠다는 말인가? 가까운 곳에 버질 중학교(Virgil High)에서 성인학교 (Adult school)를 운영하고 있었다. 저녁 7시에 시작해서 9시에 마치는 야간(夜間)공부반이었다. 직장에서는 오후 3시 30분이면 일이 끝나고 일찍 돌아올 수 있으니, 저녁시간을 이용해 영어를 배울 요량으로 거기에 등록을 했다.

담당자가 인터뷰를 하더니 클래스3에 들어가 공부하란 다. 이제부터 영어공부 제대로 한번 해보나보다 하고 첫 시간 수업을 기다렸다. 클래스3에서는 기초문법을 강의하고 있었다. ‘이건 아닌데. 누가 이거 몰라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났다. 그 날은 그렇게 대충 마치고 다음날 담당자를 찾아가서, 한국에서 10년간 문법은 충분히 배웠다고 더듬더듬 말을 했더니 이번엔 클래스6으로 가란다. 말 한마디에 3등급을 건너뛰었다. 숙제를 내어 주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Reader's Digest/매월 발행되는 월간교양 잡지)에 실려 있는 글 한편을 정해주며, 읽고 오라는 것이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영어공부를 하자는 것이다. 귀가 안 들리고 입이 안 열려서 시작한 일인데 이번에는 또 너무 멀리 뛰었다.

아무튼 그렇게 눈치코치 보며 영어공부를 한다고 했다. 50분간 공부를 하고는 10분간을 쉬는데, 그 때만 되면 밖에서 짹짹 종소리가 들렸다. 삼삼오오(三三五五) 짹짹 지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이, 그 종소리가 나면 우르르 밖으로 나갔다. 그 맨 앞에 나가는 사람은 항상 선생님이었다. 열심히 강의를 하다가도 그 종소리만 들으면 말을 딱 끊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일터에는 휴식시간(Break Time)이나 점심때가 되면 어김없이 푸드 트럭(Food Truck)이 왔다. 공

장 밖에서 경적을 울리면 모두들 일손을 놓고 밖으로 나간다. 간단한 음료수와 간식을 사서 먹곤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푸드 트럭이 학교에까지 올 줄은 몰랐다. 그것도 밤에. 아마도 밤중에 경적을 울리면 너무 시끄러울 것이니 경적대신 종을 흔들어대는 모양이었다. 선생님을 좀 놀려주고 싶은 생각이 났다. 그래 슬슬 선생님 앞으로 갔다. 내가 자기 앞으로 다가가니까 무슨 질문이 있는가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선생님을 보고,

“Teacher, Do you know For Whom the Bell Tolls?”

(선생님,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지 아세요?)

하고 물었다.

갑작스런 질문에 선생님은 조금 이상하다는 눈빛을 했고, 주위에 있던 학생들도 일제히 이상한 질문을 하는 나를 바라보았다. 잠간 정적(靜寂)이 흐른 뒤에 선생님 대신 한 학생이 입을 열었다.

“Ah, It is the Title of the novel written by Hemingway!”

(아, 그건 헤밍웨이가 쓴 소설 이름이잖아!)

모두들 고개를 끄덕 끄덕 했다. 맞는다는 뜻이다. 나는 속으로, ‘참 바보들이군, 아무렴 내가 그 답을 들으려고 그 질문을 했을까?’ 하고는, 선생님 쪽으로 돌아서서 선생님을 보고 말했다.

"The Bell Tolls for You every night!"

(그 종은 선생님을 위해 울리는 겁니다!)

순간 장내에는 폭소가 터지고 말았다. 선생님도 금방 깔깔대고 웃었다. 저들이 내 말을 알아들었다고 생각하니 나도 기분이 꽤 좋았던 날이다.

너나 다 해먹어라!

한국을 떠나올 때, 아버지께서는 이미 거동(舉動)이 불편하실 정도로 많이 편치 않으신 중이셨다. 병원에서는 손을 놓고 집에서 편히 쉬게 해 드리라는 말을 들은 터라 어쩔 도리가 없었다. 내가 떠나오던 날 아버지께서는 지팡이를 잡으시고 사랑채 마루 앞 뜨락에 걸터앉으셔서,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마지막 인사를 드릴 때 앉으신 채로 지팡이를 들어 보이시며, 힘없는 목소리로,

“잘 가거라!”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내 뇌리(腦裏)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 이듬해 봄, 한국을 떠난 지 여섯 달 쯤 지난 때였다. 한국에 계시는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다.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을 들 수가 없었다. 가슴이 아프고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다. 편치 않으신 모습을 보고 기약(期約)도 없이 떠나왔는데, 이제는 다시 따뜻한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마침 아파트 파트타임매니저로 일하시는 분이 대한항공 주재원으로 계시는 분이라, 급히 한국행 비행기 표 두 장을 준비해 주셔서 이튿날 오후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아버님 장례(葬禮)를 마치고 다시 돌아왔다. 직장에 다시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데 자꾸만 눈물이 났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노래를 불렀다. ‘산에 사안에 꽃이 피~~네, 들에 드을에 꽃이 피~~네. 꽃은 다시 피련마는 님은 어이 못 오시는가? 산이 높아 못 오시는가? 물이 깊어 못 오시는가?’ 소리를 죽이고 속으로 부르는 노래이기도 했지만, 돌아가는 기계소리에 묻혀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듯 했다. 한 시간도 넘게 그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다. 그 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이민 와서 한 달 만에 취직이라고 해서 몇 주 일을 하고 나니 연말(年末)이 되었다. 어느 금요일, 아마도 그 해 마지막 주(週)였을 것이다.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는데 조장이 하얀 봉투를 하나 주었다. 뭐냐고 물으니 일 년에 한번 연말에 주는 보너스 라고 했다. 봉해져 있어서 가지고 퇴근을 해 봉투를 열어보았더니, 수표(手票) 한 장이 들었는데 액면(額面)이 \$10.00이었다. 기왕 주려면 좀 더 쓰지 되게 짜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도 미국에 와서 생각지도 않았던 보너스가 웬 떡인가 싶었다. 주유소에서에서 최고급 휘발유 한 갤런에 57 센트 하던 때이니, 자동차 휘발유 탱크 한 번은 가득 채울 수 있지 않은가!

아무튼 그렇게 그럭저럭 한 7개월쯤 지난 때였다. 아무래

도 더 이상 계속 다니는 것은 고려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당 2불 50전 씩 주급(週給)으로 받아봐야 하루 20불씩 주 5일이면 100불, 거기다가 세금 떼고 나면 한 달 수입이 400불도 안되었다. 오버타임 일을 하면 좀 수입이 늘어나긴 하겠는데 가만 보니 그런 일은 나에게까지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생각 끝에 그 직장을 그만 두기로 결심을 했다. 어느 날 오전 일을 마치고 조장에게 말했다.

“나 오늘로 그만둔다. 내일부터 나오지 않을 것이니 그동안 일한 급료수표는 우편으로 보내라!”

그리고는 속으로 ‘너나 다 해먹어라 이 양코백이 놈아!’ 하면서 회사 문을 나서서 집으로 오고 말았다.

이리 저리 수소문을 해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다가, 마침 아는 사람의 소개로 한인이 경영하는 전자(電子) 부품 제조 회사에 면접을 하러 갔다. 사장은 인상이 그런대로 괜찮았다. 회사에 금속(金屬)을 깎고 갈고 하는 기계 공작(工作) 부서인 머신포(Machine Shop)으로 데리고 가더니, 여러 가지 기계들을 가리키며 이런 기계들을 다룰 줄 아느냐고 물었다. 기계 이론이야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지만, 실무를 해 본 경험이라고는 며칠 전에 그만 둔 회사에서 2, 3개월 동안 만져본 것이 전부였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일이라 무조건 모두 할 줄 안다고 했다. 그랬더니 다

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을 해서 일을 하라고 했다. 월요일에 출근을 했더니 내가 일할 부서에는 매니저가 미국인이었고, 함께 일하는 미국사람 또 하나 그렇게 세 사람이었다. 거기서 내가 맡은 일은, 초고속 평면그라인더(Surface Grinder)로, 전자제품(電子製品)에 쓰이는 부속품을 규격에 맞도록 깎는 일이었다. 어쨌거나 매니저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고 나는 열심히 일했다.

미국에서의 두 번째 직장 생활이 또 그렇게 시작되었다. 사장도 한국인이고 종업원도 절반은 한국인이니 말도 잘 통하고, 김치 깎두기 냄새도 풍기고 한결 지내기가 수월했다. 게다가 봉급도 월급으로 800불쯤 준다니 얼마나 잘 된 일인가? 어느 날인가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마침 아내가 집에 있는 날이라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 함께 일하는 미국인 친구가 부러운 눈빛을 하며 ‘넌 참 좋겠다.’ 하고 말했다. 그는 네모 난 토스트 빵에 햄과 치즈를 한쪽씩 넣은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는데, 자기가 아침에 나올 때 자기 아내는 늘 자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냉장고 열어서 거기에 있는 햄 한 개 하고 치즈 한 장, 그리고 빵 한 조각을 싸가지고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정말 난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듯한 점심을 날라다 주는 사람이 있으니!

짬뽕을 좋아하는 이유

그렇게 새로 직장생활을 한지 6개월쯤 지나서였다. 회사에 출근을 했더니 사장실로 좀 오라는 기별이 왔다. 하던 일을 멈추고 사장실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꾸벅 인사를 하고 맞은 자리에 앉아서,

“부르셨나요?” 하고 물었다.

사장님도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 예, 서울 구로동에 있는 공업단지에, 현지 생산 공장을 세우려는데, 거기 나가서 기계 설치하고 셋업(Set-up)하는 거 좀 맡아 주어야겠어요!”

순간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아니 그럼 나더러 지금 한국에 가서 기술 고문 노릇을 하라는 것이 아닌가? 내가 뭘 안다고. 쇠 깎는 기계 만져본지 반년 겨우 넘었는데! 그래서 말했다.

“아니 제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매니저를 보내셔야지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 사람 내보내려면 경비(經費)가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하고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가서서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는 것이었다.

그 때 매니저는 콧수염 달고 있는 미국인이었다. 그는 나와는 봉급수준도 달랐고 일하는 스타일도 달랐다. 우리야 어디 직장생활 하면서 출퇴근시간 정확히 지키고 하는가? 회사가 바쁘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 치워야 하는 게 우리 스타일이지 않은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그런 것도 상관없다. 회사 일이 급하다고 나오라면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하는 방식이었다. 그런 건 한국에 있을 때 하도 많이 해 봐서 이미 몸에 짝 배어 있는 터였다.

조금은 이해가 되었다. 미국 사람 부려먹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일을 나더러 하라는 것일까? 그 사람에게 회사가 급하니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 ‘너 미쳤니?’(Are you crazy?)할 게 뻔한 일이고, 내일 토요일이지만 좀 출근하라고 말하면, 십중팔구(十中八九)는 ‘안되는데요!’(No, I can't do it!) 할 게 뻔하다.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서 이번 달 봉급을 줄 수 없으니 다음 달까지만 좀 참아 달라면, 그들이 ‘아, 네, 그러지요.’하고 순순히 계속 일을 하겠는가?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일이다. 그러니 사장도 답답해서 내게 부탁을 하는 것이겠지. 봉급도 덜 나가고 한국에서의 체류비도 덜 들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다. 까짓 거 뭐 한번 부딪혀 보는 것이지!

졸지(猝地)에 기계 기술자가 되어, 한국으로 출장을 나가는 일이 벌어졌다. 기간은 약 한 달 예정이었다. 그렇게 되어서, 그 해 6월 말 경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이민을 떠날 때, 한국 땅을 다시 밟게 되는 일이 10년 후에 있을지 20년 후에 있을지, 전혀 기약이 없이 떠났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로 떠난 지 8개월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된 것이다. 김포 공항에 도착하니 이미 회사 직원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영등포구 구로동에 있던 구로공단으로 가서 가까운 곳에 있는 여관에 짐을 풀었다.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해서 이미 수입해 들여온 밀링 머신(Milling Machine) 설치 작업을 도왔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은 기계를 제대로 조립 설치하고, 작동시범을 통해서 기계공을 훈련시키는 일이었다. 속을 모르는 현지 공원들은 나를 잘 따라 주었고, 미국에서 온 기술자(?)라고 깽뚫이 대접해 주었다.

점심이나 저녁은 주로 회사 옆에 있는 중국음식점에 가서 해결했는데, 나는 거기서 거의 매일 짬뽕을 시켜 먹었다. 한국에 살 때 외식(外食)을 해 본 일이 별로 없었고, 딱히 좋아하는 중국 음식도 없었다. 그나마 짬뽕이 그래도 얼큰하니 내 입맛에 맞았던 것이다. 지금까지 내 일생 중 단기간에 짬뽕을 가장 많이 먹었던 시절이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지금도 중국 음식점엘 갔을 때 종업원이 무얼 먹

겻느냐고 물으면 금방 답이 나온다.

“삼선 짬뽕이요!”

5부 벗을 잃기보다는

그게 안 비싼 겁니까?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지 한 6개월 쯤 된 어느 날 저녁에 담임목사님을 집으로 초대했다. 집이래야 침실 하나에 거실하나, 그리고 작은 부엌이 있는 조그만 아파트다. 가구(家具)라고는 방안에 침대하나, 그리고 부엌에 4인용 식탁 하나가 전부였다. 저녁으로는 밥을 짓고, 시금치 된장국을 끓이고, 몇 가지 나물반찬이 더 있었다.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여니 목사님 두 분이 문밖에 서 계셨다. 담임 목사님이 다니시는 학교에 공부하러 오셔서 같은 기숙사에 계시는 부목사님과 함께 오신 것이다.

안으로 들어오시기는 했는데 앉으실 자리가 마땅치 않았다. 별 수 없는 일이지 어떻게 하겠는가? 그냥 맨 바닥에 방석 두 개를 내어 놓고 앉으시게 했다. 그리고는 맞은쪽에 있는 텔레비전을 켜드렸다. 마침 뉴스 시간이었는데 채널 7에서, 그 당시 유일한 동양인 앵커우먼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던, 중국계 ‘카니 정’ 아나운서가 뉴스를 전해주고 있었다.

다른 가구는 없어도 텔레비전 한 대는 있어야 하겠기에, 그 때 로스앤젤레스 시내 올림픽 길과 버몬트 길 이 만나는 데서 동쪽으로 약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던, 교포(僑胞)가 경영하는 전자상품 판매점으로 갔다. 미국 제니스

(Zenith)사 제품 19인치 컬러 텔레비전을 사려고 값을 물어 보니 \$600.00을 달라고 했다. 그래서 값을 치르려고 하는데 함께 간 친구가 말하기를 한꺼번에 다 주고 사지 말고 월부로 사라고 했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이 나라는 ‘크레딧’이 없으면 살기 힘든 곳이니 먼저 ‘크레딧’을 쌓아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100.00을 다운하고 12개월 동안 할부로 갚기로 계약을 해서 사온 것이었다.

한국에서 떠나올 때 동남 티브이 13인치 콘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에다 비하면 엄청 좋은 것이었다.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방송을 보고 있던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다.

“거 텔레비전 참 잘 나옵니다!”

나는 무심결에,

“기숙사에는 텔레비전이 잘 안 나오니까?” 하고 물었다.

목사님이 대답했다.

“아, 기숙사에 있는 티브이들이 모두 낡아서 방송이 영 잘 안 나와요! 이걸 참 잘 나오는데 꽤 비싸지요?”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목사님, 이거 비싼 거 아닙니다. \$600.00 주고 샀어요. 그것도 월부로요.” 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그게 안 비싼 겁니까?” 했다.

나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말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분의 생각에는 그것이 비싼 것인데 내가 안 비싼 것이라고 말을 했으니. 좀 무안한 생각이 들었다. 당시 환율로 따져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비싼 축에 드는 것은 아니었다.



Zenith TV

저녁상이 준비가 되어 두 분을 식탁에 앉게 해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마침 한국에서 올 때 누가 선물로 준 은수저가 있어서 그걸로 식사를 하시게 했더니, 수저를 들어 국을 떠 잡수시다가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하셨다.

“은수저가 좋기는 한데 전 이거 잘 사용 안합니다. 국에 넣으면 금방 수저가 뜨거워져서 좀 그래요.”

하면서 살짝 웃으셨다. 그래서 그런지 나도 지금 은수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 목사님은 그로부터 1년 후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가셔서, 얼마 후에 서울 강남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담임으
로 가셨는데, 근래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한국에 몇 대박에
없는 수억 원짜리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신다는 것이다.
그 때는 \$600.00도 비싸다고 하시던 분이셨는데. 이건 뭐
내가 그분을 폄하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그분이 전해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방향을 잡았고, 개인적으로는 그 분을 지금도 존경하고 있
다. 다만 이 시점에서 그때의 생각을 하는 것은, 사람은 많
이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처음에 먹은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인가 보다.

많이 울었다

1978년 늦은 봄, 교인 중의 한분이 지병(持病)을 앓다가 돌아가셨다. 나이는 아직 50전이고 아내와 어린 아이 둘이 있었던 것 같다. 오래 전에 한국을 떠나, 남미로 이민을 갔다가 미국으로 들어오셔서 살게 된 분이였다. 이런 저런 일을 하다가 조그만 마켓을 인수해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소규모이다 보니 주인이라고 해도 마음 놓고 쉴 여유가 없었다. 오히려 종업원보다도 더 바쁘고 힘들게 뛰어야 하는 것이 소규모 영업을 하는 이민자들의 삶이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한번 잘살아보자고 이를 악물고 살았는데, 어느새 자기도모르는 사이에 덜컥 병이 들고 만 것이였다. 위암말기로 진단이 나와서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 나도 저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 주일 빠짐없이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해 주었던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은 분이였다. 그런데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것이다. 장례식 날이 다가와서 거기에 참여하기로 했다.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장례식을 보게 된 터라 이곳의 장례문화는 어떤 것인가 궁금하기도 했고, 그분의 마지막 떠나시는 자리에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이다. 장지(葬地)가 할리우드 힐 공원묘지였다. 지도를 보고 길을 확인 한 후 장지로 찾아갔는데 잘 다듬어진 푸른 잔디로 덮여있는 동산이었다. 한국에서 보던 묘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었다. 묘지에 온 것이 아니라 어느 공원에 소풍을 나온 기분이 들 정도였다.



할리우드 힐 공원묘지 채플

조그만 채플 안 앞쪽으로 관(棺)이 놓여 있었고 가족들은 검은 양복을 입고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그의 젊은 부인이 가끔 어깨를 들썩이는 모습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장례식이 시작되었다. 찬송(讚頌)을 불렀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쉬일 곳 아주 없

네~~~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찬송을 따라 부르는데 가슴이 콕 막히면서 눈물이 쏟아져 흘렸다. 찬송을 계속 부를 수가 없었다. 그냥 울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사는 동안 수 없이 많은 장례식엘 참여했지만 그 때처럼 울어본 일이 없다. 지금도 그 때 생각을 하면 눈물이 고인다. 왜 그랬을까? 왜 거기서 그렇게 울었을까 생각해 봤다. 젊은 나이에 고국을 떠나 타국을 헤매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 이제 겨우 자기사업이라고 시작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런데 덜컥 불치의 병이 들었으니 얼마나 원통했을까? 어렵사리 이민생활을 시작한 나도 자칫하다가 저런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남겨진 젊은 아내와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암튼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쳐서 그의 죽음에 내 자신의 모습이 겹쳐보였던 탓일 것이다. 예배 후에 조객들이 한 줄로 앞으로 나가면서 관속에 누어있는 고인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으로, 장례 예배가 끝났다. 하관(下棺)할 곳으로 관을 들고 가야하는데 관을 들고 갈 사람이 가족 중에 많지 않았다. 관 양쪽으로 손잡이가 세 개씩 있으므로 여섯 사람이 필요한데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관 들기

좋아할 사람이 어디 그리 많겠는가? 순간 내가 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났다. 앞으로 나가서 나누어주는 흰 장갑을 끼고 관을 들었다.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생각보다는 조금 무거웠다.

묘지에 도착하니 관을 묻을 자리를 파 놓았는데 언뜻 보기에 너무도 작은 공간이었다. 사람들의 수군수군하는 소리가 들렸다. ‘관을 세워서 묻는 모양이지?’ ‘그럴 리가 있나 이 사람아?’ ‘아니 죽은 것도 서러운데 죽어서도 계속 서있어야 한단 말이야?’ ‘누가 그러는데 그렇게 묻는 곳도 있다더구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족에 한해 아래위로 겹쳐서 관을 묻는 일은 있다는 것이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또 한 번 눈물이 나왔다.

내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잘 한 일이 죽은 이의 관을 들어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하관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가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관리인이 말했다.

“이제 모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기 직원들이 시간 되는 대로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하관하고 마감하는 것까지 다 보려면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이다. 지금은 그들도 동양(東洋)의 장례문화를 알게 되어 끝까지 지켜보게 하고 있지만 그 때는 그랬다. 그래서 하관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장지를 떠났다.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이 땅의 어느 곳엔가 묻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책바가지 초(初) 신자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일 년 반쯤 지난 어느 해 여름에, 교회에서 산상기도회를 간다고 광고를 했다. 생전 처음 가게 되는 모임인데 가서 뭘 하는지 잘 몰랐다. 교회에서 가는 모임이니 세상 사람들 소풍가는 것하고는 다를 것이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오는 모임인가보다 생각하고 함께 가기로 결정을 했다. 교인들 대부분이 토요일까지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 토요일오후에 갔다가 일요일 오후에 내려오는 일정이었다. 로스엔젤레스 외곽으로 난 2번 엔젤리스 하이웨이를 따라 북쪽으로 한 시간쯤 가니, 울창한 침엽수(針葉樹)로 옥어진 산과 계곡이 있는 엔젤레스 국립공원이 나타났고, 거기에 미국인이 운영하는 수양관이 있었다.



그 깊은 숲속에 몇 채의 숙소 건물 과 회의장이 깔끔하게 지어져 있었고, 축구놀이를 할 수 있을 만큼 넓은 잔디 운동장도 마련되어 있었다. 현지에서 제공해 주는 저녁을 먹고 운동시간이 되었다. 청/백 두 팀으로 나누어 축구시합을 했다. 그리 건장한 체격도 아니면서 주제넘게 우측 공격수를 맡겠다고 나섰다가 숨넘어가는 줄 알았다. 그 포지션이 엄청 뛰어야 하는 자리임을 깜빡했던 것이다. 매사 주제파악 잘못하면 애꿎은 몸만 고생인거 그때 알았다. 시합이 끝나고 숙소로 올라가는데 오른쪽 종아리에 쥐(Cramp)가 났다. 걸을 수가 없었다. 그냥 주저앉아서 나름대로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풀리지가 않았다.

사람들은 땀도 씻을 겸 부지런히 뒤도 안 돌아보고 다투어 숙소로 올라간 터라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가까스로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키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다고 소리를 질러 사람을 부른다던가하는 일은 체면을 구기는 일이니 할 수 없고, 혼자서 끙끙대며 땅에서 안 떨어지는 한쪽 다리를 질질 끌고 조금씩 움직여서 한 계단 한 계단 기어가다시피 올라 숙소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생각해보니, 모두들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문을 닫고 바깥뜰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기도하러 왔으니 기도를 해

야겠다고 생각하고 앉은 자리에서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시작했다. 뭘 기도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났다. 여름이기는 하지만 산속인데다 사막성 기후라서 그런지, 낮에는 등골에 땀이 나도록 더웠는데 밤이 깊어지기 시작하니 슬슬 추워지며 밤이슬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냥 그렇게 밖에서 떨면서 밤을 새울 수는 없는 일이라, 숙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몸을 일으키는데 아프던 다리가 많이 풀려 있었다.

일어나서 숙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전등은 모두 꺼져 있었고 너무도 조용했다.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주위를 돌아보는데 그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들 열심히 자고 있었다. 그 때 깨달은 것이 있다. 산상 기도 모임은 밤새 기도만 하는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날 아침에는 새벽 여섯시에 예배가 있으니 나도 자야겠다고 생각하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잠이 깨어 시간을 보니 벌써 여섯시 10분 전이었다. 그런데 아직 아무도 일어난 사람이 없었다. 돌아다니면서 한사람씩 깨우기 시작했다. ‘여섯시입니다! 일어나세요!’를 반복해서 외치며, 지금 생각해 보면 초 신자 주제에 참 엉뚱한 짓을 했다.

한 주 내내 일하고 모처럼 산속에 들어와 쉬고 잠이 들었는데 그냥 놔둬도 될 것을, 주책바가지 초 신자가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 둘씩 눈을 비비며 일어나 부족한 잠에 피곤한 모습으로 예배장소로 들어갔다. 명색이 신자들의 모임이니 뭐라고 투덜대지도 못했을 것이다. 마음속에 조금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왜 기도하러 단체로 산으로 가야 하는가? 그렇게 해야만 더 효력이 있는가? 그렇게 피곤한 사람들을 꼭 이른 새벽에 깨워야만 하는가? 한 시간만 좀 더 자게 놔두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러면 ‘나 이롱’ 신자가 되는 것인가?

아버지의 요리 솜씨

산 설고 물 설은 이국땅에서의 이민 생활은 고달팠다. 다니던 교회에 아들 셋 딸 둘 합해 다섯 남매를 데리고 이민을 들어오신 분이 계셨다. 그 분이 로스엔젤레스 다운타운에서 북쪽으로 약 20여 마일쯤 떨어진 동네에 살고 계실 때 일이다. 어른 두 내외는 페인팅 사업을 하시느라 아침 일찍 나가서 늦게 돌아오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학교에 다니느라 바쁘게 살고 있었다.

그러니 저녁이 되면 저녁 식사를 준비해 함께 먹어야 되는데, 낮에는 페인트 일 하느라 녹초가 되고, 일을 끝내고 돌아와서는 저녁준비를 또 해야 하는 안주인의 피곤함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다. 그래서 궁리 끝에 가족회의를 열어 그 문제를 해결 했다. 식구가 모두 일곱 사람이니 한 사람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누구 솜씨가 제일 좋은가를 식구들에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모두가 아버지가 만드신 요리가 제일 맛있다고 대답들을 했단다. 마침 그 댁에서 구역기도회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교인 중 한분이 물었다.

“아니 어떻게 무슨 비법으로 요리를 하시기에 그렇게 요리를 잘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 하시기를,

“내가 무슨 재주가 있나요? 잘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온갖 양념 있는 대로 아끼지 않고 듬뿍 듬뿍 털어 넣고 끓이는 것이지요!”

맞는 말이다. 잘 할 줄 모르면 양념이라도 듬뿍 넣어야 할 것이다. 나도 요즘 이 방법을 가끔 써먹는다.

부끄러운 이야기

돌아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자랑스러운 일도 있고 부끄러운 일도 있다. 자랑스러운 일은 자꾸만 이야기해서 자랑하고 싶지만, 부끄러운 일은 되도록 말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날을 되돌아보라고 하는 일인데, 부끄러운 일이었던 자랑스러운 일이었던 가릴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싶다. 잘 한 일은 본받아서 더 잘 하면 될 것이고, 부끄러웠던 일은 참고해서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1977년 11월 첫 일요일 아침, 그날도 다른 주일과 다름 없이 아침 일찍 차를 몰고 교회로 갔다. 골목을 돌아 교회 앞으로 가서 주차를 하려는데 이미 먼저 온 교인들이 교회 울타리 밖에서 웅성웅성하고 있었다. 교회 울타리 옆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가서 무슨 일인가 하고 둘러보았더니, 교회로 들어가는 울타리 문에 주먹만 한 자물통이 매어달려 있었다. 누군가 문을 잠그고 아무도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는 울타리 안쪽에다가 큰 글자로 공고문(公告文)을 붙여 놓았다. 박OO 목사는 1977년 10월 31일부로 해임되었으므로, 더 이상 본교회의 담임목사가 아님을 공고한다는 내용이었다. 누가 그렇게 했는가 하고 보았더니 교회 차터(Charter)위원회 명의로

그렇게 해 놓았다. 참으로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가까스로 신앙생활 좀 해보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넘기 힘든 시련이 닥친 것이다.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라는 교회의 모습인가 싶었고 교회 안에서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싶었다. 예배를 드리겠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온 교인들은 길옆 인도에 심겨있는 가로수 가까이에 웅기종기 모여,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교회 안에는 아무 인기척도 없었다.

조금 있으니 경찰관 두 명이 왔다. 목사님이 경찰관에게 무언가 설명을 했다. 한참 설명을 듣던 경찰관이 자기 차로 가서 커다란 쇠망치를 들고 왔다. 그 망치를 가지고 교회 울타리로 가더니 잠겨있는 자물통을 망치로 부셔버리고, 문을 열어 주면서 들어가라고 신호를 하는 것이었다. 경찰은 누군가가 예배를 방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한 것이다. 예배당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데 평소에 출석하던 교인들 거의 절반이 보이지 않았다.

무슨 이유인지 초 신자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일이나 아무튼 기분이 좀 씁쓰름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끓아 오다가 때가 되어 터진 것이었다. 그 교회 전 교인의 1/3 정도 되는 대 가족을

거느리고 있던 김OO 장로님을 중심으로 한 교인들이, 목사를 싫어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건이 생기기 몇 주 전 예배를 마치고 광고를 하겠다며 그 장로님이 앞으로 나와서, 목사님에게 두 주 동안 휴가를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인들은 모두 박수를 쳤다. 전후 사정을 모르는 나도 그것은 참 잘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목사님을 쉬게 하고 그 동안 다른 목사님을 세울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때 마침 조그만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담임 목사님이 휴가를 가지지 않고, 그 다음 주일에 예배를 인도한 후에 중대한 광고가 있다며 교인들을 잠깐 모두 자리에 앉게 하고 말했다.

“김OO 장로는 교회를 어지럽힌 죄를 물어 시무(視務)를

해임하고 장로의 직분을 면직함을 공고합니다.”

난리가 났다. 교인들이 예배당 밖으로 나와서 친교실로 가려는데, 한쪽에서는 ‘저게 목사냐?’ 하는 큰 소리가 들렸고, 다른 쪽에서는 ‘어 이거 장로가 목사를 치려하네!’ 하는 소리가 들렸다. 세상 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던 것이다. 나야 어느 편도 아니고 어느 편을 들 이유도 없었다. 누가 담임 목사가 되든지 누가 장로로 시무를 하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저 묵묵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싶었다. 그런데 그냥 놔두지를 않았다.

어느 날 저녁에 저녁을 먹고 쉬려는데 전화가 ‘따르릉’ 하고 울렸다. 받아보니 그 장로님이었다. 어쩐 일이시냐고 인사를 했더니 그 분이 평안도 사투리를 좀 섞어서 말했다.

“아, 이거 쉬는 시간에 미안 하외다. 다름이 아니라 거 박OO 목사 그거는 목사 아닙니다. 그 교회 나가지 마소.”

대충 그런 내용이었다.

한참 말없이 듣고 있자니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 신자를 신앙이 잘 성장하도록 인도해야 할 장로라는 이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다. 내가 지금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런 나한테 대고 담임목사를 헐뜯고 있으니, 그러면 나더러 목사를 버리고 자기를 따라오라는 말이 아

닌가? 어린 생각에도 그건 아닌 것 같았다. 이런 꼴을 보면서 누가 교회생활을 계속할 것이며 이래가지고 무슨 전도가 되겠는가 싶었다.

그래서 큰맘을 먹고 말했다.

"장로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지는 대충 알겠는데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지금 초 신자입니다. 장로님을 본 받아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를 헐뜯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고 이러시면, 제가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저런 꼴 보기 싫고 교회에 실망해서 신앙생활 접어치우고 세상으로 나가면, 장로님이 제 삶을 책임지시렵니까? 그러지 못하시겠거든 다시는 이런 전화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미안하게 됐다며 전화를 끊고는 그 후로 다시는 그런 전화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두 동강이 난 것이다. 참으로 감사한 일은 그런 저런 일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도리어 바른 교회생활, 바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오히려 더 유익이 되었다는 것이다. 서경 말씀이 생각났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

전북도 따먹고

로스엔젤레스에서 자동차를 타고 남쪽으로 한 시간 가량 내려가면, 샌 피드로(San Pedro) 항구(港口)가 나온다. 태평양(太平洋) 넓은 바다를 향해 뻗어있는 반도(半島) 언덕 끝자락에 자그마한 공원이 있고, 그 안에 ‘우정의 종각’이 있다. 1976년 미국 독립 200주년을 축하하는 뜻으로 한국에서 기증해 세운 것이다. 그 종각 안에는 신라시대의 ‘에밀레’종을 본 따서 만든 꽤 큰 종이 매달려 있다.



우정의 종각

미국에 이민을 와서 직장을 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한국에 있을 때와 좀 다른 것이 있었다. 한국에 있을 때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것도 모자

라서 일요일에도 출근을 하는 날이 허다했다. 7년간 직장
에 다니는 동안 일요일에 출근하지 않은 날이 며칠 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이곳에 오니 주(週) 5일
근무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만 되면 기분이 참 좋았다. 저
녁 늦도록 놀다가 이튿날 아침에 좀 느지감치 일어나서 대
충 아침을 먹고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네 가족과 함
께 길을 떠났다. 주로 가는 곳이 샌 피드로 남쪽 끝자락에
있는 바닷가였다. 길 찾기도 참 쉬웠다. 로스엔젤레스 다운
타운에서 110번 프리웨이(그 당시는 11번이었다)를 타고 남
쪽으로 계속 가면, 프리웨이가 끝나고 가퍼(Gaffey Street)
라는 큰 길이 나오는데, 거기서 딱 한번 좌회전해 끝까지
내려가면 바로 바닷가에 도착하게 된다.

거의 매 주말마다 거기를 갔다. 이민 초짜에다가 여러
가지로 여유가 없다보니, 조금 멀리 주말여행을 떠난다거
나 하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던 때였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드라이버(Flat Screw Driver) 하나씩을 손에 들고
언덕을 내려가, 바닷가 자갈밭에 이르러서는 바지를 무릎
위로 걸어 올리고 물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허리를 굽히고
맑은 물속을 들여다보면 조그만 전복이 물밑에 있는 돌이
나 바위에 붙어있다. 그리 크지는 않고 그저 애기 조막만
한 것들이 사람들의 눈에 쉽게 보이지 않도록 잘도 숨어
있었다. 비록 조그마한 것들이지만 맨손으로 그걸 탄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 드라이버를 전복이 붙어있는 곳에 대고 밀어 넣어서 떼는 것이다. 전복과 바위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야 떨어지기 때문이다.

몇 개 따가지고 물가로 나오면 거기에는 이미 초고추장이 준비되어 있었다. 물가 자갈밭에 앉아서 막 따온 전복을 주머니칼로 썰어서, 매콤 새콤한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맛은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차를 몰고 경치(景致)좋은 태평양 연안 고속도로(Pacific Coast Highway)를 달리며 해안(海岸) 경관을 즐기고, 해 질 무렵에 집으로 돌아오는 일은 그 당시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였다.

한 동안 그 재미에 빠져있던 우리는, 얼마 후에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어린 전복을 따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것을 알고 나니 별 이야기가 다 들렸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나가서 전복을 따다가 해안 순찰대(巡察隊)에게 걸렸는데, 벌금을 500 불이나 물었다는 것이었다. 큰일 날 뻔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로 그 친구와 나는 그 일을 접었다. 아쉽게도 지금은 그때 전복 따던 그 곳을 내려갈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멕시코 탈출(脫出) 작전

이민 초기 정말 황당하고도 아찔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 내게 손위 동서가 한분 계셨는데 그분은 이미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계셨으나, 어떤 사정으로 그의 아내 되시는 나의 처형은 영주권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서류 미비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두 분이 샌디에이고(San Diego) 관광을 다녀오시겠다며 자동차를 몰고 집을 나가셨다. 그런데 저녁이 늦도록 돌아오시지 않으시는 것이었다.

밤은 점점 깊어 가는데 관광 떠나신 분들이 돌아오시지 않으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밤 10시쯤 되어 전화벨이 울렸다. 얼른 전화기를 들고 “여보세요?” 했더니,
“난데” 하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어디세요?” 했더니,
“여기 지금 멕시코야!” 하시는 것이다.
“아니 왜 거기서 전화를 하세요?” 하고 물었다.

대답인즉슨, 샌디에이고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려다가, 멕시코 티후아나(Tijuana)가 거기서 가깝다는 이야기를 누구에게서 들으시고, 내친 김에 거기 구경도 하고 가자고 생각

하시고는, 그냥 차를 몰고 두 분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 가셨다는 것이다. 샌디에이고에서 티후아나까지는 자동차로 30여분 거리다. 지금도 그런 편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 멕시코로 들어갈 때는 아무 조사도 안했다. 국경 검문소에서 잠깐 서 있다가 차례가 되었을 때, 차창 밖에서 있는 검문소 경찰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면, 대부분 별다른 말없이 그대로 통과하라는 신호를 했다.



멕시코 국경 검문소

미국에서 멕시코로 나갈 때는 그렇게 쉽게 나갈 수 있지만, 티후아나 관광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사정이 달랐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돌아 들어올 때는 그렇게 쉽게 들어올 수가 없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미국 측 검문소에는 긴 차량행렬이 늘어서서 입국 검문을 받아야 한다. 차례가 되

어 검문소 옆에 차를 대면 이민국 검문관이 가까이 와서 신분증을 요구했다. 그래서 신분증의 사진과 본인의 얼굴을 대조해 보고 확인을 한 후에 통과를 시켜 주었다.

이 분들이 거기서 걸리셨던 것이다. 멕시코로 나가실 때 별 어려움이 없었으니 돌아올 때도 그럴겠지 하고 생각하셨던 것이다. 막상 국경을 통과하려는데 이민국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했다. 동서 되는 그분이야 문제가 없는데 동행자는 영주권도 없고 여권도 없으니 탈이었다. 한사람은 미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나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미국 국경 검문소

서툰 영어로 사정을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입국 거부를 당한 것이다. 하는 수 없이 두 분은 미국 입국을 포기하고 차를 돌려서 다시 티후아나로 돌아가, 일단 가까운 곳에 있는 호텔에 방을 얻어 들어가서 전화를 하셨던 것이다. 전화를 받고나니 참 황당했다. 이를 어쩐단 말인가? 참 난처한 일이었다. 알아서 돌아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뽀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옆집에 사는 친구와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하다가, 우리 내외 그리고 그 친구 내외 네 사람이 함께 가기로 했다. 일단 티후아나로 들어가서 다시 생각을 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 네 사람이야 모두 미국 영주권이 있으니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밤중에 멕시코로 향했다. 밤 열시 좀 넘어서 로스엔젤레스를 출발해 두 시간 쯤 달려 티후아나에 도착했다. 두 분이 호텔방에서 초조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셨다. 서로 인사를 하고 대책을 생각하는데 별 신통한 수가 없었다.

한참 고심을 하는데 친구의 아내가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했다.

우리는 모두 그녀를 쳐다보고 무슨 말을 하려나 했다. 그녀의 생각을 들은 우리는 즉각 행동에 옮겼다. 내 아내

와 친구의 아내를 호텔에 잠시 머물러 있게 하고, 친구는 운전을 하고 내 손위 동서는 그 옆에 앉고, 나와 내 처형은 뒷좌석에 앉은 채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입국 검문소로 차를 몰았다. 검문소 옆에 차를 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민국 직원이 다가오더니 신분증을 보잔다. 앞에 두 분, 아무 문제없고, 뒤에 두 분은?

차 안이 그리 밝지 않았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나와 내 처형도 영주권을 내어 밀었다. 내미는 영주권을 받아서 한번 보고는 차 안으로 시선을 돌려 뒷좌석을 둘러보던 이민국 직원이, 영주권을 돌려주면서,

“패스!”

하고 통과시켜 주었다. 새벽 한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검문소를 통과해 미국으로 들어와서, 가까운 주차장에 두 분을 내려놓고 잠시 기다리시라고 하고, 친구와 나는 처형이 가지고 나온 내 아내의 영주권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반대편으로 돌아서 멕시코 국경으로 차를 몰았다. 역시 들어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는 쏘살같이 티후아나 호텔로 가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의 아내와 나의 아내를 데리고, 자동차 두 대에 두 사람씩 나누어 타고, 다시 미국 입국 검문소로 향했다. 우리 네 사람은 모두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니 아무 문제가 없을 수밖에!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검문소에서 기다리는 차량들

그렇게 해서 무사히 멕시코를 탈출해 로스엔젤레스로 돌아왔다. 친구의 아내는 내 아내와 내 처형의 얼굴이 아주 많이 닮아서, 사진으로 열핏 보아서는 잘 분간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정말 황당하고도 아찔했던 멕시코 탈출 작전이었다.

다 걷어치우고

그렇게 한 달쯤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으로 돌아왔다. 회사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20여명 있었는데, 그중 반이 한국인이고 반은 히스페닉(Mexican)이었다. 몇 명 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 말이 통하고, 표정만 봐도 대충 무슨 말 하려는지 아는 사이니, 퇴근 후면 자연스레 삼삼 오오 짝을 지어 저녁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러 가기도 하고 그랬다.

그 당시 자주 들리던 곳은, 로스엔젤레스 시내 버몬트(Vermont)길의 8가와 9가 사이 서쪽에 있던, 좌석이 한 20여개 되는 ‘수정’(水晶)이라는 조그만 한식집이었다. 하도 자주 가다보니 주인과 한 식구처럼 되어 허물없이 지냈던 기억이 있다. 지금은 그곳에 다른 상점이 들어서 있고 그 식당은 없어진지가 오래 됐지만, 요즘도 가끔 그 길을 지날 때면 그 자리를 한 번씩 바라보곤 하는데, 그럴 때면 지금은 헤어져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 때 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한다. 이민 초기 어렵던 시절에 서로 의지하며 돕고 지내던 정다운 사이였는데.

그 때나 지금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다니던 회사도 사정이 펍 좋지 않았다. 한인이 하는 제조업이

래야 소규모인데다가,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종업원들의 봉급을 제 때에 주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렇게 되자 자연히 종업원들 사이에 불만이 싹트게 되었고, 사장과 종업원의 사이도 전 같지 않게 어색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다. 마침 매니저로 일하던 미국인이 회사를 그만 두고 나가게 되자, 내가 졸지에 그 감투를 쓰게 되었다. 봉급도 조금 올려 주었다. 회사로서는 다루기 힘들고 급여만 많이 나가는 미국사람이 스스로 나가주니 좋았고, 말 잘 듣고 월급 덜 주어도 되는 이민 초짜 한국 사람에게 맡겼으니, 세상말로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둔 셈이었을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종업원의 월급을 주지 못하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눈치를 보니 사장은 어떻게든 인건비를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날인가 휴식시간이 되어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났다. ‘그래, 내가 그만 두자! 그게 사장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겠지. 직장이야 또 구하면 되지! 무슨 구처가 나겠지!’결심을 하고 사장을 찾아가 말했다.

“사장님, 아무래도 제가 일을 그만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일을 좀 해보려구요.”

사장은 내 말을 듣고는,

“아니 왜 그러시오. 어렵지만 좀 참고 함께 지냅시다. 어떻게든 내가 잘 해볼게요.”

나는 이미 결심이 섰기에 계속해서 말했다.

“아닙니다. 저도 이제 다른 일을 좀 해보아야 하겠구요. 회사는 회사대로 경비 절감을 하셔야 할 거구요. 그러니 제 사표를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는 꾸벅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사장실을 나왔다. 아무 대책 없이 사표를 내고 나왔으니 이제 어찌해야 하는가? 아름 아름을 통해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던 중에 이민 선배 한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전자 공학과 관련된 일자리가 났는데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다. 그래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내게 해 준 사람이, 내가 이민 올 때 나를 공항에서 마중해 데리고 온 친구의 아내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 친구가 하고 있는 일도 그리 확실한 직장이 아니라, 어디 좀 든든한 직장이 없을까 하고 찾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그런 일이 생기게 되자 그 친구 아내의 마음이 좀 섭섭한 눈치였다.

나는 또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저 친구 아내가 저렇게 섭섭해 하는데.’ 며칠 생각을 하다가 소개(紹

介)해 준 사람에게 말했다.

“고맙기는 한데요, 저 거기 안 갈래요. 암튼 맘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왜 그러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친구의 마음에 앙금을 남기면서 나 좋다고 내 갈 길만 갈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렇게 또 몇 달이 속절없이 훌쩍 지나갔다. 어느 날 내게는 한분뿐인 손위 동서(同壻)가 미국에 사업관계로 오셨다. 그는 한국 서해안에서 조개 양식 사업을 하고 있었다. 쥐꼬리만 한 월급생활 가지고는 안 된다면서 뭐든 장사를 한번 해 보라는 것이었다.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 그 말도 맞을 것 같았다. 그래서 뭐든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한번 해 보리라 마음을 먹고, 신문 광고를 뒤적이다가 조그만 가방가게를 판다는 광고에 눈이 갔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아주 운영하기 쉬운 가게라는 것이다. ‘자! 그럼 직장 찾는 거 다 건너치우고 저걸 한번 해 봐?’

국물도 없다

그렇게 해 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래서 신문 광고에 난 대로 전화를 걸어 주소를 확인하고 찾아갔다. 미국에서 유일한 전체 상업도로인 월셔(Wilshire) 길에 있던, 주로 여성용 핸드백을 파는 조그만 가방 가게였다.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선(修繕)도 해주는 그런 가게였다.



Wilshire 거리 주변의 모습

손재주는 좀 있는 편이고 하니 큰 자본(資本)이 들지 않는다면 해볼 수 있을 같았다. 조금 가지고 있던 돈에 은행에서 빌린 돈을 보태서 가게를 인수했다. 생애에 처음으로 장사라는 걸 해보게 된 것이다. 매상이 많지 않으니 사람을 쓸 수도 없고 그저 혼자 붙어있어야 하는 가게였다.

줄지에 여성용 가방 전문가로 변신을 하게 된 것이다. 팔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다. 손님이 주로 하얀 미국 할머니 아니면 검은 미국 할머니들이었다. 본래는 미국사람이 하던 곳인데 한 사람 두 사람 건너서 나에게까지 온 것이다. 별로 비싸보이지도 않고 오래 사용해서 낡은 가방을 수선해달라는 사람들도 꽤나 많았다. 요즘 명품 족들이 보면 더럽다고 고개를 돌릴 법 한 것들을 저들은 잘도 들고 다니고 있었다.

손님이 들어오면 나갈 때까지 함께 옆에 있어야 한다. 체형에 맞는 것을 골라주기도 하고 묻는 말에 대답도 하고 그러면서 고객과 함께 움직여야 했다. 그렇다고 들어온 손님이 매번 물건을 사가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다 보면 돈은 들어오지 않고 시간만 흘러서 점심 먹을 시간이 된다. 가게 뒤에 있는 수선실에 전기 곤로를 놓고 가끔 라면을 끓여먹곤 했다. 혼자 하는 일이니 그것도 손님 없을 때를 잘 맞추어야 했다.

몇 사람 다녀가고 나면 한동안 뜸한 시간이 있다. 그러면 얼른 수선실로 들어가서 냄비에 물을 끓인다. 그리고 라면 봉지를 뜯어서 물이 끓기를 기다린다. 그런데 물이 끓어 라면을 넣으려고 하는 순간 덩~동~! 하고 벨이 울린다. 가게 안으로 사람이 들어온 것이다. 그러면 얼른 하던

일을 중단하고 가게로 나가서 손님을 맞아야 한다. 한참 이것저것 고르다가, 'Thank you, I will be back !' 하고 나간다. 그러면 닭 쫓던 개 울 넘어보는 심정으로 문 열고 나가는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라면 끓이러 들어간다.

아썩썩! 물이 반으로 줄었네! 다시 물 더 붓고 끓을 때까지 기다린다. 드디어 물이 끓는다. 얼른 뜬어놓은 라면을 스프와 함께 끓는 물에 털어 넣는다. '손님아 제발 조금 있다가 와다오!' 하면서.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 라면이 반쯤 익어 가는데 덩~동~! 안 나갈 도리가 없다. 얼른 불을 줄이고 나가서 손님을 맞이한다. 살 것이 없으면 제발 빨리 좀 가주시지, 눈치 없이 가게 안에서 계속 몇 바퀴를 돈다. 그리고는 역시 아무것도 안사고 '안녕!' 이다. 손님 내 보내고 다시 라면 냄비 앞으로 가 보니, 면은 다 불고! 냄비가 나보고 하는 말,

“국물도 없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

평생 처음으로 시작해본 가방장사, 별 재미가 없었다. 한 2년 버티다 보니 허구한 날 국물도 없다고 투덜대는 라면 냄비 보기도 싫고, 혼자서 하루 종일 지내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돈벌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만 정리해야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막상 정리하려니 집어넣은 돈 본전도 못 건지게 생겼다. 그러니 어쩌겠는가? 가게 안에 남아있는 물건 값이라도 받고 넘기는 수밖에. 그나마 그렇게라도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다행이라 생각이 되었다. 장사해서 돈을 벌기는커녕 조금 있던 것마저 모두 까먹어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부동산 중개사 면허를 따기 위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당시에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거리에 있던 한인이 운영하는 부동산학교에 등록을 했다. 그 당시만 해도 한인 부동산 중개 사업을 하는 이가 그리 많지 않을 때였다. 6개월쯤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했다. 드디어 나도 복덕방(福德房)쟁이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부동산학교를 운영하는 사무실에 면허를 걸어놓고 일을 시작했다. 막상 시작을 해 보니 그것도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경험도 없는 초짜에게 누가 거래를 맡기겠는가? 아무래도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일감을 주어야 하는데, 마당밭이 아닌 나는 주위에 그런 일감을 줄만한 이웃이 없었다. 한 일 년 수입 없이 보내다가 그래도 겨우 한건이라도 성사(成事)가 되면 다행이었다. 그러니 그 일도 최소한 일 년 먹을 양식 정도는 준비를 해 놓고 시작해야 하는 일이었다.

웃기는 것은 그 상황에서 골프를 배우란다. 하루는 동료 직원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점심을 먹고 나더니 나보다 한참 나이가 위신 분이 자기 차에 나를 태우고 어디론가 데리고 갔다. 차를 세우는데 보니 골프 연습장이었다. 자동차 트렁크에서 골프가방을 꺼내어 둘러메고 연습장으로 가면서 따라오라는 것이다. 그러더니 7번 아이언과 연습 공 한 바구니를 주면서 자기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 보란다. 그렇게 골프 연습을 했다.

그 일을 하는 동안 사람은 참 많이 만났다. 잔뜩 일만 시키고 정작 거래는 탄 사람 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래도 싫은 내색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언제 중요한 고객이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한 2년 그 일을 하며 지냈다. 그 바람에 로스엔젤레스 주변 지리는 거의 머릿속에 입력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모두들 자동차에 달고 다니는 네비게이터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는데 집안 경제 사정이 점점 어

럽게 되어갔다. 저축이고 일반 계정이고 은행잔고는 모두 바닥이 들어나고 있었다. 한국에서 온 한 친구가 사업체를 구입하겠다고 하기에, 여기 저기 정보를 수집해 자동차 뒷자리에 태우고 돌아다니는데, 문득 내 꼴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에 온지도 벌써 5,6년이 지났는데 이루어 놓은 것은 하나도 없고, 수중에 여윌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는 판에, 돈 보따리 싸들고 좋은 사업 사겠다는 친구를 자동차에 싣고 동서남북을 누비고 다니자니, 서글픈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한 두주 후면 당장 식료품 구입할 돈도 없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런 생각을 하며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눈앞이 뿌옇게 흐려져 왔다. 나도 몰래 울컥 하면서 눈물이 고였던 것이다. 내 신세가 이게 무슨 꼴인가? 마침 썬 글라스를 쓰고 있었기에 망정이었지, 하마터면 그 꼴을 친구에게 들킬 뻔 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보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던 나에게 생각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 뒤에 예비된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상황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가치(價値) 있는 재산

이민 생활 한 7년쯤 되던 해였다. 잘 아는 한 분이 미니 마켓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2년 하다 보니 규모가 너무 작아서 마음에 차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규모가 좀 큰 마켓을 인수하기로 했다. 지금 하고 있는 조그만 마켓을 팔아서 넣어야 하게 되었다. 그것도 일시불로 팔아야 하게 되었다. 권리금이 약 10만 불에 재고 까지 합하면 전체가격이 13만 불 쯤 되었다. 그 가게를 12만 불에 넘길 터이니 나보고 한번 해 보라는 것이다.

게다가 매매가 끝날 때 까지 기다릴 것 없이 돈만 되면 내일부터라도 바로 인수해서 운영을 하라는 것이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걸 인수해서 운영을 하면 그날부터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현금이 들어올 것이고, 자칫하면 장님 제 달 잡아먹기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런대로 우선 식생활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었다. 그걸 해서 돈을 벌게 될지 어떨지는 별개문제였다. 그보다는 당장 12만 불이나 되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하는 것이 걱정이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몸밖에 없는데. 그날 하루 종일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봤다. 어떻게 할 것인가?

별로 실적은 없어도 부동산 중개인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 그 때 로스엔젤레스 남쪽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교인 중 한분이 한국에서 공부하러 오면서 돈을 좀 가지고 온 것이 있어서, 그걸 은행에 넣어 두고, 혹 누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면 사업체를 담보로 해서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생활을 하고 있었다. 당연히 나와도 연결이 되어서 고객 중에 사업자금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곤 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다른 사람에게 소개만 해 줄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돈을 좀 빌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났다. 그래서 날을 잡아 그 분에게 말을 했다.

사정 설명을 다 하고 나를 믿으실 수 있으시면 6만 불만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안 돼도 그만이지 어찌겠는가. 나를 믿어 주면 좋고 못 믿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시쳇말로 이판사판이다.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그분이 말했다.

“제가 집사님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염려 마시고 가져다 쓰세요. 단, 기간은 일 년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돈도 돈이지만 나를 믿어준다는 사실이 너무도 고마웠다. 누군가로 부터 '당신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어요?' 하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매달 정한

대로 이자도 꼬박 꼬박 드릴 것이고, 일 년 내에 반드시 원금을 갚아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제 나머지가 문제였다. 이튿날, 6만 불짜리 보증수표를 들고 한국계 은행으로 찾아갔다. 사업체 구입자금으로 12만 불이 필요한데 6만 불이 부족해서 그러니, 사업체를 담보로 하고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다. 담당직원이 이리저리 계산을 해 보더니, 50%를 다운페이하기 때문에 사업체 용자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며칠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보이지 않는 손길이 등 뒤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속에서 감사의 기도가 나왔다. ‘아, 이제 밥 먹는 문제 하나는 해결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 주간에 그 미니마켓을 인수해 운영을 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아찔한 순간들이었다.

이민초기에 이민 선배가 들려주던 말이 생각났다. ‘아무도 믿지 마세요! 믿을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만은 않았다. 믿어도 되는 사람이 있었고 믿어주는 사람도 있었다. 그 믿음의 관계가 때로는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배웠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도 가치 있는 재산이다.

믿을 사람이 없다고?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을 데리고 동네 목욕탕엘 갔다. 아버지는 샤워를 하고나서 열탕(熱湯)에 들어가 몸을 담구고 앉으면서.

“아이구 시원하다!”를 반복했다.

아들이 샤워를 하고나서 열탕이 있는 곳으로 와서 물었다.

“아버지, 그렇게 시원해?”

“그래 이놈아 너도 한번 들어와 봐라!”

아버지의 말을 철석(鐵石)같이 믿은 아들놈은, 앞뒤 가리지 않고 열탕 속으로 펄떡 뛰어 들어갔다. 순간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다. 아들놈은 불이 날게 뛰어나오며 소리를 질렀다.

“아이구!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유머 ‘철수 시리즈’ 증의 한 부분(部分)이다.

이민을 와서 아파트 정하고 직장 구하고, 조금은 어색하나마 하나 둘 이웃을 사귀고 그렇게 차츰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을 먹고 난 후 친구와 함께 그의 형님 댁을 방문했다. 다과(茶菓)를 나누며 이런 저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대화를 주도해 가는 이는 주로

이민 대 선배인 그 형님 내외였다. 우리는 새까만 이민 후배이니, 선배가 일러주는 이민생활의 노하우를 주의해서 귀담아 듣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런 중에 그 선배가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약간은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민자들은 대부분 자기를 숨기고 산다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서로 속을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 그러므로 사람을 쉽게 믿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었다. 한 술 더 떠서, 누구에게 돈 빌릴 생각도 하지 말고 빌려 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한사람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밤이 늦도록 놀다가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날 저녁 잠을 청하며 누워서 한참 생각을 했다. 과연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아니 그렇게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것일까? 살다 보면 더러는 믿는 도끼에 발이 찍히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산다는 말인가? 그럼 사람이 짐승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미국사람들은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방에서 함께 사는가? 별 생각이 다 났다.

사람 사는 것이 서로를 믿어 주고 서로 정을 나누며 살

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웃과 함께 서로 믿고 살았는데. 어려우면 빌리기도 하고 여유가 있으면 빌려 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 사람 사는 세상 아닌가? 그런데 왜 여기서 안 된다는 것일까?

서로 좋은 이웃으로 지내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힘이 들 때 서로를 손잡아주며 함께 위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길이 아닌가? 되돌아보니 참 많은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고 살았다. 참 여러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았다. 서로를 더 믿어 주고 서로를 더 아껴 주고, 서로 더 사랑하며, 그렇게 남은 날들을 살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일 것이고 그런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일 것이다.

보험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비즈니스라고 하기는 하는데 워낙에 규모가 작아서, 둘이 붙어 일을 해도 그리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다 보니 건강보험을 들 여유가 없었다. 어느 날 아내가 아프다고 했다. 혈변(血便)이 보인다고도 했다. 한인 의사를 찾아가서 무슨 일인지 진단을 좀 해 달라고 했다. 의사 선생님은 우선 방사선(X-Ray)검사를 해보자고 했다. 촬영실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그 결과를 판독하고 난 의사가 말했다.

“신장 쪽에 검은 콩알만 한 점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그게 악성 종양 같습니다. 그것 때문인 것 같으니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입장이 난처했다. 수술비가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건강보험도 없는 처지에 수천불이나 되는 수술비용을 어떻게 충당한단 말인가? 우리는 잠시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의사 선생님께 말했다.

“수술이 급한가요?”

의사 선생님은 그리 급하게 서둘지는 않아도 되지만, 되도록 빨리 하는 것이 좋으니 준비가 되면 다시 찾아오라고 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 고심을 하던 끝에 우선 건강보험을 먼저 들기로 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보험을 들고 6개월만 지나면 수술비를 보

험회사가 지불해 준다고 했다. 그래서 우선 보험을 들고 수술은 7개월 후에 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이다.

마침 가까이 지내는 교회 교우 중에 보험 에이전트가 있어서 그에게 부탁을 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를 시키면 30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한 달을 기다렸다. 그런데 돌아온 소식은 우리를 슬프게 했다. 보험 가입이 거절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보험가입 신청을 하기 직전에 병원에 갔던 기록 때문이었다. 당초에 보험회사를 어수룩하게 본 것이 잘못이었다. 그러니 어찌겠는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둘이서 며칠간 한숨만 쉬고 있는데, 하루는 이웃하고 지내는 친구가 우리에게 말했다.

“다른 의사에게 한 번 더 진찰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지 그래!”

그래서 다음 날 다른 의사를 찾아갔다.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먼저 찍은 방사선 검사 사진을 좀 보아야겠다고 해서, 전번에 갔던 의사 사무실로 가 사진을 찾아다가 주었다. 사진을 벽에 걸어놓고 한참 살펴보던 의사가 말했다.

“수술해야 한다고 한 사람이 누구니까?”

“왜 그러세요?”

“부인의 질병은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을 잘못 찍고 잘못 읽었어요. 도대체 누가 수술을 해야 한

다고 했습니까?”

내가 말했다.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면 됐지요.”

진찰 결과는 신장에 염증이 조금 있어서 그러니 한 일주일 정도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항생제 처방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약방에 가서 의사가 처방해 준 약 사다가 일주일 먹고 말끔히 나았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건강보험 들지 못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컨드(Second) 오피니언(Opinion)

서울하고도 강남 상도동에 살고 있을 때였는데, 하루는 강북으로 일을 보러 들어갔다가 오후 퇴근 시간에 시내버스를 이용해 돌아오게 되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 시간에 버스 타기가 전쟁이었다. 버스 정류소에서 기다리다가 버스가 오면 차가 채 서기도 전에 얼른 올라타야 한다. 어물어물하다가 가는 다른 사람에게 새치기를 당하고 버스가 떠나버리는 일도 종종 생긴다. 워낙 콩나물 버스라 입석도 쉽지 않은 때였다. 가까스로 버스 출입구 계단에 발을 올려놓으면 차장아기씨가 뒤에서 승객의 엉덩이를 두 손으로 밀어 만원버스 안으로 들여 밀면서 ‘오라이!’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떠나는 일이 흔하게 있었다.

그날 나는 오후 5시쯤 서울 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가 서는 곳과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사이에 드럼통을 잘라 펴놓은 것처럼 생긴 철판을 50cm 정도 높이로 세워 분리대를 만들어 놓았다. 내가 마침 그 분리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서서히 다가오더니 내 앞에서 멈추어 섰다. 옆으로 돌아가기도 뭣하고 해서 왼발을 들어 올려 그 철판을 밟고 올라서면서 오른발을 앞으로 내미는 순간 몸이 중심을 잃고 앞으로 엎어지고 말았다.

그 통에 왼쪽 다리 정강이 한 가운데가 철판에 가로로 떨어지면서 세계 부딪쳤다. 조금 아프기는 했지만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기도 하고 해서 얼른 일어나 쏜살같이 버스 승강구로 밀고 들어갔다. 차는 만원이었다. 가까스로 사람들을 헤집고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버스 천장에 달려있는 손잡이를 잡고 매달려 섰다. 그렇게 얼마쯤 가는데 왼쪽 정강이에 찬물이 흐르는 느낌이 왔다.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서서 몸을 구푸려 볼 수도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가만히 왼쪽 바짓가랑이를 들어올렸다. 그리고 눈을 아래로 하여 무슨 일인가 하고 보았더니 정강이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천이 꽤 두꺼운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도 워낙 세계 부딪친 모양이었다. 그러니 그 상황에서 어찌겠는가. 들어 올렸던 바짓가랑이를 도로 내리고 그대로 있을 수밖에.

그렇게 30여분이 지나서 집으로 돌아온 나는 평소 하던 습관대로 응급처치를 했다.빨간 약 바르고 조그만 거즈 한 장 붙이고 반창고로 감아두었다. 조금 아프기는 해도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서 이제 다 나았으려니 하고 상처를 살펴보았더니 이게 웬일. 상처가 아물지 않고 피가 뭉친 채 찢어진 살이 그대로 있는 것이었다. 다음날 아내가 근무하고 있는 고려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기로 하고 시간을 정해서 시내로 들어가 병원으로 갔다. 그 병원 외과 과장님이란 분을 만나 상처를 보여주

고 상담을 했다. 몸집이 꽤 뚱뚱한 편으로 조금은 거만한 느낌을 주는 인상이었다.

내 다리의 상처를 한 번 살펴보더니 파란색 매직펜으로 상처 주변에 선을 그려놓고 말했다.

“이거 상처가 아주 깊습니다. 그냥 두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잘 왔어요. 바로 수술을 해야겠어요.”

그 소리를 들은 나는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할 말을 잊은 채 의사 선생님을 멍하니 쳐다 보고 있었다. 그랬더니 그가 몇 마디 더 보탰다.

“왜 겁나세요? 그리 큰 수술은 아니니 겁내지 마세요. 하지만 만약 수술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어떤 환자 한 분은 이와 비슷한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두었다가 다리를 잘랐습니다.”

나는 점점 더 겁이 났다. 그래서 물었다.

“언제 수술을 해야 하지요?”

그가 대답했다.

“사흘 뒤에 내가 일정을 잡아놓겠습니다.”

그날 나는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겁만 집어먹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회사에 출근을 해서도 그 일이 걱정이 되어 하루 종일 편지 않은 마음으로 지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난 후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명동에 있는 성모병원에 먼 친척 조카가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생각났다. 회사에 외출을 요청하고 성모병원으로 갔다. 외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처를 보여주었다. 그는 내 다리의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처음에 바로 치료를 잘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환부가 감염이 되었네요. 오염된 부분을 잘라내고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상처 주위가 조금 쭈시고 아픈데 수술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가 대답했다.

“그럼 우선 방사선(X-Ray)사진 먼저 찍어보지요. 뼈에 금이 많이 갔으면 수술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 놓였다.

나는 그 의사가 알려주는 대로 방사선 검사실로 가서 사진을 찍고 필름을 받아서 다시 돌아와 의사에게 전해주었다. 그는 필름을 벽에 걸어놓고 한참 들여다보더니,

“다행히 뼈에는 아무 이상이 없네요. 한 일주일쯤 항생제 드시면 나을 겁니다.”

수술용 가위로 감염된 피부를 조금 잘라주고 약을 바르

고 붕대로 감아주었다. 그리고 새로 나온 좋은 약이라며 ‘암피시린’이라는 항생제 일주일분을 처방해주었다. 나는 병원 안에 있는 약국으로 가서 약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일주일 후에 상처가 말끔히 나았다. 세컨드 오피니언 (Second Opinion) 꼭 필요한 것이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날까?

어느 날, 뭘 좀 살 것이 있어서 로스앤젤레스 한인 타운에 있는 한국마켓에 들렀다. 과일을 고르느라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흰 반소매 셔츠에 흰색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턱에 시커먼 수염이 덩수룩한 남자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 분명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라 슬금슬금 다가갔다. 그 사람도 누가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나와 그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다가 눈이 동그래졌다.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큰 소리로 외쳤다.

“야 이거, 너 박OO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냐?”

“야, 너!”

그 친구는 나와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었다. 그것도 한반에서 같이 공부를 했고, 한집에서 같이 하숙을 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 년쯤 지난 후부터 통 소식을 몰랐었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이다. 마켓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데 자기 아내가 우유 한 개 사오래서 마켓에 왔다는 것이다. 그와 나는 한 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가까운 친구로 지내고 있었다. 방학이 되면 서로 친구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연보랏빛 라일락이 흐드러지게 피는 봄날 이른 저녁에는, 학교 뜰에 엄청 많이 피어있는 라일락꽃 가지를

꺼어들고 거리로 나가서, 지나가는 여학생들에게 한 가지씩 나누어주기도 하고.

그 때 그 친구에게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예쁜 여동생이 있었는데 나는 그 친구를 보고 ‘내가 니 매부하면 안되겠냐?’ 하고 조르기도 하고. 암튼 그런 사이였는데, 서로 소식을 모르고 지난지가 20여년이 지나서, 그것도 우연히 마켓에서 만났다. 옛 어른들의 말씀에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만난다더니, 그 말이 맞기는 맞는가보다.



교정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라일락

그 친구와 나 사이에는 지금까지 이 세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다. 이제는 털어놔도 되지 싶어서 털어놓는

다. 지난 글에서 이미, 40일 정학사건으로 일류대학 진학의 꿈이 물 건너간 이야기를 했다. 3학년 1학기 학기말 시험 성적으로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추천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은근히 뿔이 났다. 그래서 그 친구보고 말했다.

“야, 나는 이미 틀렸으니 너나 대학 갈 준비해라.”

그 친구는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느냐는 듯이 웃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이번 학기말 시험은 너하고 나하고 바꾸어 본다. 그러면 너는 아무소리 말고 시험답안지에 모조리 내 이름 써서 내라. 나는 틀렸으니 너라도 추천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 친구도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학기 나의 시험 성적은 엉망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 결국 우리 둘이는 아무도 추천을 받지 못했다. 3학년 2학기 말에 우리는 대학입학 국가고사를 치러야 했고, 그 성적을 가지고 이듬해 나는 진학을 했지만 그 친구는 한 해 늦게 대학을 갔다. 그리고는 소식을 몰랐었는데, 그 친구는 대학을 마치고 직장 파견을 받아 이란(Iran)으로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다. 호메이니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란의 형편이 좋지 않아 호주로 떠났다가, 마침 그 친구 아내가 가지고 있는 간호사 자격증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던 것이다. 참 사람의 일이란 모를 것이다.

하나 더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또 한 10여년 후 어느 주일 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웬 몸이 좀 무게가 있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중년 부인이 내게로 와 인사를 하고 나서 내게 물었다.

“저…송OO씨 아시지요?”

하는 것이었다. 송OO는 고등학교때 한반에 있던 동창생이니 내가 모를 리 없다. 나는 대번 그녀가 누군지 알았다.

“아 그럼 박OO씨?”

나 매부 삼으라고 졸라댔던 그 친구의 여동생이었다. 결혼해서 호주로 이민을 가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잘 살았는데, 몇 해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사람이 이렇게도 만나는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살아 있는 동안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아 있노라면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친구를 잃기보다는

이민 초기, 나름 열심히 살았다. 가까이 지내는 친구 일곱 가정이 5천불짜리 계(契)를 만들었다. 각 가정이 한 구좌씩 들고, 남는 구좌 다섯은 공동 구좌로 해 기금을 모으기로 했는데 한 가정이 자기들은 세 구좌를 책임지겠다고 한다. 그 가정이 세 구좌를 들고 남는 세 구좌를 공동 구좌로 했다. 시간이 흘러 공동구좌 재산이 3만 5천 불이 되었다. 로스앤젤레스 중심 상가인 윌셔(Wilshire)와 윌튼(Wilton) 코너에 있는 미니 쇼핑몰을 10만 불 정도면 살 수 있었다. 모여서 의논을 했다. 일곱 가정이 만 불씩 투자 하고, 공동구좌 자금 삼만 오천 불을 합치면, 그 상가건물을 구입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 모두들 그걸 시작으로 큰 자산을 만들 꿈에 부풀었다. 상가 건물을 구입하면 관리는 누가 맡아서 해야 하나 상의한 끝에, 이민연조도 가장 오래고,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내가 적임이라는 결론이 났다.

그렇게 한참 꿈에 부풀어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세 구좌를 들고 있던 친구가 곤란한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은 자기가 한 구좌를 들고, 자기 아는 사람이 두 구좌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미 두 번 갯돈을 타 먹고 사라졌다는 것이다. 다른 친구들은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

라 만나본 일도 없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 사고를 낸 장본인은, 사고 난 두 구좌를 나머지 사람들이 공동으로 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타먹지도 않은 돈을 물어내야 한다니 불만이였다. 며칠간 곰곰 생각을 했다. 흔히 동업하다 싸운다는데, 자칫하다가는 돈 문제 때문에 가까운 친구 사이에 틈이 새길까 걱정이 되었다.



하루 날 잡아 모두 우리 집으로 모이게 해서 저녁을 함께 먹은 후 말했다.

“우리 이 계(契)를 여기서 끝내는 것이 좋겠네. 잘못하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게 생겼어. 친구를 잃는 것 보다는, 돈을 잃는 것이 낫지 않은가?”

모두 합의해서, 공동자금은 균등 배분하고, 부어넣은 각자의 몫은 돌려주고 계(契)를 끝냈다. 크게 돈은 벌지 못했지만, 우정(友情)은 변하지 않고 살았다.

6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불혹(不惑)의 나이에

절대(絶對) 절명(絶命)의 자리에서 나를 구해 준 그 미니마켓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저녁 11시에 문을 닫았다. 워낙 규모가 작아 종업원을 두고 할 수는 없어, 나와 아내가 시간을 나누어 가게를 지켰다. 아침 일찍이 내가 나가서 문을 열고 저녁에는 같이 문을 닫고 들어왔다. 일 년 삼백 육십오일, 쉬는 날도 없었고, 그렇다고 일 년 일하고 휴가를 가질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 참 피곤한 하루 하루였다.

매상이 작아서 수입이 별로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밥은 굶지 않았다. 빌린 돈 갚고 가게 임대료 지불하고 하다 보니 여유가 없었다. 그런 형편이니 은행에 잔고가 쌓여 있을 턱이 없었고, 은행에서는 사흘이 멀다 하고 입금 독촉을 했다. 어찌됐던 그 덕분에 몇 해 잘 살았고, 빌린 돈도 갚고 은행 좋은 일도 하고 그랬다. 그렇게 3년이 지난 1984년 봄, 그때 내 나이 마흔 살, 불혹(不惑)을 맞이한 때였다. 불혹이면 웬만한 일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하는 나이였다. 그런데 조용한 시간이면 자주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정말이 길로 계속 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쯤에서 이 생활을 접고 다른 길을 가야 하는가? 뭔가 다른 길을 찾으려면

더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한동안 그 일로 곰곰 생각을 했다.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지 않고 좀 든든한 뿌리를 내리려면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았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고 보니 또 다음 문제가 생겼다. 그럼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할 것인가? 지난날을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보니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었다. 하나는 대학 학부시절에 전공을 했던 법학(法學)을 다시 공부해서 법조계로 가는 길ियो,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의 직장생활 7년 동안 익힌 기업회계(企業會計) 경험을 살려서, 경영경제학을 공부해 공인회계사 쪽으로 가는 길이었다. 둘 다 가능성이 있는 일이었다.

어느 쪽을 택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엉뚱한 생각이 들어왔다. 대학을 다닐 때 할아버지께서 ‘검사(檢事)나 판사(判事)는 하지 마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고 직장생활 7년 동안 경험한 기업의 부정부패(不正腐敗) 등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리고 또 생각했다. 나에게 가족이라고는 달랑 아내 하나뿐이다. 그런데 두 식구 잘 먹고 잘 살자고 그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하기야 열심히 공부해 훌륭한 판검사(判檢事)가 돼서 가문의 영광이 되거나, 유능한 공인회계사가 되어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고 돈도 벌고 하면 그것도 좋은 일일 것이다. 그런데 어

찌 된 일인지 그 길로 가려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싶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상한 경험을 했다.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잠간 눈을 붙이고 잠이 들었는데 집에 불이 났다. 황급히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집 밖으로 나가는데, 밖이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런데 내가 나가는 길 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셀 수 없이 많은 파란 빛의 촛불이 내 발길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다. 이상한 일도 다 있다 생각하며 걸어 나와서 뒤를 돌아보니 집은 활활 불타고 있었다. 무언가 손에 들고 있는 것 같아서 고개를 숙여 보았더니 내 오른 손에 성경이 들려 있었다. 들고 나와야 할 뭔가가 있었을 터인데 왜 달랑 성경 한권만 들고 나온 것일까? 참으로 이상한 꿈이었다. 어째서 그런 꿈을 꾸었을까?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또 한 꿈을 꾸었다. 어떤 예배당 안에 서있는데 얼굴이 보이지 않는 한 덩치 큰 사람이 나를 두 팔로 감싸 안더니, 내 옆구리에 입을 대고 빨기 시작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아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한참을 그렇게 붙들려 있는데 옆구리에 시원한 느낌이 왔다. 무언가가 쭈욱 빠져 나가는 느낌이었다. 세 번 그런 느낌이 있었고, 실체를 알 수 없는 큰 덩어리 세 개가 빠져나

갔다. 그리고는 꿈을 꺾었다. 기분이 아주 상쾌했다. 그런 일을 겪고 난 후 생각해보니 나에게 분명 다른 길이 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요한1서 2장 16절) 그런 것들과 상관없는 공부를 하려면 신학교(神學校)를 가야 했다. 그것이 돈 버는 일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 생각되었고,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인 것 같았다. 나에게 돈이 잘 붙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터였다. 한국에 있을 때도 둘이 맞벌이를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주머니는 늘 비어 있었다. 그건 미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였다. 억지로 채우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나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 돈을 벌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찾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서 내가 찾고 누리게 될 그 모두를 미리 거두어 가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보여 주신 것으로 믿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이민 올 때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신학교에 등록을 하게 되었다.

그날 밤 그 고갯길에서

학교 수업은 야간에 있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 매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였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가게에 매달려 있다가 좀 일찍 저녁을 먹고, 아내 혼자 가게를 보게 하고는 차를 타고 학교로 갔다. 온 종일 피곤해진 몸에 급히 저녁을 먹고 차에 올라 운전을 하다보면 어김없이 졸음이 왔다. 밖은 어둡고 퇴근시간이라 통행 차량이 편도 6차선 고속도로에 빼곡히 들어서 있다. 게다가 가는 속도가 느리니 졸음이 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떤 때는 머리에서 얼음판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서 정신을 버쩍 차리고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한참을 달려와서 서있는 것이었다. 등골에서는 진땀이 흘렀다. 그리고 나면 자동으로 입안에서 감사의 기도가 나왔다. 무슨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중에, 405번과 110번이 만나기 조금 전에 그 지역을 통과하는 화물차량의 무게를 재는 곳(Weight Station)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조금 일찍 출발을 해서 가다가 그 곳으로 들어가, 주차장 한 쪽에 차를 세워 놓고 2-30분간 잠을 자고 다시 떠나곤 했다.

어느 비 내리는 날이었다. 빗길에 차가 막히지 싶어서 조금 일찍이 떠나려는데 이미 밝은 어둠이 짙게 깔렸고, 겨

올비가 부슬 부슬 가로등 불빛에 길게 이어져 내리고 있었다. 405번 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가다가 ‘라 씨에네가(La Cienega)’에서 내려서 언덕길을 넘어야 했다. 남쪽에서 언덕을 올라갈 때는 그리 경사가 심하지 않으나, 고갯마루를 막 넘어서면 가파른 경사의 내리막길이다.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속도가 난다. 비가 내리고 있는 밤길이라 오른 쪽에서 두 번째 차선에서 나름대로 조심을 하며 고개를 넘어, 내리막길로 거의 반쯤 내려왔을 때였다. 갑자기 오른쪽 뒤에서 ‘꽉!’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잡고 있는 핸들이 흔들렸다. 반사적으로 오른쪽 발이 브레이크 페달 위로 올라갔다. 순간 ‘끼익’하는 금속성 마찰음과 함께 자동차가 조금 미끌어지더니, 그 자리에서 180도로 돌아서서 정지해버렸다.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니 차가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다.

내려가던 내 차는 거꾸로 돌아서 머리를 산꼭대기로 향하고 서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대낮 같이 밝아왔다. 고갯마루를 넘어서 막 내리막이로 향하고 있는 수많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일제히 내 앞으로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다. 순간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갔다. 정말로 순식간의 일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렇게 쏟아져 내려오던 불빛들이 내 앞에서 모두 멈추어 서는 것이었다. 순간 제 정신으로 돌아온 나는 서서히 브레이크를 풀고 차

를 돌려 오른쪽 길가로 몰고 나갔다. 멈춰 있던 불빛들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조용히 내려가고 있었다. 맨 오른쪽 길가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가서 차를 살펴보았다. 오른쪽 뒷바퀴 윗부분의 펜더(Fender)가 조금 찌그러진 것 말고는 별 이상이 없었다.

나는 천천히 고갯길을 내려오고 있었는데, 내 오른쪽 차선으로 조금 빠르게 내려오던 차가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순간적으로 내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지나가 버린 것이었다. 마침 그 때 맨 오른쪽 차선 옆에 고장 난 차가 한 대 서있었는데, 밤이 어두운 탓으로 이 운전자가 그 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달려 내려오다가 사고를 낸 것이다. 그 차는 이미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고, 목격자들도 모두 없어졌다. 나는 잠시 멍한 채로 서 있다가 차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출발을 했다. 어찌됐던 학교로 가야 하니까. 그런데 차가 앞으로 시원하게 나가지를 않았다. 고개를 다 내려가면 주유소가 있으니 일단 거기까지는 끌고 가야 했다. 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미끄러지듯이 내려갔다. 내리막길이라 그만해도 다행이었다. 주유소로 들어가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와 오른쪽 뒷바퀴 쪽으로 가서보니, 타이어가 다 찢어져 있었다. 펜더가 안쪽으로 찌그러져 들어가서 타이어를 누르고 있었는데, 그런 상태로 무리하게 산을 내려왔으니 바퀴가 역지로 구르면서, 안으로 찌그러져

들어온 펜더가 타이어를 갉아먹은 것이다.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어 견인트럭을 불러 정비소에 맡기고, 친구를 불
러내어 학교로 갔다가 다른 차편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그
날 밤 그 고갯길에서 또 한 고비의 인생 고갯길을 넘었다.

이상(異常)한 버릇

신학교(神學校)에 다니게 된지 일 년쯤 지났을 때 있었던 일이다. 저녁 7시에 수업이 시작 되는데, 늦어도 15분 전에는 강의실에 들어가서, 책상과 의자가 한데 붙어 있는 학생용 의자에 앉아 기도하며 교수님이 들어오시기를 기다렸다.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뒷자리에서 갑자기 듣기 거북한 소리가 들렸다. ‘아~ 또 마귀새끼가 발광을 하네! 이놈의 곳에는 웬 마귀새끼들이 이렇게 많은 거여?’ 가만히 듣자 하니 기분이 언짢았다.

눈을 뜨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신입생인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곱상으로 생긴 사람은 아니었다. 나보다 덩치가 한 배 받은 돼 보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한마디 했다.

“아니,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마귀새끼들이라니? 엇다 대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요?”

그랬더니, 나를 쓰옥 한번 쳐다 보고는,

“아니 이 마귀새끼들이 나를 의자에 앉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시방!”

하는 것이다.

자기 몸집이 커서 공간(空間)이 충분히 넓지 않은 의자에 앉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나 같은 갈비씨도 몸을 끼워 넣기가 쉽지 않은 공간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

도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니 그게 왜 마귀새끼 탓인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무 일이나 그렇게 막 마귀새끼 탓을 해도 되는 것인가? 진짜로 마귀새끼가 그 말을 들었으면 참 억울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어느 날 설교학(說敎學)을 가르치시는 교수 목사님이 강의를 끝내고 숙제를 내어 주셨다. 성경 본문을 지정해 주시면서 그 본문을 가지고, 레터 용지 4 페이지 분량의 설교를 작성해 오라는 것이었다. 성경 본문은 고린도 후서 4장 10절 말씀이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원고를 작성해 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한 후 평가를 받는 것이다. 내가 발표할 차례가 되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설교다. 준비해간 원고를 펴놓고 반쯤은 보면서 설교를 했다.

“예수 죽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十字架)입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나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나의 옛 사람이 죽지 않고는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 수 없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동료들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학생 중 한 사람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 보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입가에 미소를 보이면서 손가락으로 자기의 코를 문지르는 것이었다. 그것도 한 번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이를 두고 여러 번 반복해서 그랬다. 처음에는 무심코 넘겼는데 여러 번 그렇게 하니, 꼭 나보고 코에 뭐가 묻었으니 닦으라는 암시를 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도 설교를 하면서 오른 손으로 내 코를 문질렀다.

나는 속으로 고맙다는 생각을 하며 그 학생에게 고맙다는 눈인사를 하고 계속 설교를 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또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자기 코를 문지르는 것이 아닌가? 나는 속으로, ‘아직 뭐 묻은 것이 안 없어졌나?’ 하면서 다시 내 코를 문질렀다. 몇 번을 그렇게 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다 되어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왔다. 학생 자리에 앉아계시던 교수 목사님이 강단으로 올라가셔서 평가를 하실 차례다.

“설교를 참 잘 하셨습니다. 본문(本文)에 아주 충실하게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꼭 고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말은 못하고 속으로 ‘내가 알 턱이 없지요.’ 하고 앉아있는데 한마디 하셨다.

“학생은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서 코를 문지르는 습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고쳐야 하겠습니다.”

나는 코를 문지르는 버릇이 없다. 그런데 졸지에 이상하게 돼버렸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때 내 얼굴에는 아무 것도 묻은 것이 없었다.

고생문(苦生門)이 흰합니다.

삼년간의 신학교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했다. 졸업하는 날 친구들이 꽃다발도 들려주고 꽃으로 만든 목걸이도 해주었다. 졸업생들은 물론이고 재학생들과 하객(賀客)들도, 모두들 기쁨에 넘쳐 있는 날이었다. 그 날 학위(學位) 수여식(授與式)을 하면서, 학장(學長)으로 수고하셨던 목사님이 치사(致辭)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25년도 지난 지금까지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남아있다.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그러시고는 조금 뜸을 들인 후에 말씀을 이어가셨다.

“여러분들은 지금 졸업을 한다고 기뻐서 싱글 벙글 하고, 하객으로 오신 분들은 꽃다발을 주고 축하하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보니 오늘 졸업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앞에 고생문이 흰하게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했다. 그런데 조금 후에 깨달음이 왔다. 신학을 공부하고 교역자(敎役者)로 안수(按手)를 받고 목회(牧會)를 한다는 것이, 즐겁고 기쁘기만 한 일일까? 그것도 환경이 열악한 이민사회에서. 그 길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고 그 분을 본받아 가야하는 길인데, 그 길에 어찌 고난과 괴로움이 없겠는가? 지금부터 고생 줄로 접어들었다는 말씀이었다.



신학교 졸업식 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분명 영광되고 보람된 일이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고난과 역경이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라는 말씀이었다. 고난을 기뻐하고 역경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지 말고 잘 감당하라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한복음 10장 15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누가복음 9장 58절)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마가복음 10장 37절)

참 무모(無謀)한 짓을 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1년 뒤, 교단(敎團)에서 시행하는 고시를 거치고 또 일 년 뒤에 다니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임직(任職)을 받아 일 년쯤 시무(視務)하다가, 아무래도 이제는 다른 교회로 옮기든가 새로 교회를 개척하든가 해야 할 것 같아서, 무작정 사표를 냈다. 오라는데도 없고 딱히 갈 곳도 없는 터였다. 몇 주간 몇 군데 다른 교회에 출석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결론은 개척(開拓)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규모가 큰 교회에 다니지 않았으니 막상 나가서 개척을 한다 해도 따라올 사람이 없다. 가족도 달랑 두 사람 뿐이니 가족이 힘을 모아봤댔자 큰 힘이 되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하니 교회 건물이라도 확보하고 시작할 형편도 아니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아 먹고 맨 땅을 갈기로 했다. 참 무모(無謀)한 짓을 한 것이다. 하지만 기왕에 마음이 정해 졌으니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럼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하나? 막막했다. 지도책을 폈다. 그리고는 어디가 교통편이 좋은가 살폈다.

91번 프리웨이와 605번 프리웨이가 교차되는 곳에 핀을 꽂았다. 교통이라든가 편해야 혹 아는 사람들이라도 찾아오

기 쉬울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는 그 다음날부터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녔다. 혹시라도 예배당을 빌려서 쓸 수 있을까 해서였다. 그렇게 3주간을 날마다 돌며 예배처소를 찾았지만 허사였다. 교회 건물이 눈에 띄는 대로 찾아들어가서 사정을 해 봤지만 아무 곳에서도 허락을 해주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한 주간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예배처소가 안 나타나면 개척교회 접으라는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했다.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다. 계속 예배당 건물을 찾고 있던 어느 날 바로 그 프리웨이 옆에 ‘Evangelical Baptist Church’라는 간판이 붙은 조그만 단층 건물 예배당이 보였다.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교회건물이었다.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나보다 좀 젊은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했다. 그 교회 담임 목사였다. 찾아온 사정을 말했다. 가만히 듣고 있던 그가 난색(難色)을 표했다. 쪼개줄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다 틀렸나보다 하고 일어서려는데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다시 앉아서 말했다.

“아까 들어오다 보니 이 교회가 선교(宣敎)하는 교회인 것 같은데 주로 어느 지역에 선교를 하시나요?”

그 목사는 별 질문을 다 한다는 듯이 한번 쳐다 보더니,
“주로 대만(臺灣)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했다.

그래서 다시 말했다.

“참 좋은 일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저는 이 지역에 한인
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멀리 선교활동하시
는 것도 좋지만 이곳에 타민족 개척교회를 위해 예배당을
빌려주시는 것도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선교활동의 일부라
고 생각하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사용료를 많이는 못 드려
도 월 오백불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회가 성장하면 더
드리지요.”

내 말을 들은 그는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
더니 마지못해 하는 말투로 대답을 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건물이 여유가 없어서 예배 마치고 나면
오후에 예배당에서 찬양대(讚揚隊)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래서 어쩔 도리가 없군요.”

그리 넓지 않은 그 교회 예배당 안 강단에는 커다란 그
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나는 더 할 말이 없었다. 이젠
정말로 틀렸구나 생각을 하며 일어나 나오려다가 또 다시
주저앉았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게 좋은 생각이 하나 있는데
요! 들어오다 보니 저 안쪽으로 집이 한 채 있는데 거기는

뭐하는 곳입니까?”

“거기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쓰는 곳입니다.”

나는 틈을 주지 않고 말했다.

“그럼 됐습니다. 내가 피아노 한 대를 사가지고 올 것이니 그걸 저 집에 갖다 놓고, 찬양대 연습도 하시고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러면 오후에 제가 예배당을 좀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말에 그가 입을 다물었다. 거절할 명분이 없어졌던 것이다. 어디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는지 그런 말이 입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가 또 다른 거절할 이유를 들고 나왔다.

“지금 찬양대 지휘자가 대만에 출장 중이라 그가 돌아와 봐야 알겠고, 또 제직(諸職)회의 허락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군요!”

또 하나의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제 별 도리가 없구나 생각하며 일어서려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주저앉으며 말했다.

“예배당 빌려주시는 것을 목사님이 결정을 못하십니까? 목사님이 좋은 일을 하시겠다는데 사람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지휘자가 한주 후에 돌아오신다니 저도 한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다시 보자고 인사를 하고 돌아왔다. ‘개척교회가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하고 마음 편하게 먹고 한 주간을 보낸 후, 다시 그 교회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다. 중국인 목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 의자에 앉았다. 그가 말을 시작 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일곱 분의 한인 목사님들이 예배당을 빌려달라고 오셨었습니다. 그러나 거절을 했지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목사님의 제안을 교인들에게 이야기 했더니 모두가 좋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함께 쓰도록 하지요!”

참 감사했다.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여러 번 했다. 그리고는 그 즉시로 그 당시에 ‘산타페 스프링스(Santa Fe Springs)’에 있던 ‘영창피아노’ 회사로 차를 몰았다. 개척자금으로 조금 준비했던 돈 중에서 700불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12개월 할부로 갚기로 계약을 했다. 1990년 8월 마지막 주간이었다. 그 날로 ‘영창 피아노’ 한 대가 교회로 배달되었다. 그렇게 교회는 첫 출발을 했고, 9월 첫 주부터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나는 무모(無謀)하게 시작했지만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무모하신 분이 아니었다. 또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니라.’ (잠언 16장 9절)

60번 프리웨이에서 있었던 일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일 년이 조금 모자라는 그 이듬해 1991년 8월 21일 저녁 8시 20분쯤의 일이었다. 연세 많은 장로님의 아들이 사우디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 장례를 치르게 되어, 그 날 저녁에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한국 장의사’에서 입관 예배에 참석해 문상을 하고, 60번 프리웨이를 이용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평소의 습관대로 중앙분리대에서 오른쪽 두 번째 차선을 이용해서 운전을 했다.

로스엔젤레스를 출발해서 20여분이 지나 하시엔다(Hacienda)지역을 통과할 무렵이었다. 왕래하는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 말고는 주위가 조금 어두운 상태였다. 내 차 오른 쪽 차선에서는 조금 뒤편으로 대형 트레일러 트럭이 오고 있는 것이 백미러를 통해 보였다. 그 순간이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하얀 물건이 내 차 오른쪽 앞으로 달려들고 있었다. 나는 급히 그것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다. 그런데 그 순간 왼 쪽에 차선이 하나 더 있다는 생각이 났고, 거기도 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내가 왼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왼쪽 차선에서 오고 있는 차가 내 차와 충돌 할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왼쪽으로 꺾었던 핸들을 다시 얼른 오른쪽으로 바로잡았다.

자동차가 방향을 바로 잡는가 싶었는데 그 순간 내 차 오른쪽 뒤에 무엇인가 부딪치는 굉음이 들리더니, 차 뒤쪽이 왼쪽으로 돌면서 뒤집어지고 밀려갔다. 시속 65 마일로 달리고 있던 상태였다. 나는 속으로 ‘이제 내가 정말로 죽는구나!’ 생각하며, 오른쪽 발로 브레이크 페달을 힘껏 밟고, 팔을 쭉 뻗어 핸들을 꼭 잡고, 머리를 숙여 양 팔 안에 넣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한다는 기도가, ‘주여!’ 한 마디 뿐이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차가 뒹구는 것이 머리에 느껴지고 유리창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귓속으로 들렸다. 번인가 우당탕 통탕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구르던 차가 구르기를 멈추는가 싶더니, ‘끼~~익’소리를 내며 밀려가다가 멈추어 섰다. 참으로 다행이었던 것은 내가 정신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다.

차가 움직이기를 멈추고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눈을 떴다. 자동차 네 바퀴가 하늘로 향하고 운전대 앞 유리창이 길바닥에 평행으로 붙어있는 상태였다. 옆 유리창은 모두 부서져 산산 조각이 났고, 앞 유리창은 부서지며 안으로 운전대 있는 곳까지 밀려 들어와 있었다.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아스팔트 바닥이 보였다. 얼른 차를 빠져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몸을 일으키려니, 안전벨트에 내가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려 머리가 길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가까스로 안전벨트를 풀고 깨어진 창문을 통해

밖으로 기어 나오는데 사람들이 우루루 몰려오더니 괜찮으냐고 물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자동차 밖으로 나와서야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을 알았다. 그 길을 달리고 있던 모든 자동차들이 운행을 멈추고, 두어 대의 911 구난 차량과 여러 대의 병원앰불런스들이 비상등을 번쩍이고 있었다. 어느 영화에서 본 듯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날 현장에서 일곱 대의 차량이 서로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난 것이었다. 의료 구조대원이 오더니 내게 괜찮은가 물었다. 나는 그 당시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몸에 어떤 상처도 없었고 다만 부서져 내리는 유리파편이 왼쪽 손가락에 스치면서 핏자국을 낸 것이 전부였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대답을 했더니 병원엘 가겠느냐고 물었다. 어차피 그곳에서 어쩔 도리가 없는 터라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두 사람이 달려들어 응급차에 태우고 침대에 누인 다음 몸을 침대에 묶어 고정시키고 병원으로 싣고 갔다. 병원 응급실 침대에서 30여분을 누워있었더니, 담당의사가 들어와서 손으로 내 몸의 여기저기를 두드려 보면서 아픈 곳이 있느냐고 묻기에 아무데도 아픈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의사는 핏자국이 있는 내 왼손 가운데 손가락 둘째 마디에 붕대 한 개를 감아주고는 집으로 가도 된다고 했다.

그날 밤을 지나고 이튿날 일어나 생각을 해보니 도무지 무슨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까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서 지난 밤 사고에 대해 말하고 내 차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폐차장에 견인해놓았으니 가보라는 것이었다. 혹시라도 내차가 누구의 차를 들이받았다면 보험 처리를 해야 하니,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폐차장으로 갔다. 직원이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보니 자동차 꼴이 말이 아니었다. 너무 상처가 많이 나서 폐차처분(廢車處分)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차는 새로 산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포드 미니밴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사방이 굵히고 부서져서 폐차처분을 해야 할 지경인데도 앞 뒤 범퍼와 앞 뒤 네 코너가 멀쩡했다. 다만 오른쪽 옆구리가 깊이 우그러져 있었다.



내가 다른 차를 들이받지 않았다는 충분한 증거였다. 우선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보험회사로 찾아갔다. 사고보고를 했더니 이미 경찰로부터 사고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고 경위를 좀 알고 싶으니 사고보고서를 복사해

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금방 서류를 복사해 주었다. 거기에 보니 오른 쪽 뒤에서 오고 있던 대형 트럭이 내 차를 밀고 들어와서(Sweep-in) 생긴 사고였고, 그 트럭 운전사는 내가 죽은 줄 알고 도망을 가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잡혀서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기적(奇蹟)이었다. 그 큰 사고에서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살아난 것은. 그래서 나는 그 때 죽었고 지금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다. 구약 성경에 굶주린 사자 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사자에게 먹히지 않고 살아난 사건 기록이 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인데 그 사고를 겪고 나서 그 것이 이해가 되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한국에 나갔다가 경부(京釜) 고속도로를 타고 대전으로 내려가는데, 고속도로 위로 지나가는 통행로 난간에 커다란 글씨로 써 놓은 것이 보였다. 거기에는 ‘안전벨트 생명벨트’ 라고 쓰여 있었다. 그때 생각이 났다. 60번 프리웨이에서 사고가 나던 날 나는 생명벨트를 매고 있었던 것이다. 성경 말씀이 또 생각났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앳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10:29)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교회 장로님의 처남이 한국에서 들어왔다. 나이는 한 40 가까이 되었는데 부인과 어린 아이 둘, 함께 네 식구였다. 사는 것이야 당분간은 자기 매형 집에서 산다고 하지만 자동차 한 대는 있어야 했다. 어느 날 전화가 왔다. 좀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것이었다. 자동차를 사려고 딜러에 갔더니 누가 신용보증(Co-sign)을 해 주면 가능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물어보나 마나 신용보증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 아닌가? 어떻게 하겠는가? 가야지!

그래서 함께 자동차 딜러로 갔다. 그렇게 해서 포드 미니밴 새 차를 사왔다. 그 때 시세로 \$16,000.00쯤 되었는데 \$4000.00을 다운하고 매달 \$350.00 정도를 4년간 갚는 조건이었다. 얼마 후 캘리포니아 주 정부 차량국에서 우편물이 왔기에 열어보았더니 자동차 등록증이였다. 그것도 차 주인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졸지에 자동차 한 대가 더 생긴 셈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젊은 친구가 이사를 하게 되었다. 가까운 곳이 아니라 멀어도 한참 먼 캘리포니아 주 북쪽 끝자락에 있는 소노마(Sonoma)라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다. 지금 사는 곳으로부터 1,000여마일이나 멀리 떨어진 곳이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갈일도 없는 그런 곳이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걱정이 하나 생겼다. 차를 가지고 이사를 가서 만일 무슨 사고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지난 몇 달 동안 지켜 본 그 사람의 성격 때문이었다. 그동안 지켜 본 바로는 그 사람은 좀 불안했다. 무슨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가 버리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 그런 상황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차를 가지고 그 먼 곳으로 가서, 혹시라도 무책임한 일을 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사람의 일을 누가 아는가? 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이 사는 형편인데 자칫하면 꿈쩍없이 타지도 않는 자동차 월부금 물어야 하고, 사고 처리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며칠 생각한 끝에 그 사람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자동차는 놔두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없는 돈 모아 \$3,000.00을 그에게 주고 자동차 열쇠를 받았다. 그 후로 그는 가족을 데리고 소노마로 갔다가 얼마 안 되어 한국으로 나가버렸다. 그 자동차 월부금과 보험료를 내야하기에 당장 매월 생활비가 갑자기 400여 불이 늘어나게 되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다가 안 되면 팔아버리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다가 몇 달 후 그 차를 타고 나가서 사고를 당한 것이다. 보험회사에서는 폐차처리를 하게 되었으니 은행에 갚아야 할 것은 모두 갚아주겠다고 했다. 하지

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1불도 없었다. 나는 다친 데가 없고 아무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일로 나는 두 번 사는 경험을 했고, 겨우 모아 두었던 돈 \$3,000.00은 허공으로 날아갔다. 다행인 것은 그 자동차 월부금을 더 이상 물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그나마 감사한 일이었다. 신용보증은 잘해야 본전이다. 아니 본전 찾기도 쉽지 않은 것이 그것이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어느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한토막이 생각한다. 꽤 큰 규모의 교회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지금은 고인이 된 분이다. 그분이 처음 교회를 부임했을 때 교인이 얼마 없었다. 그래도 할 일은 많았다. 새로 이민 들어오시는 분 공항에 나가 인도해 와야 하고, 아파트 얻는 일, 가스(Gas)회사, 전기회사 연락해 처리하는 일 도와야 하고, 때론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일도 해 주고, 시장 보는 일도 거들어 주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했다.

그 사람은,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가 되고 자기들 어려운 일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다며 동네방네 자랑도 하더라. 그렇게 자리를 잡고 살게 되더니 얼마 후 교회를 옮기겠다는 소식이 들려서 마음이 섭섭하더라. 왜 그러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목사님이 너무 바쁘셔서 설교준비를 잘

못 하시는 것 같고, 교회에 가도 설교에 은혜가 되지 않아
울겨야 되겠다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누가 누구를 돕는다
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가슴을 연 친구

내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나를 마중 나온 친구 내외는, 초등학교 학생 하나, 유치원 다니는 아이 하나 그렇게 두 어린 아들과 함께, 네 식구가 침실 하나 거실 하나가 있는 그리 넓지 않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자기들 부부가 써야 하는 침실을 한사코 우리에게 내어주고 자기들은 거실을 사용하려 했다. 그게 어디 말이 되는 소리인가? 절대 그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간청을 해도, 친구와 친구 부인은 막무가내로 우리 둘을 침실로 밀어 넣고 문을 닫아버렸다. 그렇게 고마울 데가 어디 또 있겠는가?

계속 그러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 일주일 후에 근처에 있는 다른 아파트를 얻어서 이사를 했다. 월세가 한 달에 \$178.00 이었다. 그것도 좀 비싼 편이었다. 친구가 사는 아파트에 빈방이 나면 옮기기로 하고 우선 이사를 한 것이다. 그 후 몇 달이 지나서 결국 친구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옮기고 7년을 거기서 이웃으로 함께 살았다. 그 친구 내외가 지금은 뮤리에타(Murrieta)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작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연락이 왔다. 내가 살고 있는데서 가까운 곳이라 바로 달려갔다. 심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내 친구 중에 심장 수술을 받은 이가 있는데, 수술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고 젊어진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며, 수술이 잘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이튿날 아침 7시, 수술실로 들어가는 친구를 복도에서 만나 다시 기도하고 돌아왔다. 그 날 오후 10시가 되어서야 겨우 의식을 회복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수술이 아주 잘 되었다는 것이다. 다리에 있는 혈관을 잘라서 바이패스(Bypass)용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사람은 참 신묘(神妙) 막측(莫測)한 존재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만약의 경우에 쓰라고 예비용으로 마련해 두신 혈관이 있다니…가슴을 20cm 정도 잘라서 열고 한 큰 수술이었다. 건강 상태가 좋은 편이라 회복이 빨라서 내일이면 퇴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담당 의사로부터 듣고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속으로 말했다. ‘하나님 저렇게 가슴을 열고 힘든 수술을 해야 하는 일이 이제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왜 그렇게 모르는 것이 많으세요?

한국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나갔다가 서울에서 겪은 일이다.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강남에 불일이 생겼다.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하고 둘이 길을 나섰다. 길음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한번 쯤 환승을 해야 강남으로 갈 수 있었다.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지, 어디서 강남으로 가는 열차로 바꾸어 타야 하는지, 어떤 쪽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 모두가 하나같이 낯선 것뿐이었다. 막상 승강장으로 내려가기는 하면서도 걱정이 앞섰다. 13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은 모든 것이 엄청나게 변해 있었다.

그래도 되도록 사람들에게 묻지 말고 안내 지도를 잘 보면서 다니자고 다짐을 했다.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이것저것 물어보면, 그들은 우리를 어느 시골 촌놈들 쯤으로 생각할 것이고, 그런 취급을 받기는 싫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다.

“길 물어보고 물건 값 물어보면 간첩인줄 알 터이니, 우리 되도록 묻지 말고 다닙시다.”

그렇게 말하며 우리는 서로 웃었다. 그리고 계속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갔다. 막상 도착하고 보니 차표를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겠고, 오른쪽으로 가는 차를 타야 하는지 원

쪽으로 가는 차를 타야 하는지, 도무지 분간을 할 수가 없었다.

물어보지 않기로 했지만 도리 없는 일이었다. 마침 내 옆으로 이쁘장하고 마음씨가 고와보이는 한 젊은 부인이 지나가는지라, 그 부인에게 물었다. 그 부인은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었다.

“차표는 저기 저 창구에서 사면 되구요, 강남으로 가려면 저 오른쪽에 가서 차를 타시고, 다음 셋째 번 정거장에서 내리셔서,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우리는 그 분에게 참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차를 탔다. 세 정거장을 타고 가서 차를 바꾸어 타기 위해 내렸다. 그런데 거기서 또 막혔다. 어디로 가야 하나 하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이게 웬 일인가? 조금 전에 친절하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 그 부인이 옆에 있는 것이 아닌가? 난 잘 됐다 싶어서 반갑게 인사를 했다.

“또 뵙게 되네요, 같은 방향으로 가시나보죠?”

그 부인이 웃으면서,

“그러네요.” 했다.

그리고는,

“강남으로 가신다고 하셨죠? 저를 따라 오세요.” 하는 것이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한국에 오니까 참 좋구나, 이렇게 친절한 분들도 있고.’ 우리는 함께 꽤나 높은 계단을 올라가 다시 긴 통로를 통해 환승역으로 갔다. 그리고는 조금 기다리다가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열차를 함께 탔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우리는 같이 열차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하고 각자 자기 갈 길을 갔다. 그런데 우리 두 사람은 아직도 출구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고 있었다. 두리번두리번 하다 보니 한쪽 벽에 안내지도가 붙어있었다. 어느 쪽 출구로 나가야 하나 하고 열심히 지도를 보고 있는데 등 뒤에서 소리가 났다.

“실례합니다.”

굵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뒤를 돌아다보니 정복을 입은 경찰 한명과 사복을 입은 다른 한 사람이 우리를 향해 서 있었다.

“왜 그러시죠?”

했더니, 그 경찰이 거수경례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신분증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하는 것이었다. 사복을 입은 사람이 거들었다.

“왜 그렇게 모르는 것이 많으세요?”

우리는 서로 보면서 웃었다.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이 갔다. 그래서 말했다.

“아, 그거요?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 하도 오랜만에 나왔

더니 모든 게 너무 많이 변했네요.”

그리고는 지갑에서 캘리포니아 주 운전면허증을 꺼내 보여 주었다. 그걸 보고 나더니 그 경찰이 한마디 더 했다.

“별거 아닌데요, 간첩 신고가 들어와서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며 다시 한 번 거수경례를 했다. 우리는, 요 앞서 정거장에서 잠깐 차가 섰을 때, 그 친절한 부인이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타고 있는 객차를 손으로 가리키며, 핸드폰으로 어디엔가 전화를 걸고 들어오는 것을 본 것이 생각나서, 한참 웃었다.

이상한 인연(因緣)

2000년 10월 14일 낮 12시, 충청남도 대전시 동구 용전동에 있는 한 예식장(禮式場)에서 결혼식이 있었다. 식장으로 들어서니 신랑과 신부의 부모님들이 하객을 맞이하고, 하객들은 줄지어 예식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에 띄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누구의 결혼식인가를 알리는 안내판(案内板)이었다. 거기에 좀 이상하게 생 각되는 것이 있었다. 신랑은 송(宋)00 씨의 차남 송00 군 이고, 신부는 민(閔)00 씨의 차녀 민00 양이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신랑의 어머니의 성이 민(閔)씨이고, 신부의 어머니 성이 송(宋)씨라는 것이다. 무슨 집안끼리 혼인을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 이 결혼에 얽힌 사연이 참 재미있다.

필자의 할아버지가 한참 젊으신 때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 때부터 할아버지는 풍수지리(風水地理) 연구에 몰두하셨다. 조선(朝鮮) 팔도(八道) 각지에 웬만한 산은 모두 찾아다니셨다. 그 때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온 민족이 고난을 참으며 해방(解放)을 학수고대(鶴首苦待)하던 때였다. 드디어 암울(暗鬱)했던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국제연합군에 항복을 하고 조선은 해방이 되었다. 나라가 온통 만세소리로 가득 찼다.

그런 가운데 1946년 어느 날, 할아버지는 가족회의를 하셨다. 아버지 4형제를 모아 놓으시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세상이 온통 해방됐다고 저 난리들인데 너희들 내말 잘 들어라. 이제 곧 전쟁이 날 것이다. 엄청난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피난(避難)을 해야 한다.”

모두 어안이 빙빙했다. 해방의 기쁨으로 벅차있는 지금 웬 전쟁이 난다는 말인가? 그러나 모든 식구들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숨을 죽이고 들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을 하셨다.

“내가 이곳저곳을 돌아본 중에 난리(亂離)를 피할 곳을 한군데 보아 두었다. 그런데 거기는 아주 험한 산골 작은 마을이라 자식들 교육시키기에는 좋은 곳이 아니다.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으나 언젠가는 다시 나와야 하는 두메산골이다. 너희들 중 누가 한사람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누가 가겠느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든 고향을 등지고 부모 친척을 떠나 그 깊은 두메산골 외롭고 살기 힘든 곳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얼마쯤 있다가 4형제 중 맏이이신 아버지께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셨다.

그래서 나는 세살 박이 어린 시절에 고향을 등지고 속리

산 법주사 인근 깊은 산속 작은 마을로 피난길을 떠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 그 후 대한민국은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위도(緯度) 38도 이북은 소련을 주축으로 하는 공산진영이 통치를 하고, 남쪽은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민주진영이 통치하는 두 동강이 나라가 되고 말았다.

누가 알았으랴,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당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8선을 넘어 남한으로 쳐들어왔다. 우리 민족사(民族史)에 엄청난 시련을 안겨준 6.25동란이 일어난 것이다. 그 당시 아버지 사형제 중에서 셋째 삼촌이 충청남도 대전(大田) 근교에 살고 계셨다. 당시 충청남도 대덕군 진잠면 학하리였다. 지금은 그곳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 나는 잘 모른다. 아무튼 셋째 삼촌은 그곳에서 직장엘 다니고 계셨는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점심을 잡수시러 집으로 들어오셨다가 집이 폭격(爆擊)을 맞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

그 때 갓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마저 폭격에 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흙더미에 묻혀버렸다. 숙모(叔母)님은 졸지에 남편을 잃고 갓난아기마저 잃어버리는 큰 환난을 당하셨다. 급한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사태를 수습하러 가보니, 숙모님은 낫을 잃고 멍하니 제정신

이 아니었다. 잠시 후 흙더미 속에서 어린아이 우는 소리가 났다. 모두 달려들어 정신없이 흙더미를 파헤치니 갓난아이가 온 몸이 시퍼렇게 멎든 채 울고 있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었다. 졸지에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이 때 입은 상처로 필자의 사촌 동생은 뇌에 손상을 입었는지 어른이 된 지금도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해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곤 한다.

그 날 오후에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어린 것을 등에 업은 숙모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옮기기 위해 길을 떠났다. 그 곳에서 우리 집까지는 약 백오십리 길(약 60km)쯤 떨어져 있었다. 지금이야 자동차로 한 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이지만, 오로지 두 다리의 힘만으로 걸어가는 도리 밖에 없는 형편으로는 하루 종일을 걸어도 갈수 없는 거리였다. 가뜩이나 마음이 아프고 발걸음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는 판인데 여름철인지라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다. 난감한 노릇이었다. 날은 저물고 비는 쏟아지고 하늘은 어두컴컴해서 더는 어쩔 수가 없게 되었는데 마침 저만치 물레방아간이 보였다.

일행은 우선 그리로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밤을 보낸 다음 다시 길을 떠나기로 했다. 비에 폭 젖은 몸을 이끌고 물레방앗간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 쉬고 있는데 인기척이

났다. 그는 그 물레방앗간 주인이었다. 그가 무슨 사정으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였는가 물었다. 아버지께서 사정을 자세히 말하고 하룻밤 지내고 가기를 청했다.



한참동안 조용히 전후 사정을 듣고 있던 물레방앗간 주인은,

“여기서 밤을 보내실 수는 없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저의 집으로 가십시오.” 하고 말했다.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데가 어디 또 있겠는가? 몇 번 사양해 보기는 했지만 결국 일행은 물레방앗간 주인을 따라 그 집으로 가서 따뜻한 저녁을 대접받고 편한 잠을 잘 수 있었다. 이튿날 아침 할아버지 일행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떠나려는데 그 집 주인어른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집안 일꾼에게 쌀 한가마니를 지워주면서 함께 모셔다 드

리고 오라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 이런 인심도 다 있나 싶었다. 사양해 봐도 소용없는 일이라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다.

그렇게 물레방앗간 주인의 도움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후, 어른들은 종종 왕래(往來)가 있었으나 그 자손들은 별다른 만남이 없었다. 그로부터 몇 해 지난 어느 날, 그 물레방앗간 집 노인의 아드님이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버님의 묘 자리를 좀 보아 주시기를 청했다. 할아버지께서는 과거에 신세 진 일도 있고 하여 나름대로 적당한 곳을 일러 주셨다. 세월이 흘러 양가의 할아버님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셨고, 그 자손들도 전에 살던 곳을 떠나 타지로 이사를 해서 서로 소식이 끊어져 버렸다.

한국동란이 휴전(休戰)이 되고 5년여가 지난 후, 필자의 형님이 대전(大田)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조카들을 데리고 이사를 하셨다. 그 형님에게 아들 둘과 딸 둘이 있다. 두 아들과 큰 딸은 이미 결혼을 했고, 둘째 딸은 결혼 적령기(適齡期)가 지났는데도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다. 더러 맞선도 보고, 소개팅도 해보지만 별로 진전이 없었다. 형님은 유학(儒學)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어릴 적부터 유학을 공부하고 자라나셨다. 어느 날 시내에 있는 서예(書藝)학원

을 찾으셨는데, 등록을 하려고 주인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보니 어쩐지 낯 설지가 않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 그 사람이 바로 할아버지와 교분을 가지셨던 그 물레방아 간 주인집의 손자였다.

한동안 별 다른 일 없이 서예공부를 하시던 형님이, 어느 날 그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들 이야기를 하시게 되었다.

“송(宋)형, 내게 아직 시집 안간 딸이 하나 있는데, 이 학원에 나오는 사람 중에 좋은 신랑감 있으면 중매 좀 해 주시오.” 했다.

그 학원 주인은,

“그러지요 한번 알아보시다.” 했다.

그런 일이 있는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서예학원 주인이 형님을 보고 하는 말이 좋은 신랑감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형님은 한번 보자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민(閔)형, 사실은 저에게 아직 장가가지 않은 둘째 아들이 있는데, 우리 사돈 합시다. 우리 두 집안이야 조부님 시절부터 친교가 있던 집안이니 다른데서 찾을 것이 뭐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었다.

형님도 그 말이 좋게 생각되어 집으로 돌아와서 둘째 딸에게 말씀을 하셨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한번 만나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집 총각을 만나보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누구를 만나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던 아이가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몇 차례 더 만나고 하더니만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이다. 지금 아이 둘 낳고 잘 살고 있다. 참 인연은 모를 일이다. 조부님 시대에 맺어진 인연이 그 증손자(曾孫子)들에게 이어질 줄을 어찌 알았겠는가? ‘적선지가(積善之家)에 필유여경(必有餘慶)’이라는 옛 말이 생각나게 하는 일이었다.



조카딸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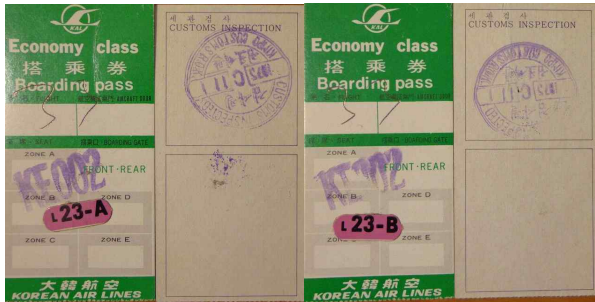
잊을 수 없는 날

1975년 11월 1일. 그날은 나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날이다. 내 삶의 터전이 바뀐 날이요, 내 인생의 좌표가 수정된 날이다. 오늘의 나는 이 날로 인하여 그 이전의 삶에서 그 이후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날은 토요일(土曜日)이었다. 병환이 깊어서 기동(起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버지와, 못내 아쉬워하시는 어머니께 하직 인사를 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김포 공항으로 향했다.

오후 3시 20분 쯤, 모든 출국 수속을 마치고, 걸으로 내색은 하지 않으셔도 무척이나 섭섭해 하시는 형님 내외분의 배웅을 뒤로 한 채, 서울에서 출발하여 로스엔젤레스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몸을 실었다. 오후 3시 30분 서울 발 대한항공 002편, 좌석번호 23-A에 내가 앉았고 23-B에 아내가 앉았다. 일단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으니 만감(萬感)이 교차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이제 정말 어디론가 가는가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 태어나서 지난 31년 동안을 살면서 대한민국 바다 밖으로 나가본 일이 없었다. 모두들 신혼여행으로 다녀온다는 제주도도 가보지 못했고, 가을이면 그렇게 단풍이 좋다는 설악산도 가본 일이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고국산

천을 떠나 이역만리 미국을 향해 떠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이민 올 때 앉았던 비행기 좌석표

이륙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그리도 길게 느껴졌다. 앞은 채로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빠졌다. 지금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가서는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목적지가 미국인 비행기를 탔으니 미국으로 가겠지만 그걸 누가 보장하는가?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누가 아는가?

지금이야 미국 사정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아는 세상이지만, 그 때만 해도 미국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다. 몇 년 먼저 이 민을 떠난 아내의 후배로부터, 간간히 단편적인 소식을 전해들은 것이 전부였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순간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세상을 지으시

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 생각이 났다. 비록 교회는 다니지 않고, 믿음은 없었지만 그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은 채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다.

‘하나님, 저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이 비행기가 제대로 가서 목적지에 잘 도착하게 될지, 잘 도착하면 한 6개월 먼저 이민을 간 친구가 제대로 마중을 나올지, 비록 아내의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취업비자를 받아서 가기는 하지만, 영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취업은 제대로 할 수 있게 될 것인지, 도무지 보장이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나름대로 살아온 것, 다 버리고 맨 몸으로 가는데, 저에게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는 제로(Zero)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아는 사람 한 사람 없고 친척도 한 사람 없는 곳으로 저는 가고 있습니다. 6개월 먼저 간 직장 친구 한 사람이 있지만 그가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모든 걸 당신께 맡기렵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시든, 무슨 일을 시키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것을 기도랍시고 하고는 눈을 떴다. 이상한 것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었다.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어

차피 아무것도 없는데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니까. 조금 후 비행기는 활주로(滑走路)를 달리다가 앞이 들리며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그랬다. 참 무모(無謀)한 짓을 한 것이다. 그 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달러 반출(搬出) 규제가 심했다. 워낙 나라가 가난해서 외환(外換)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취업이민의 경우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일인당 \$1,000.00이었다. 그러니 단돈 \$2,000.00을 들고 이민을 떠난 것이다. 더 가지고 올 돈도 없었지만.

그 때는 서울에서 로스엔젤레스로 오는 직항편이 없었다.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두 시간 정도 쉬었다가, 하와이에 도착해서 통관 수속을 마치고 공항 대합실에서 또 두 시간 정도를 쉰 후, 다시 이륙해서 같은 날 저녁 7시 경에 로스엔젤레스 공항에 도착했다.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하는 저녁 로스엔젤레스 공항에 착륙(着陸)하기 전, 비행기가 공항 상공을 한 바퀴 선회(旋回)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황홀함 그 자체였다. 땅 위에는 말 그대로 불바다였다. 건물마다에서 밝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쪽쪽 뻗은 길가에는 가로등 불빛이 한층 더 환하게 시내를 비추고 있었다. 정말 넓은 곳이라는 것이 실감이 났다.

그렇게 나의 이민 생활은 시작이 되었다. 서울에서는 반

(半) 공무원인 국영기업체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사원이었는데, 이곳에 와서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내가 따뜻하게 지어주는 아침밥을 먹고, 작업복 입고 도시락 싸가지고 일터로 갔다. 손짓 발짓 해가며 겨우 의사소통을 하면서 공구 만드는 공장의 허드렛일을 해야 했다.

돌아보면 아득한 옛날이지만 엇그제 같은 생각이 든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된다. 지난날을 되짚어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떠나올 때 비행기 안에서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 주셨다.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만큼 알게 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만큼 이루고 살고 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다. 앞으로는 또 어떤 이야기를 쓸 수 있을지, 지금은 알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설교(說敎)하는 사람은, 자기의 설교를 듣고 누군가가 은혜를 받을 때 가장 마음이 기쁘다. 물론 은혜야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한 3년쯤 되었다. 내가 설교 잘하는 목사라고 소문이 나서, 그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안수(按手) 기도를 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불임(不妊)으로 고민하던 부인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문이 나서, 젊은 부부들이 몰려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일도 없었다. 그러니 어찌겠는가? 성경에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한꺼번에 3천 명이 회개(悔改)하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스테반은 한번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런데 나는 베드로처럼 큰일도 이루지 못했고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지도 않았다. 아무래도 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나라는 생각을 가끔이 아니라 늘 한다.

어느 해 여름에 교우 중 한분의 장모(丈母)님이 한국에서 이곳에 살고 있는 딸네 집을 방문하셨다. 나이는 70이 넘으신 분인데 연세에 비해서 정정하시고 꽤나 깔끔한 성격을 가지신 분이였다. 한국에서도 교회를 다니시거나 그리스인 분이 아니였다. 그러니 딸 사위가 일요일에 교회를 가

면 혼자서 집에 계시곤 했다. 사위도 꼬장꼬장한 장모님의 성격을 아는 터라 억지도 교회로 모시고 오려 하지 않았다. 미국에 오신지 3개월쯤 지난 어느 일요일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 장모님이 사위를 보고 자기도 교회에 가겠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때부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몇 달 동안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을 하셨다. 그러더니 한국으로 가실 때가 가까워 오자 하루는 내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더니 세례(洗禮)를 받고 싶은데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었다.

평소에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계셨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꽤나 강하신 분이었는데 뭐가 어찌 된 일일까? 아무튼 그보다 더 반가운 일이 어디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해 추수감사주일에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몇몇 교인들과 함께 그 댁에 방문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오려는데 그분이 또 내게 물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떠나기 전에 자기가 한번 기도하면 안 되겠느냐는 것이었다.

그걸 누가 마다하겠는가? 뭐가 거꾸로 돼간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시라고 했다. 성심(誠心)을 다해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던 그 음성이 지금도 귀에 들리는 듯하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분은 한국으로 돌아가셨다. 그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한국에서 또 일어났다.

그분이 한국으로 가신 후 3년쯤 되어 병환이 매우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의 따님이 한국을 방문했다. 노환(老患)이 되어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자녀들은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어머니 손을 잡고 울고불고 했다. 그런 가운데 어머니가 감고 있던 눈을 뜨시더니,

“그렇게 울지 마라! 나는 이제 갈 곳이 분명하니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나 앞으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 해야 한다!”

그리고 며칠 후 운명(殞命)하셨는데 그 일로 그 분의 자녀들이 모두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그분은 한국에 계실 때 주변에서 온갖 못된 소리를 많이 들으셨다. 거의가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소리였다. 믿는 사람들이 전부다 나쁘고 못된 건 아닌데 못된 일만 유독 더 크게 부각(浮刻)되는 법이고, 그것이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좋은 핑계거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분이 미국 딸네 집에 와서 몇 달을 계시면서 지내보니, 딸네 식구하고

이웃하며 지내는 교인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면 자기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있던 차에, 어느 일요일 날 딸네 식구는 모두 교회로 가고 집에 혼자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고 보니 웬 얼굴은 시커멓고 머리는 뽀글뽀글하고 이빨만 하얗게 보이는 덩치가 엄청 큰 남자가 문 앞에 떡 버티고 서 있어서 기겁을 하셨단다. 무슨 말인지 통하지도 않고 더럭 겁이 나서 가슴이 뛰고 간이 쿵알만 해 지는 경험을 했다. 그 후로도 그런 일을 몇 번 당하고 나니 도저히 혼자서 집 지키는 일은 못하겠어서, 사위를 보고 자기도 일요일에 교회에 데리고 가 달라고 하셨다는 것이다.

참 별 일도 다 있다. 그분은 그 시커먼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별 이상한 방법도 다 쓰신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일이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장 16절)

에필로그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를 가리켜서 ‘꿈꾸는 자’ 라고 말하기도 하며, 교회에서는 청년들에게 요셉처럼 꿈을 꾸라고 가르치기도 한다. 요셉이 두 번 꿈을 꾸었다. 첫 번째 꿈은 형들과 함께 벧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벧단이 모두 요셉의 벧단 앞에서 절을 하는 꿈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모두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다. (창세기 37장 6-9절 참고) 후에 요셉은 애굽 국무총리가 되고, 그의 아버지 야곱과 열 한명의 형들이 애굽으로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고 말하며 큰 꿈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스스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 없다. 그리고 그런 꿈을 꾸고 싶어 해서 꾸게 된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이 그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을 사용하시려고 그에게 꿈을 주신 것이다. 내가 스스로 꿈을 꾸고 싶다고 꿈이 꾸어지는가? 그리고 내 마음대로 꿈을 꾸다고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가? 만일 그렇다면 한 나라에 한꺼번에 여러 사람의 대통령이 동시에 나와야 한다. 어린아이들에게 장차 커서 무엇이 되려느냐고 물으

면, 대부분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말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꾸어도 정작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 뿐이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꿈은 무엇인가? 그래도 꿈은 이루어진다고 말 할 수 있는가?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꾸어본 일이 없다. 그러니 대통령이 되지 않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 내게는 무슨 다른 꿈이 있었는가? 한국에 있을 때 가까이 지내는 대학 동기들이 몇 명 있었다. 한번은 함께 모여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장차 무엇이 되려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이 있다. 그 때 나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너는 정치를 해서 국회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는 경찰로 출세를 해서 한국 경찰을 장악해라. 그리고 또 너희들은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검찰과 법원의 총수가 돼라.”

그렇게 네 명의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한 친구가 나를 보고,

“그럼 너는 뭐 할 거냐?” 하고 물었다.

나는,

“난 그냥 평범한 소시민(小市民)으로 살란다. 소시민도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고 웃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보니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다. 내가 지금 소시민으로

살고 있으니까!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 달라고 비는 것을 종종 본다. 머리로 있고 몸통도 있고 꼬리도 있어야지 머리만 있으면 그게 온전한 것일까? 다 머리가 되면 그건 이상한 세상이다. 어쩌면 평범한 소시민들이 있기에 세상이 아직은 이처럼 살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내게도 꿈이 있기는 있었다. 돈을 좀 벌면 보트 한 대와 여행용 차를 사서 여행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리 크지 않은 집을 하나 사서, 가끔 가까이 지내는 이웃들을 한 백 명쯤 초청해서 저녁을 함께 먹고 놀고 싶었다. 그 모든 것이 헛된 꿈이었다. 지금 내게는 보트 한 대도 여행용 차량도 없다. 집도 그리 큰 집이 아니다. 왜? 돈을 벌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다. 지금 나는 일요일이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마치고 백여 명쯤 함께 앉아서 늦은 점심 식사를 한다. 아무래도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었고 다른 것들은 헛된 꿈이었던 것 같다. 정말 사람은 꿈꾸는 대로 되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 맞는 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을 꿈꾸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일 것이고, 그렇게 꾸어지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